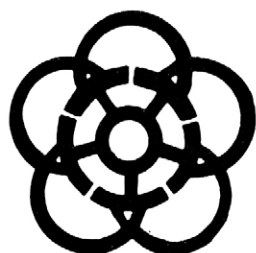


瑞山の 옛소리



瑞山文化院

瑞山の 옛소리



瑞 山 文 化 院

發 刊 辭



어느 시대이고 그 시대에 맞게 불리워지는 소리가 있게 마련인데 그 소리는 그 지역민의 생활의 이야기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오랜 세월(歲月)따라 시대적 변화(變化)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愛唱)되면서 전승되어 그 시대의 역사(歷史)로

써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가 밀려든 서구문물(西歐文物)로 인해서 존재가치 없이 서구화(西歐化)된 소리에 자치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고령자(高齡者)들에서 간신히 맥(脈)을 잇고있는 그 소리를 찾지 못한다면 민족의 정신문명(精神文明)으로 지켜져온 우리의 삶의 소리는 영영 찾아볼 수 없는 위기(危機)에서 하루빨리 조사·기록되어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나 요즈음 우리 고장은 서해안개발(西海岸開發)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개발과정에서 전통민속(傳統民俗)이 점차 살아져가는 실정에 명맥(命脈)을 잇고 있는 이 소리를 수집(蒐集), 악보화(樂譜化)하여 향토사료(鄉土史料)로 영원히 보존(保存)하기 위해 간행(刊行)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으나 우리 문화원 운영위원(각 읍·면·동책임자)과 홍보위원(각 리·통남녀책임자)들로 하여금 자료조사와 민속학자이신 하주성(河周成) 선생님의 편저(編著)로, 아울러 박중배(朴重培) 충남지사님과 김홍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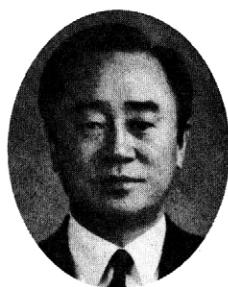
(金興泰) 서산시장님, 이수원(李守遠) 서산군수님의 지원으로 『서산의 옛소리』를 펴내게 되어 위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인쇄를 맡아주신 서산인쇄 한 흠(韓洽)사장님께도 고마움을 표하오며 미흡하지만 이 소리책이 향토사연구와 후생들의 교재로 보탬이 되고 널리 활용(活用)되기를 기대합니다.

1994. 11. .

서산문화원장 김 현 구

祝 刊 辭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고유의 문화유산
을 면면히 지키며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독특
한 조상들의 진한 삶의 맥박과 향기어린 전통
문화가 과연 지금의 우리생활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며 가까이 머물고 있는지 돌이

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모진 바람속에서도 굳건히 견딜수 있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듯이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가꾸고 지켜왔던 민족만이 한시대를 이끌었던 주역이 되어 왔음
을 역사적 사실에서 반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잊혀져가는 우리고장의 옛소리를 채보하여
『서산의 옛소리』를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된것을 짐심으로 기
쁘게 생각합니다.

독특한 우리고장 고유의 소리가 현대의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
한 유산으로 부추겨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문화를 새롭게 창
조하는 디딤돌로써 이 한권의 책이 일조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
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산의 옛소리』발간을 위해 애
쓰신 김현구 서산문화원장님과 관계하신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 11. .

서 산 시 장 김 홍 태

祝 刊 辭



우리고장은 먼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天惠의 自然環境과 賦存資源이 많아 일찌기
三韓時代에는 馬韓地域에 속한 54개국중 『치
리국』과 『신소도국』 2개의 부족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역사의 고장입니다.

地理的 조건으로 볼때 서산권의 동부는 底
山性 丘陵地로 農耕文化가 發展해 왔고 서부
해안지역은 漁民文化가 발전하여 2가지 종류의 民俗文化와 信仰
이 常存하면서 이질감이 없는 서산만의 독특한 生活文化를 創出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한 產業經濟의 發展으로 祖上
傳來의 傳統文化와 民俗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은 祖上의 뿌리
마저 잊어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때에 다양한 傳統民俗文化的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옛 先賢들의 生活속에 즐겨 부르던 農謠, 뱃소리, 목도소리, 지점
소리, 베짜는 소리등 잊혀진 『서산의 옛소리』들을 發掘하여 노래
歌辭와 樂譜를 체계화시킨 『서산의 옛소리집』을 瑞山文化院에서
發刊하게 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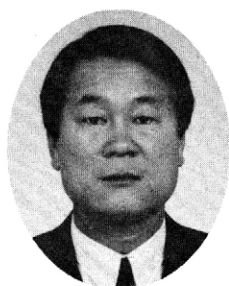
아무쪼록 이 옛소리집이 내고장 내나라를 이끌어 나갈 現世代
와 後孫들에게 鄉土文化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歷史的 矜持를 일
깨워 주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資料로 널리 活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서산의 옛소리집』發刊을 위해 애써주신 瑞山文化院 金顯
龜 院長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感謝와 祝賀를 드립니다.

1994. 11. .

瑞 山 郡 守 李 守 遠

祝 刊 辭



우리 瑞山地域의 傳統民俗文化를 保存하기 위하여 늘 어려운 與件에서도 崇高한 使命感을 가지고 心血을 기울여 온 瑞山文化院이 오늘, 우리고장의 言語文化를 發掘하고 調査·蒐輯하여 길이 保存코자 『瑞山の 옛소리』를 發刊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社會는 國際化 開放化의 이름으로 進行되는 無分別한 西歐文化의 導入으로 鄉土文化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時點에서 우리固有의 鄉土文化를 繼承하고 保存하기 爲한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管理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으며, 많은 有·無形 文化遺産이 現存해 내려오고 있는 우리 瑞山地域의 文化暢達을 위한 瑞山文化院의 그동안의 活動은 유난히 돋보였다고 봅니다.

특히, 요즈음의 文化的 現實을 直視할때, 國籍없는 大衆文化의 氾濫으로 因해 主體性和 自主성이 退色되어 가는 우리 文化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와 함께 祖上의 슬기와 智慧가 調和롭게 어우러져 綿綿히 내려온 獨步的인 言語文化의 優秀성이 더욱 強調되는 現實을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文化情緒의 充足欲求에 香氣로운 文化의 精粹를 불어넣기 위한 努力이 必要하다고 보며, 모든 文化團體들을 中心으로 團結하여 文化市民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되살리기 爲해邁進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瑞山地域의 文化發展을 爲해 矜持와 使命感을 堅持하시고
瑞山文化의 礎를 일궈주시는 金顯龜 文化院長님을 비롯한 會員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은 敬意와 感謝를 드리며 『瑞山の 옛소리』
가 瑞山地域 言語文化에 對한 市民들의 認識을 더한층 높이는데
있어 그 밑거름이 되리라 期待합니다.

1994. 11. .

瑞山市議會議長 朴 英 雄

祝 刊 辭



우리 고장에 전래되어 오고 있는 농요, 어요 등 갖가지의 오랜 옛소리를 한데 묶어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발간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를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역사의 뒷안길에서 과거를 조명해 보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예지를 창출코자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는 공동생활의 중심점으로 자리를 굳혀 왔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농경문화의 정착생활과 더불어 수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지역마다 독특한 소리를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서산 지역은 옛 백제의 웅혼한 정신과 굽이치는 기상으로 충청인의 얼과 노래를 집적시켜 왔던 곳입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고장의 얼과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한고장에 살아온 터주대감으로서 진한 향토애를 느끼고 삶의 공감대를 크게 형성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것이 아닌 이질적인 외래사회 문화가 곳곳에 자리잡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에 살아숨쉬는 우리 서산문화의 생명력있

는 옛소리를 집대성한 책자의 발간을 다시한번 매우 뜻깊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책자속에 수록된 아름다운 우리의 옛소리를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김현구 서산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11. .

서산군회의회의장 金 煥 旭

目 次

一. 머릿글	1
二. 俗謠에 關한 考察	3
(1) 由來 및 變化過程	3
(2) 俗謠와 民謠의 比較	7
(3) 俗謠와 巫經(巫歌)의 關係	9
三. 瑞山の 옛노래	38
(1) 作 業 謠	39
○ 農 謠	43
○ 魚 謠	94
○ 地 硬 謠	98
(2) 婦 女 謠	116
(3) 儀 式 謠	146
(4) 巫 經	184
四. 뉘는글	266
(附錄) 歌 唱 者 名 單	271
編 著 者 略 歷	273
資 料 調 查 者	275

머릿글

한 時代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겐 그 時代에 맞게 創出된 소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 소리는 대개 그 地域에서 生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웅어리진 恨이요, 生活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글로써 表現할 수 없는 無智나 團圓의 環境的 分團氣가 혼자서 혹은 몇명이 한데 어울려 共通的인 內的 感情을 表現할때 그 곳의 곧 大衆의 합성이요 그 地域民의 소리文化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 時代뿐이 아니고 지나간 오랜 歲月동안 이 地域의 소리는 時代的 背景에 따라서 旋律, 辭說의 順次的인 變化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愛唱되고 民衆의 가슴속에 뿌리 내리면서 傳承되어 왔던 것이다.

地方에 散在해 있는 수 많은 俗謠 그것은 곧 庶民社會가 創出해 낸 民衆의 합성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토해내는 思想이다. 이러한 俗謠는 時代的인 變化에 따라서 辭說의 內容과 旋律이 變化되면서 그 時代的인 面을 엿볼 수 있는 貴重한 資料로써의 價値도 지니고 있다.

어느 時代이고 간에 庶民들은 生活의 연유도 없이 짓눌린 雰圍氣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글로써 말로써 表現할 수 없는 가슴속에 웅어리진 恨을 노래로 토해 내었기에 어느 時代의 俗謠의 辭說이나 旋律은 그 時代의 歷史로써의 價値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庶民社會의 노래가 現 時代에 접어들어 급작스레 밀어닥친 西歐文物로 인해서 舊習이라는 表現 한마디에 存在價値 없

2 머릿말

는 過去 속의 이 時代에 걸맞지 않는 소리으로써 여겨졌으며 많은 地方의 소리꾼들은 스스로 자기 비하에서 오는 쟁이의식 속에서 나타나기를 꺼려하고 소리를 멀리했으며 社會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것도 識者層의 사람들에게서 賤視되고 도외시 되어 온 것이 우리네의 歷史의 소리요 庶民의 삶의 소리를 잊게 만든 것이다.

多樣한 소리를 地域속의 音語로써 긴 時間을 그 고장의 風習과 關係지어 지면서 消滅되고 創出되며 記憶속에서 스스로 탈바꿈을 하는 形態로써 自然的인 順次的 反複過程을 거치면서 때로는 恨으로 때로는 興으로 모양새를 바꾸면서 傳承되었던 것이 現在에는 그 자치조차 없고 다만 西歐化된 소리만이 어느 곳에서나 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韓國人의 소리. 그 地域에서 태어나고 스러져간 많은 土着民의 소리는 이제 멀지않아 옛 授藝人들과 함께 영 영 땅 속에 묻히게 된 昨今の 實態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時代에 살고 있으며 西歐文物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고 過去 이 땅에서 創出된 民俗藝術을 잊고 있으며 눈 앞에 보이는 것조차도 보기를 꺼려하는 우리 모두의 責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는 關係部署의 모든 책임자와 아래로는 地域民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保存, 傳承하는데 열심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나서기조차 꺼려할 이 時代를 사는 韓國人의 共通的인 책임이라고 본다.

지금에나마 各處의 高齡者들의 퇴색된 音律 속에서나마 간신히 脈을 잇고있는 韓國 民衆의 恨과 興의 소리. 그 소리를 찾지 못하고 찌들어버린다면 西歐의 物質文明에 밀려 이 民族의 精神文明으로 지켜져 온 우리네의 삶의 소리는 여기서 영영 脈이 끊

기고 말것이며 時間이 지나다음 이 時代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後代들의 地탄감이 될 수 밖에는 없다.

겨우 命脈만 잇고 있고 그나마 數年間に 흔적도 살아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네의 소리는 하루빨리 調査, 記錄되어 保存을 해야하여 傳承에 박차를 가해야 될것이다.

二. 俗謠에 關한 考察

(1) 由來 및 變化過程

地方에 散在해 地域의 特性과 授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變化하며 이어지고 있는 많은 俗謠는 그 發生根據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文獻化된 記錄이나 資料가 없어 단지 推定을 할수 밖에 없으며 더욱 民俗藝術의 總體의인 特徵을 보면,

첫째 : 作者와 創出年代의 未詳

둘째 : 어떠한 形態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授藝人의 自由로운 表現에 따라 變化가 된다.

셋째 : 演戲場所나 小道具 等に 제한을 받지 않는다.

等으로 說明하고 있어 表現이나 共演에 따른 自由로움을 뜻하고 있다. 하기에 이 俗謠의 創出時期도 어느 時代부터라고 斷定 지을 수가 없으며 다만 이 俗謠의 原初的인 形態가 過去 先史以前의 祭天儀式에서 由來하고 있다고 推定할 뿐이다.

4 俗謠에 關한 考察

馬韓에서는 五月 下種과 十月 秋收가 끝나고 나면 여러 고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쉬지않고 노래하고 춤추며 飲食을 먹고 즐겼다고 적고 있어(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條: 馬韓相伏 五月 下種說 祭鬼神 郡聚歌舞飲~~樂~~ 盡夜無休 其舞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節奏有以鐸舞 十月農功畢 赤復如之 이 때문에 祭儀式에서 使用하던 노래가 時間이 지나면서 地域의 特性에 맞는 俗謠로 定着한 것으로 보는데 馬韓의 民俗은 곳이고 그 곳은 農作에 關한 것이고 各 處에서 나타나는 都堂곳이나 別神곳은 다 馬韓의 豐農에서 비롯한 곳의 遺風이라고 보는 見解가 대부분이므로(李惠求: 三國時代의 音樂(文藝振興院刊 韓國藝術總覽) 馬韓의 祭天儀式, 扶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濊의 舞天 等の 儀式에서 나타나는 歌(노래)는 現在 各 處에 散在해 나타나고 있는 俗謠의 原初的인 形態라고 보아진다. 즉 처음에는 豐農이나 洞里的 安寧 等を 要求하던 辭說이 時間이 지나면서 細分化하여 여러 形態의 노래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俗謠는 現場性이 강한 것으로 現場에서 매김소리(先唱)에 맞추어 받음소리(後唱)를 부르던 歌唱者가 潛在的으로 記憶되어 있던 것을 現場에서 다시 부를때는 前의 歌唱者와는 달리 辭說이나 旋律이 變化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 처음에는 祭儀式에서 使用되던 하나의 辭說이 聚落의 形成이 늘고 많은 人口의 增加와 함께 여러 地域으로 分散되어 村落을 形成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地域의 地理的인 條件에 따른 敎影을 받으면서 나뉠대로의 辭說과 旋律을 만들었다고 보아지며 그 고장에 맞는 삶의 形態에 따라 논농사, 밭농사, 어요 等으로 細分化했다고 보아진다.

이렇듯 現場性이 강한 俗謠는 그 發生을 볼때 순간의 느낌→必要에 따른 辭說의 發生→地域的인 特性에 따른 旋律과 辭說의 發

生→時代的인 背景에 따른 變化→現場에서의 歌唱→潛在的인 記憶→變化된 特徵있는 俗謠의 再創出이라는 順次的인 反複過程을 거치면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어느 순간적인 充動에서 나타나는 單聲(순간의 충격으로 나타나는 “어”나 “아” 혹은 감탄을 할 경우 “야”나 “오”等)에 歌唱者(충동을 받아 表現하는 者)는 뒤에 말을 붙이게 된다. 單聲으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形態이며 대개는 뒤에 이어지는 複聲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아”에 이어내는 소리인 음식이 맛이 있으면 “맛있다”라는 어휘를 붙이게 되고 하늘을 보며 비가 오기를 고대하는 농부의 경우에는 “아”에 이어 “하늘도 무심하시지”등의 비탄조로 옮겨 된다. 이러한 경우 전기의 기쁨에 넘친 “아”와 후자인 비움에 찬 “아”는 같은 “아”로 表現되지만 그 分圍氣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순간적 충동에 이어서 나타나는 연결소리에 따라서 狀況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곧 그때의 分圍氣가 소리의 흐름을 바꾸어 놓듯 廣觀的으로 볼때 그 時代의 歷史라는 分圍氣는 俗謠의 辭說에 많은 影響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複聲이 연결될때 그 소리는 그 地域의 地理的 條件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여 創出되는데 地域에 따른 辭說의 變化로는 논농사가 많은 곳에서는 農謠의 辭說이 밭농사가 많은 곳에서는 밭농사 소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辭說 또한 그 作業에 따라 적당하게 變化하고 있다는 점이다. 海邊이나 江邊에서는 自然的으로 뱃노래나 魚謠가 주종을 이루는 것도 결코 우연일 수는 없으며 이런점은 地理的인 條件 中에서 으뜸으로 꿈는 俗謠의 創出條件이며 다음으로 그 地域의 地勢와 그 地域民의 性格, 言語, 소리는 共通點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地域民의 性格을 區分할때 크게 나누어 京鄕地方(서울, 京畿와 忠淸南北道

北部), 湖南地方(全羅南北道와 忠淸南北道 南部), 嶺南地方(江原道와 慶尙南北道)로 區分되고 있으며 이 地域의 地勢를 보면 嶺南地方은 山脈이 거의가 高山地이면서도 急格한 高低의 變化를 보이고 있으며 湖南地方의 경우에는 넓은 平野가 대부분이면서도 勢가 수려한 山을 지니고 있고 京鄕地方의 경우에는 山은 많이 있으나 높지 않으며 高低의 差가 심하지 않고 완만한 능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嶺南地方의 山勢가 격하고 男性的인 데 비해 湖南地方은 섬세하고 女性的이며 京鄕地方의 경우 중용을 취하고 있어 이 地域의 地域民의 性格이나 言語와 共通點을 갖고 있고 그 地域民의 性格이나 言語는 俗謠의 創出條件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慶尙地方의 俗謠를 보면 辭說이 호탕하고 鬭爭的이어서 男性的인데 비해 湖南地方의 경우에는 육자백이와 같이 섬세하고 잔가락이 많으며 女性的이다. 또한, 京鄕地方의 경우에는 兩便의 形態를 接木시킨 打令調로 거의 모든 俗謠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순간적인 充動에서 그때 그때 必要에 따른 辭說을 붙이게 되고 地理的인 形態에 따른 旋律이 創出되는 俗謠는 時代的인 背景에 따라서 辭說과 旋律의 變化를 갖고 오는데 예를 들어 農謠의 경우에 벼의 新品種이 나타나게 되며 自然스럽게 벼의 名稱은 變化되고 있으며 事物의 名稱이나 地名 등이 그때 그때 그 時代에 맞은 名稱으로 變化하고 있으며 그 時代的인 分圍氣에 따라서 旋律의 느낌도 따라서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둡고 침울한 時代의 노래는 함께 悲調로 나타나고 있으며 泰平을 누릴때의 辭說은 함께 興에 겨움을 알 수 있어 時代的인 背景에 따른 變化를 알 수 있다. 이러한 創出過程을 거치면서 나타난 地方의 俗謠는 現場에서 必要時에 나타나는 노래로써 農謠는 農事일을 할때 魚謠는 고기

를 잡거나 배를 저어 나갈때 婦女謠는 婦女子들의 作業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어 俗謠는 現場性이 강한 노래임을 알 수 있으며 이렇듯 現場에서 唱者에 의해 口誦되는 俗謠는 現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潛定的으로 記憶되어 있다가 必要時에 다시 現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때는 前唱者와 同一한 旋律이나 辭說이 아닌 再唱者의 授藝力(暗記力, 表現力)에 의해서 特徵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順次的인 反復過程을 거치면서 潛在的인 記憶 속에서 變化하고 再創出되는 俗謠는 時間의 흐름속에서 그 地域에 사는 地域民의 가슴속의 소리로서 表出이 되어 왔으나 昨今에 들어서 西歐文物의 導入과 西歐文化인 物質文化에 빠진 現代人들의 思考에서 단순히 過去의 退物인양 오인되고 있어 거의가 斷絶되고 말았으며 겨우 高齡層의 一部 村老들만이 記憶하고 있으나 數年內에 完全 消滅될 우려가 있어 그 保存·傳統이 時急하다.

(2) 俗謠와 民謠의 比較

요즈음에 들어 대개의 사람들은 地方에서 地域의 特徵이나 歌唱者의 技藝力에 따라 歷史性を 지니고 있는 모든 노래를 總稱하여 民謠로 指稱하고 있다.

하지만 民謠와 俗謠는 區分되어야 하며 俗謠로 創出된 것이 體系的 傳授方法에 의해 傳承되고 變化(辭說과 旋律)이 되지 않는 것이 民謠라는 점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過去 우리네 各 地方에서 獨創的인 特徵으로 나타나던 소리는 俗謠로 보아야 하며 俗謠란 風俗과 함께 그 時代的인 周圍環境에 따라서 自然스럽게 變化하는 것을 이른다. 이렇듯 地域의 特性

을 지니며 그 時代的인 背景을 變化와 再創出의 條件으로 지니고 있으면서 歌唱者의 技藝力에 따라서 變化하는 俗謠가 어느 時期에 한 곳에 定着되어 그 地域나름의 特徵을 나타내며 旋律이나 辭說이 變化되지 않고 傳承되어 定着한 것이 民謠라고 稱해진다. 하기에 民謠의 母體는 俗謠이며 民謠와 俗謠는 確實한 線을 그어 區分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에 나타나는 천안삼거리나 山有花歌 等 忠淸南道에서 民謠化된 노래는 俗謠가 정착되어 民謠로 傳承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듯 俗謠와 民謠는 그 傳授方法이나 構成에 있어서도 各各 特徵을 지니고 있어 쉽게 區分지을 수가 있는데 요즈음에 와서 地方에 散在한 많은 俗謠가 나름대로 體系的인 傳授方法에 의해서 傳承되고 있어 民謠化 되었지만 대개 俗謠가 作業性이나 祈願性을 띠우고 있는데 비해 民謠는 거의가 娛樂的인 面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俗謠와 民謠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特徵的인 面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民謠의 경우에는 地域的 特性을 強하게 나타나 體系的으로 정립되어 있어 個人의 따른 獨創的인 變化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俗謠는 地域的인 特性보다는 歌唱者의 力倆는 따른 特徵이 우선적이다. 民謠가 歌唱力이 있는 技能保有者에게서 體系的인 傳授方法에 의해 정해진 場所에서 같은 辭說이나 旋律을 反復해서 불러 숙달시키는데 비해 俗謠는 現場에서 自然的인 暗記力에 의해 潛定的인 記憶으로 있다가 必要時에 現場에서 歌唱者의 特性에 따라 再創出되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必然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하기에 民謠는 그 共演場이 共演을 하기위한 條件이 갖추어진 무대를 中心으로 演戲가 되어 觀客

이 必須的으로 動員되야 하는데 비해 俗謠는 自然스런 生活의 터전에서 必然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개는 現場中心의 소리이다. 特히 民謠는 體系의인 傳授方法에 의해서 傳授가 되기때문에 辭說이나 旋律이 거의 變化가 없으나 俗謠의 경우에는 歌唱者의 暗記力이나 表現力 等 力兩에 따라 旋律이나 辭說의 變化가 심하게 나타난다.

各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의 總體的인 特徵을 보면

1. 創出年代나 作者가 未詳이다.

2. 現場性和 大衆性を 띠우고 있다.

3. 演戲에 있어서 周圍의 環境의 要素에 구애받지 않으며 人爲的으로 나타나지 않고 必然에 의해 自然發生한다.

4. 表現力이 自由로우며 辭說이나 旋律이 매우 多樣하다.

위와 같은 特徵을 지니는 俗謠는 그 創出에 대한 特徵을 보면

1. 自然發生되어 人爲的인 變化를 거치면서 再創出된다.

2. 대개는 作業性和 祈願性を 띠우고 있다.

3. 現場에서 直接 創出되는 경우가 많다.

4. 潛定的인 記憶속에 있다가 外的으로 表現된다.

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이렇듯 民謠와 俗謠는 뚜렷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이제는 그 區分을 正確히 해야 할 것이다.

(3) 俗謠와 巫經의 關係

韓國의 民俗은 巫俗과는 不可分의 關係를 지니고 있다. 巫俗의 由來는 대개 開國 當時인 檀君朝로 보고 있으며 一部の 學者들은 檀君神話를 巫俗性에서 緣由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檀君朝 以後 三韓時代부터 傳해진 各種 祭儀式에서는 樂歌舞가 나타나고

있어 現在 各處에서 나타나는 巫歌나 巫經, 巫舞 等の 原初의 形態로 보기도 하는데 馬韓의 風習은 五月 下種과 十月 秋收가 끝나고 나면 男女老少가 한데 어우러져 주야로 쉬지않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記錄하고 있으며 馬韓의 習俗은 굿이고 이 굿은 農作에 關한 것으로써 各處의 都堂굿이나 別神굿은 이 굿의 遺風이라고 앞서도 밝힌 바 있어 이 農作과 關係있던 굿이 더 廣範圍하게 人間의 安寧을 위한 方法으로 變化한 것으로 보아지며 時間이 지남에 따라 그때 그때 時代的인 狀況에 따라서 各種 民俗놀이나 俗謠, 혹은 民俗놀이(祈願性民俗인 地神밧기, 거북놀이, 旗싸움, 장치기, 줄다리기 等)나 民俗遊戲와 洞里農樂 等으로 區分지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때에 祭天儀式 등에서 나타나던(濊의 舞天, 高句麗의 同盟, 馬韓의 天神祭, 扶餘의 迎鼓 等) 歌는 곧 지금의 巫歌나 巫經의 原始形態로 보인다.

過去에 祭儀式에서 춤과 노래는 대개 神을 위하고 神을 즐겁게 하므로해서 人間이 神에게 도움을 받아 平安하기를 바란 內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遺風은 各處에서 나타나고 있던 傳來 都堂굿이나 別神굿, 或은 農魚굿 等에서도 보이고 있어 推定할 수 있고 더욱 巫歌나 巫經을 보면 神의 來歷을 頌祝하는 紋事 巫歌나 神의 能力은 頌祝하여 人間에게 福을 주고 禍를 막아주기를 바라는 巫經의 內容이 대부분이므로 巫歌나 巫經의 由來는 過去 先史以前의 굿儀式인 祭天儀式에서 緣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形態가 傳해지면서 巫覡들의 形態에 따른 區分이나 (선거리나 앓을거리 혹은 世襲巫나 降神巫) 地域에 따른 巫儀式의 特異性 그리고 그 技能에 따라서(暗記力이나 表現力) 그 內容의 變化가 나타나며 現在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흔히 우리는 巫儀式의 進行에서 나타나는 巫儀式 節次의 소리

를 巫歌라 稱하고 있으나 엄격히 따져 이 소리는 巫歌, 巫經, 神談(혹은 神歌)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巫儀式은 各 地方別로 特徵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巫覡의 形態, 곧 儀式節次의 形態에 따라서 노래나 或은 辭說(空手) 經文 等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進行하는 巫儀式을 보면 巫歌란 주로 선거리들이 歌舞를 섞어서 音律이 있는 적당한 노래나 말로써 神과의 結束을 다지기 위한 方法으로 神의 來歷을 頌祝하는 노래를 하거나 神의 계시를 人間에게 長短에 맞추어 노래를 하거나 하는 形態로 보이며(공수라 하여 歌와 談이 섞여서 나타난다) 또한 앓은거리들은 巫經이라 하여 文書라 稱하는 辭說의 經文을 정해진 旋律에 얹어 口誦하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어 이 經文은 그 內容을 보더라도 巫歌와는 달리 神의 能力을 頌祝함으로 해서 人間에게 福을 주고 禍를 豫防해 줄 것을 請願하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느 地域의 굿儀式에서나 共通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神(巫覡의 몸에 接神된 神將이나 祖上神 等)들이 人間에게 맹목적으로 接視하고 예언하는 공수(神歌)로 區分지을 수 있어 巫儀式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巫歌, 巫經, 神歌(神談)인 공수로 區分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것 中에서 巫歌와 巫經은 各己 特徵的인 形態를 보이고 있는데 巫歌의 特徵을 보면 巫儀式에서 口誦되는 口碑物으로써 “巫”라는 特殊한 階層에 屬하는 部流의 專有物으로써 專門職業人인 巫로써의 技能을 發揮하기 위한 것이며 이 巫儀式에서 口誦되는 巫歌가 一般的인 口碑物과 區別되는 特徵을 보면,

첫째: 呪術的이다. 巫歌는 巫의 技能인 占福, 治病, 豫言 및 司祭者로써의 神秘性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그 呪術的 效果가 實質性으로 立證된다.

둘째: 神聖性이다. 판소리나 民謠, 或은 假面劇의 聽者가 一般 對衆인데 비해 巫歌는 神이 聽者이며 神과 人間과의 對話이다.

셋째: 傳承이 制限되어 있다. 巫歌는 대개 즉흥적 創作部分과 固定傳承의 유형으로 나뉘이는데 降神巫의 卽興的 創作은 體系나 論理나 정연치 못하며 文學的 수사도 결여되어 있다.

넷째: 正初에 벌어지는 安宅굿이나 재수굿 等 一年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巫儀式이 나타날때는 心的 위안이 주가되기 때문에 娛樂性이 強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巫歌는 律文 傳承이다. 巫歌의 樂曲은 대개 그 地方의 民謠와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으며 各地의 特徵있는 俗謠는 대개 그 地方의 巫歌의 影響을 받아서 辭說이나 旋律의 創出이 이루어 진다. 이렇듯 地方에 散在해 있는 俗謠가 巫歌에서 緣由한다고 보는 理由는

첫째: 廣範圍한 巫歌의 辭說로 볼때 그 地方의 俗謠에서 緣由하기란 거의 不可能하여 巫歌와 俗謠와의 辭說로 比較하여 보아도 巫歌나 體系的으로 語句가 나열되는데 비해 俗謠는 巫歌의 몇 구절 식을 취하여 利用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俗謠는 그 巫歌에서 民俗樂의 長短인 打令이나 다른가락 굿거리 等に 맞추어서 歌唱者의 特徵에 맞게 巫歌의 대목에서 必然時에 適合한 文句를 引用했다는 점이다.

둘째: 巫歌에서 나타나는 多樣한 旋律은 그 地方의 民謠나 俗謠의 母體로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육자베기나 성주타령 등을 全南의 海岸에서 흔히 舉行되는 셋김굿의 進行過程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漢水以北의 선거리굿에서 나타나는 창부타령, 대감타령만 보아도 京鄕地方의 音樂的 特性이 打令調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忠淸地方의

俗謠의 경우에는 앞은거리 巫經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흔히 巫歌에서 나타나는 辭說과 俗謠의 辭說을 比較하면 쉽게 理解가 된다.

◎ 城 主 플 이

〈 前 略 〉

○氏宅 한 家中에
대 산소를 마련하고
한 明堂이 떨어져서
○○洞에 當到하여
萬里長城 하여놓고
左右前後 둘러보니
이 明堂이 생겼구나

뒷쪽 산을 바라보니
관우장비가 춤을 추고
앞에 안산 바라보니
釋邊如來 부처님이 잠을 자고
左便에는 靑龍이요
右便에는 白虎로다.
앞을보니 朱雀이요
뒤를보니 玄武로다
四星을 바라볼때
탐랑성이 뚜렷하니
고관대작이 날 明堂이요

老人峯이 뚜렷하니

白髮堂上 모실테요

露積峯이 뚜렷하니

億萬長者 날 明堂이요

子孫峯이 層이졌으니

膝下子孫 萬歲榮이라

文筆峯이 盛大하니

忠臣文章 날 明堂이요

아들아기 낳으려는

孝子忠臣 날것이요

딸아기를 낳으려는

부마당비 날것이요

종이나면 忠忠孝婢나고

소거나면 약내가 나고

말이나면 龍天馬

개거나면 사지보구

닭이나면 사지보구

닭이나면 鳳鷄나고

물이나면 將軍水

풀이나면 還生草

돌어나면 金銀石

흑이나면 경명주사가 날 明堂이라.

이런 明堂이 또 있는가
 이 宅 도장도 좋다는
 盛勢가 모인 宅이니
 後園 堂山에 모셔놓고
 온갖 盛勢가 부는데
 동선안 너른 뜰에
 八卦놓아 인담치고

소소리 大門에
 內外中門이 완연하고
 산자방의 석정방춘
 화류관자 교량
 부귀방의 초당짓고
 생운방의 몸채짓고
 복덕방의 곳간짓고
 정사방의 우물파고

동편곳주 삼십관은
 수수만석이 잠겨있고
 남편곳주 삼십관은
 청조만석이 잠겨있고
 서편곳주 삼십칠관은
 백이만석이 잠겨있고
 북편곳주 오십관은
 참깨, 들깨, 녹두, 기장

밀, 콩, 보리
 각 천석이 잠겼으니
 뒤에라 뒷노적은
 건명대주 노적이요
 앞의 앞노적은
 슬하자손 노적인데
 봉덕새가 날아들어
 앞날개를 한번치면

일천석을 불러주고
 또한날개 한번치면
 이천석을 불러주고
 또한날개 모두치면
 일이만석을 불러주니
 이런 明堂 또 있게나
 (下略)

上記의 巫歌의 辭說 城主풀이에서 보이고 있듯이 이 辭說의 文句는 俗謠 地硬謠나 회방아타령(달구질노래) 혹은 告祀唱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巫歌나 巫經의 辭說에서 引用되는 경우를 보면 前記와 같이 地硬謠나 회닷이 노래는 帝釋풀이와 告祀德談에서 引用하였고 帝釋經과 明堂經, 地神經等에서는 地硬謠, 회닷이노래 告祀唱 등을 巫歌 回心曲에서는 喪吊歌인 喪輿노래, 回心曲 등을 引用했으며 告祀德談에서는 農謠의 各種 辭說과 告祀唱에서 나오는 告祀念佛을 引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巫歌나 巫經에서 많은 俗謠의 辭說이 引用되어 나타나던 것이 時間이 지나면서 時代的인 風刺나 庶民生活의 實態 혹은 가슴속에 恨이나 興, 情 등을 歌唱者의 力倆에 따라서 적당히 구사하게 되자 많은 種類의 辭說이 歌唱者에 따라서 수 없이 變化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比較는 巫歌 帝釋굿풀이의 辭說 一部와 地方에서 나타나는 地硬謠의 比較와 巫經 告祀德談과 俗謠인 民俗놀이 地神밧기나 乞粒 혹은 거북놀이 등에서 나타나는 告祀唱의 한 대목을 比較하면 쉽게 理解할 수 있다.

⊗ 帝釋 굿 풀 이 (巫歌, 巫經)

〈 前 略 〉

금가래에 금줄매고

은가래에 은줄매고

무쇠가래에 쇠줄달고

높은데는 밀어다가

낮은곳을 채워놓고

아랫역군 윗역군을 불러들여

地硬을 다지는데

일세東方 주추밑에

봉황머리 문혔으니

봉의머리 다칠세라

에라 지경이다

에라 지경이요

이세南方 주추밑에

靑龍한쌍이 문혔으니

龍의머리 다칠세라

에라 지경이다

에라 지경이요

삼세서방 주추밑에

금두개비 한쌍 문혔으니

두개비머리 다칠세라

에라 지경이다

에라 지경이요

사세北方 주추밑에

쪽제비한쌍 문혔으니

쪽제비머리 다칠세라

에라 지경이다

에라 지경이요

으세中央 주추밑에

등사한쌍 문혔으니

뱀의머리 다칠세라

에라 지경이다

에라 지경이요

(以上 省略)

⊗ 地 硬 謠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가까운 사람은 보거나 좋게
이 터전을 마련할때
팔도지관 풍수불러
명당을 잡았구나

여보시오 벗님네야
이 明堂이 어떻드나
노인봉이 충졌으니
堂上白髮 모실터요
子孫峯이 비쳤으니

膝下子孫 萬歲榮에
露積峯이 비쳤으니
萬柘巨富 날것이요
文筆峯이 비쳤으니
文筆才士 날것이요
(省略)

上記의 比較에서 나타나듯 巫歌 帝釋굿풀이에서 나타나는 辭說은 地硬謠의 共通的인 辭說이나 정리가 되어 있고 後記의 地硬謠는 前記 部分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辭說로써 城主풀이의 대목을 引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唱者에 따라서 特徵있게 나타나는 地方의 俗謠는 그때 그때 現場의 必要함에 따라서 歌唱者가 적당한 辭說을 붙여서 부

르고 있으나 대개는 巫歌나 巫經의 辭說에서 引用하고 있으며 歌唱者의 力倆인 暗記力이나 表現力에 따라서 變化함은 다음에 紹介하는 巫經 告祀德談과 民俗놀이 大廳굿의 告祀唱을 比較하면 납득이 갈 수 있다.

㊤ 告祀德談(巫經)

天地玄黃 조판後에
 혼탁세계 길단말가
 一大國이 생겨나니
 陰과 陽의 調和로다
 日光은 陽이되고
 月光은 陰이되니
 山之祖宗은 崑崙山이요
 水之祖宗은 黃河水라
 國之祖宗은 大韓國이요
 人之祖宗은 順德인데

학을 놀러라 大闕짓고
 大闕앞에 六曹로다
 六曹앞에는 五營門이요
 五營門 앞에 三角山
 各道各邑 마련時에
 仁旺山은 主山이요
 南山은 案山이요
 東丘재는 靑龍이요

萬里재는 白虎로다
 果川 冠丘山 守口막아
 一大國을 建國터니
 南鮮으로 내리달아
 海東有明은 朝鮮國인데
 京畿같은 政丞네는
 三十七官 마련하고

江原道와 全羅道는
 三十六官 마련하고
 慶尙道로 접어들어
 五十六官 마련後에
 忠淸道라 접어들어
 五十三官 마련터니
 이宅면내 대면내
 이宅동중 대동중

千秋萬歲 지나가고
 乾高坤名 ○氏宅에
 大主몸살 세다하니
 大主몸살 풀고가자
 煞풀었다 解身煞
 父母離別 矇喪煞
 矇喪벗어 解喪煞
 解喪벗어 脫喪煞

夫婦之間 離別煞

內外之間 空房煞

夫子之間 不傳煞

一家親戚 不和煞

나랏님전 不忠煞

洞內坊內 婚姻死 不淨煞

山에 올라 山神煞

고개마루 城隍煞

길로내려 落像煞

물로들어 龍主煞

바깥마당 벼락煞

안마당에 井主煞

부엌안에 竈王煞

뒷뜰에는 垆主煞

마루대청 城造煞

안방에는 三神煞

시렁위에 祖上煞

햇대끝에 帝釋煞

大門으로 썩나서니

大門에는 守門煞

추녀끝에 落水煞

굴뚝밑에 女神煞

距里路中 遠行煞

土主에는 明堂煞

온갖厄煞 들었으니

온갖厄煞 풀고가자

(中略)

東方에 青帝煞은
三八木으로 걷어내고
南方에 赤帝煞은
二七火로 막아내고
西方에 白帝煞은
四九金으로 걷어내고
北方에 黑帝煞은

一六水로 걷어내고
中央에 皇帝煞은
五十土로 消滅하니
이宅 家中前에
온갖 厄煞 消滅됐다
원갓厄煞 消滅되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모든厄煞 막았으니
日月이라 帝釋님전
命과 福이나 發願하자
日月이라 帝釋님이
日光牌는 왼어깨에
月光牌는 오른어깨
양어깨에 둘러메고
人間世上 나오실때
億兆蒼生 萬民들의

富貴貧賤 點指次로
 朝鮮으로 나오실때
 앞바다도 열두바다
 뒷바다도 열두바다
 二十四江 건너실때
 건너갈길 막연쿠나
 나무배를 타자하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돌배를 타자하니
 돌배는 가라앉고

흑토선을 준비하니
 흑토선은 풀어지고
 무쇠배를 타자하니
 달라붙어 못쓰겠다
 首陽山으로 치올라서
 앵무공작 길들이던
 버들잎을 주룩훑어

柳葉船을 지어타고
 靑旗黃旗 꽃을後에
 明絲바람 세솔등에
 와자직끈 건너서서
 한곳에 當到하니
 이곳이 어디더냐
 朝鮮國이 分明코나
 漢陽으로 돌아들어
 王候將相 點指한後
 三南으로 내려가다

한 곳에 當到하니
 이리갈까 저리갈까
 갈되를 못잡다가
 한곳을 바라보니
 이곳이 明堂이라
 이 明堂에 자리한後
 帝釋宮을 지으신後
 帝釋宮에 坐定하니
 이宅 家中前에
 달거리가 세졌구나
 天地神明 感應하여

달거리를 풀고가자
 정칠월 이팔월 사구월 사시월
 오동지 육선달인데
 이 가문에 달거리를
 다 풀어 消滅할때
 정월에 드는厄을
 二月이라 초하루에
 영등할미 위한다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정갈하게 떠놓았으니
 정화수로 막아주자
 二月에 드는厄은
 三月이라 삼짇날에
 江南갔던 제비들이
 春三月에 돌아오니
 돌아오는 제비님네

반갑구나 반갑구나
 멍엑이를 차렸으니
 명맥이로 막아주고
 三月에 드는 厄은
 四月이라 初八日에
 釋迦如來 부처님네
 衆生제도 하시려고

이世上에 나셨으니
 그아니나 반가우라
 釋迦如來 頌祝하는
 觀燈으로 막아주고
 四月에 드는厄은
 五月이라 端午日에

形形色色 옷을입고
 鞦韆을 즐길적에
 바람결에 나부끼는
 그치마가 아름답다
 저그네 잡아타고
 天上玉京 가실려나

五月端午 그네줄로
 厄煞이나 막아보자
 五月에 드는厄은
 六月이라 流頭日에
 綠陰芳草 푸르름이
 온산에 가득하니

그아니나 장관인자
 들넉에는 하나가득
 밀이익어 풍요롭다
 밀전병을 붙여다가
 오는厄을 막아주고
 六月에 드는厄은
 七月이라 七夕日에
 牽牛織女 相逢時에
 烏鵲橋를 건너서서
 萬端說話 나눌때에
 까막까지 날아들어

烏鵲橋를 받쳤으니
 그머리로 막아주고
 七月에 드는厄은
 八月이라 한가위에
 東女西女 나누어서
 길쌈내기 하실때에
 곱디곱던 송편빚어
 어여쁘다 자랑하니
 그송편을 자랑코자
 이웃집에 나눠주던
 쟁반곱으로 막아주고
 八月에 드는厄은

九月이라 重九節에
秋菊香이 가득코나
菊花酒를 빚어내어
祀堂茶禮 한연 후에
이웃집에 나눠주고
한家中이 둘러앉아
食飲으로 막아주고

九月에 드는厄은
시월이라 상달인데
戊午日이 언제든가
시루떡을 하여다가
가는厄煞 오는厄煞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十月에 드는厄은
冬至月 冬至日에

팔죽을 정히쑤어
大門이며 뒷뜰이며
굴뚝이며 담장이며
오는雜鬼 가는雜鬼
이팔죽을 던지거던
不淨도 消滅되니

너희같은 雜鬼들이
어느곳에 덤벼들까
어느곳에 덤벼들까
양손에 죽떠들고
中門大門 끼얹으니

모두다 消滅하여
모든厄煞 막아주고
冬至에 드는厄은
섣달이라 그믐날에
흰떡쌀을 곱게빳아
가래떡을 만들어서

모양좋게 썰던칼이
도마위에 춤을추니
그칼날이 무서워라
모든厄煞 살아가고
섣달에 드는厄은
내년正月 열나흘날

오곡밥을 정히지어
방망이 맞은 북어한마리
백지한장에 둘둘말아
막걸리 한잔 척 끼얹어
煞江에 消滅하니

萬事가 大吉이요

百事가 如一하니

所願대로 되었구나

모든厄煞 물리친후

이곳이 어디엔가

海東은 大韓國

忠淸南道 瑞山郡 ○○面 ○○里

○氏 家中에 찾아들어

人間五福을 點指할때

天福地福이 모여든다

구름福은 넓쳐들고

안개福은 스며들고

물길福은 흘러들고

바람福은 불어들고

모든福을 點托한後

어느업이 줄을소냐

온갖업도 불러보자

쪽제비업은 뛰어들고

동자업은 걸어들고

도야지업은 물려들고

구렁이업은 기어들고

부엉이업은 날아들고

모든업이 모였으니

千柘巨富로 點指하고

萬柘巨富로 點指하여

財數所望 發願할때

南田北畚 장만하여

農事한철 지어보자

앞뜰에는 천석지기

뒷뜰에는 만석지기

물길좋아 고래실에

천수바래기 봉천지기

乾畚水畚 가려놓고

農事한철 지어보자

알록달록 까투리찰

욕심많아 돼지찰

廣州分院에 양품벼에

驪州利川에 자채벼

金堤萬境에 사발벼

감실감실 다마금에

채문좋아 금벼에다

빛깔곱다 은방도

조춤거려 안질뱅이

먼저먹자 六月벼

豐年들어 豐玉이며

둘셋물과 하나변데

이벼저벼 다버리고
品種 좋은 씨를 골라
천석지기로 뿌려놓고
三倍出을 祈願하고
四倍出로 成就할때

밭농사도 지어보자
무엇을 심었느냐
苦草唐草 南方草에
참깨들깨 심어놓고
봄팔가을팔 심었으니
콩농사도 지어보자

성내었다 푸르대콩
방정맞다 주더니콩
獨守空房 홀아비콩
올콩줄콩 질금콩에
千里他鄉 江南콩
二八青春 각씨동부

외톨백이라 홀어미콩
두톨백이는 兩主콩인데
여기저기 심어놓고
보리, 기장, 수수, 감자
歲月이 如流하여
大豐年이 들었구나

장달이같은 종놈들은
 꼬부랑 낫을 지게에 꽃고
 이리로 걸어 저리로 베고
 저리로 걸어 이리로 벨때
 지게에다 찌들이니
 앓다그것 못쓰겠다
 양태바리로 저들이자
 앵무같은 종년들은
 또아리발쳐 저들이고
 앞뜰에는 千柘露積
 뒷뜰에는 萬柘露積

암불담불 쌓였으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子孫昌盛도 發願하자
 上男子孫 서방님이요
 下男子孫 도령님이요
 下男子孫 童子아기
 어깨넘어 孫童子를
 한땀줄에 點指시켜
 있는아기 壽命長壽
 없는아기 生男發願
 나라에는 忠臣되고
 父母에겐 孝子되고

兄弟間에 友愛童이
一家親戚 和睦童이
이웃간에 貴人童이
金枝玉葉 點指할때
二年만에 걸음걸이
王候將相 步法이요
三年만에 말배우니

蘇陳張義 口辯이요
回年만에 入學시켜
文筆功夫 시킬적에
李太白의 文筆에다
王羲之의 筆法으로
四書三經 小學大學
論語孟子 禮書春秋

無不通智 다배운後
國泰民安 政治學에
六法全書 法律學과
天地風雲 造化術을
能通하게 다마친後
世上에 나아가니
六曹判書 都承旨며
左右政丞 지낸後에
萬人之上 一人之下

領議政에 올랐으니
거리거리 頌德碑요
洞里마다 善政碑니
그들아니 좋으리까
(以下 省略)

⊗ 告 祀 唱

(太平盛代)

천지우주 만물되고
지하조차 땅생기니
삼강오륜 으뜸이라
국태민안 시화연풍
범윤자 날아든다
이씨한양 등극시에
봉황에 주천이 생겼구나

학을 놀러라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육조 앞에는 오영문 삼각산
각도 각읍을 마련할때
왕십리는 청룡되고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반하는 금연연

사바는 세계로다
 남산이 주봉되고
 해동은 대한민국
 경기는 경성에라
 ○○같은 대목안인데
 이대면내는 대면내
 이대동등 대동중 근면중

상남에 서방님
 중남에 도령님
 하남에 여자아기
 무릎밑에 손동자
 어깨넘어 질동자
 무럭무럭 자라날때
 기러기 한백년
 천추만세 살아가고

(홍수풀이)

작년같은 험한세월
 꿈결같이 다보내고
 금년새해에 접어들어
 홍수대살을 풀고가자
 모랭이 모랭이 서낭살
 돌무더기도 서낭살

고개고개도 서낭살
 바깥바당에 벼락살
 대문간에는 수문장살
 안마당에는 해룡살
 원근도중에 이별살
 내외간에도 이별살

산으로 오르면 산신살
 물에 들면 용왕살
 마굿간에 우마대살
 장독간에 고두대살
 부엌에는 조왕살
 마루대청 성주살

아래윗방 지석살
 햇대끝에 능마대살
 햇대끝에 삼신살
 이살저살 휘몰아다
 금일 고사반에 도액을 하니
 農事는 大豊이요
 (以下 省略)

上記의 例文 告祀德談이 儀式謠의 하나인 告祀唱의 比較에서도 나타나듯 巫歌나 巫經의 辭說은 專門性을 띠우고 있으며 俗謠 告祀唱의 辭說을 보면 巫經의 告祀德談과는 달리 語句나 文脈의 흐

름이 제대로 連結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그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의 辭說은 그 地方에서 進行되는 祭儀式的 巫歌나 巫經의 辭說 中에서 引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巫覡인 專門人에 의해 이루어지는 굿儀式과는 달리 巫歌나 巫經에서 引用한 辭說은 歌唱者의 力倆에 의해 特徵있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三. 瑞山の 옛노래

일찍 三國 以前의 三韓時代부터 찬연한 文化를 지녔던 이 고장에서는 海岸을 接해 聚落이 形成하고 있어서 旣 곳과는 달리 魚謠가 特徵있게 나타나고 있다. 內陸 지방의 俗謠가 農謠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瑞山지방에서는 農謠와 魚謠가 共存해 나타나고 있어서 地域的 特性에 따른 俗謠의 創出을 알 수 있으며 아직도 많은 俗謠가 老年層의 記憶 속에 있지만 最近 西歐化된 生活方式과 思考로 인해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實情이며 더욱 西海岸時代가 열리자 많은 現代文明의 매개체가 地域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俗謠의 斷絶을 目前에 두고 있다.

俗謠가 그 地方에 居住하고 삶의 터전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때 現場을 잃어 사라지고 있는 俗謠의 斷絶도 안타깝지만 急激한 物質文明에 밀려서 精神的인 支柱로써 使命을 다한 俗謠의 斷絶은 더 없이 안타깝다. 이제나마 이 地域의 소리를 찾아서 整理, 保存한다는 것은 가장 時急한 일이며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作 業 謠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 中에서 많은 것이 作業謠이다. 이 作業謠는 넓게 이야기 할때는 農謠의 全體와 魚謠의 全體 또한 婦女謠의 물레노래 베틀가, 그리고 地硬謠와 喪吊歌인 喪輿소리와 달고질소리가 다 이 作業謠에 屬한다.

이 瑞山의 옛노래에서는 農謠와 魚謠 그리고 地硬謠를 作業謠로 區分하고 물레노래와 베틀가는 內房歌謠인 婦女謠에 喪輿소리와 달고질소리는 儀式謠에서 紹介한다.

• 일러두기

우리나라의 音樂은 洋樂과는 달리 순정률로 되어 있으며 五音階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特徵이다. 엄격히 말해서 순정률을 表記하는데는 五線譜가 맞지 않으며 더욱 俗謠의 경우에는 부르는 唱者마다 音의 高低가 特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분음이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五線譜化 하기도 어렵다. 韓國의 音階는 基本音을 黃이라고 하고 黃, 太, 仲, 林, 南으로 表記하며 黃은 西洋音樂의 덤에 해당한다. 俗謠의 경우에는 唱者에 따라서 高高가 特徵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記譜할 때는 E^bF, D, E, C 등으로 적고 正確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D=黃 式으로 表記한다.

韓國音樂에서는 미는소리, 흘림소리, 떠는소리, 치는소리 등 장식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나름대로 樂譜의 記譜法을 設定해야 하며 地方의 俗謠를 五線에 表記할때는 반드시 樂譜를 보는 讀譜法을 說明해야 한다. 하지만 요즈음에 各 地方의 官廳이나 文化院 等 文化專門部署에서 發刊되는 冊字를 보면 거의가 洋樂式의 五線譜를 아무런 解說없이 적고 있어서 자칫 再現時에 洋樂的인 發聲은 물론이려니와 俗謠의 保存에 害를 끼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本 著에서 紹介되고 있는 俗謠를 보는 法과 장식음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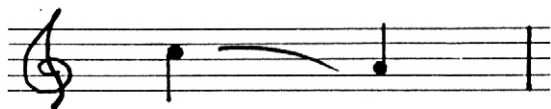
♯

D=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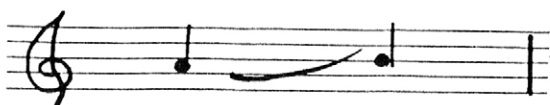
황태자 남이

황태자 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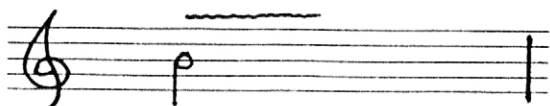
上記의 音階와 같이 五線譜에 表記할 경우 앞에 調表는 아니고 단지 基本音의 構成에 必要할 뿐이다. 하기에 調表가 갖은 意味는 크지 않다. 위에서 나타나듯 E^b과 A^b의 차이는 南과 無의 차이로 E^b일때에는 南音이 나타나고 A^b의 경우에는 南 대신 無가 나타나며 이러한 表記法은 採錄者와 歌唱者 혹은 讀譜者와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의 傳統音樂(國樂)에서는 원래 井間譜를 刊用했으며 基本的인 五音を 黃, 太, 仲, 林, 南(無)으로 적고 ̣를 앞에 붙여서 한 옥타브가 높은 것을 표시했으며(潢, 汰, 沕, 淋, 滿(無) 겹삼수변(̣̣)이 붙었으면 두 옥타브 위를 말하는 것이고 人이 붙었으면 한 옥타브 아래의 소리이다.(儻, 伋, 仲, 淋, 備(儻) 허나 이 井間譜는 宮中에서 주로 使用하던 雅樂에서 쓰여졌고 民俗樂에서는 주로 口傳이나 實習에 의해 技能의 傳授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必要한 約束을 한 音譜나 文字로 쓰여졌으며 더욱 現場에서 消滅되고 創出되는 俗謠에서는 樂譜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다. 俗謠 그 自體가 現場에서 불리워지고 現場에서 직접 불려졌으며 나름대로의 技能에 의한 表現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俗謠를 上記의 五線譜에 表記할 경우 미분음이 대부분인 俗謠에서는 洋樂的인 表記法으로는 不可能하기 때문에 편의에 의한 表記로 장식음을 적게 되며 그 부호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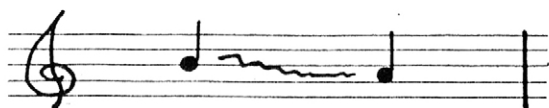
홀름소리 ~ 어느 음에서 정해진 아래음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는 소리



미는소리 ~ 아래음에서 윗음까지 음을 밀어 올리는 소리



떠는소리(요성음) ~ 음을 잘게 떨어내는 소리



떨어홀림소리 ~ 음을 윗음에서 아래음까지 떨면서 홀려내리는 소리



굼게떠는소리, 치는소리 ~ 음을 굼게 떨어서 내는 소리와 그 음만
특히 세게 쿵 치는 소리



윗꾸밈음 ~ 제음, 한음위, 제음을 빠르게 내는 소리



아래꾸밈음 ~ 제음, 한음아래, 제음을 빠르게 꾸며내는 소리

上記와 같은 꾸밈음이 있으나 이외에도 많은 장식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俗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식음을 소개한 것이며 이러한 것은 採錄者가 편의상 表記하고 說明하는 形態를 취하

게 되며 이러한 說明이 붙어있지 않은 五線譜의 表記나 洋樂的인 音階로써 樂譜化 한다는 것은 근사치에 가까운 俗謠조차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렇듯 上記의 樂譜를 表記하는 方法에 의해서 나타는 瑞山地方의 作業謠는 農謠와 魚謠, 地硬謠로 나타나는데 農謠는 모심기와 논매기 魚謠는 고기잡는소리 뱃소리로 區分된다.

◎ 農 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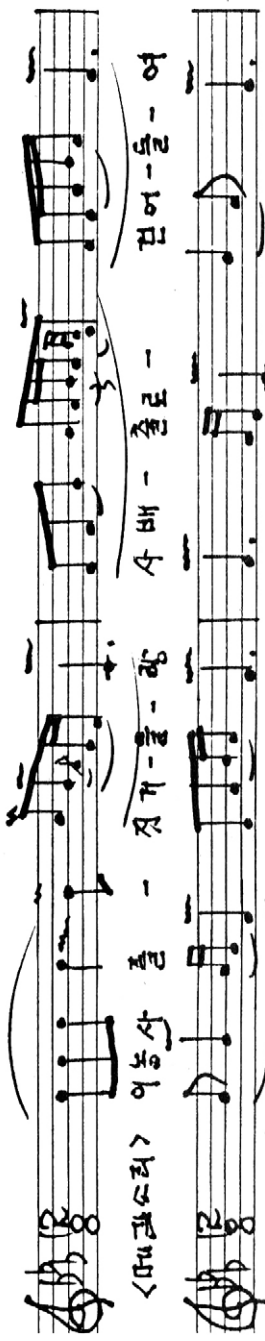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農事를 지을때 作業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를 總稱하여 〈農謠〉라 부르는데 이 農謠는 논농사와 밭농사로 크게 分類할 수 있다. 이 農謠는 크게 나누면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로 區分되고 논농사는 모심기, 김매기(초벌매기, 두벌매기, 세벌매기), 모찌기, 갈래질소리, 타작요 등으로 細分된다.

地方에 散在해 地域的 特性과 技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特異하게 나타나는 俗謠 中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던 것이 이 俗謠이며 그 辭說 또한 多樣한데 辭說의 경우에는 特定한 규제가 없이 歌唱者가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 부르고 있어서 多樣한 表現을 한다. 이 農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瑞山地方이 海岸에 接해 있는 聚落이 많으면서도 農耕地가 많아서 農業을 主業으로 하기 때문이다. 農謠는 地理的인 條件에 따라서 特異하게 나타나는데 山間地方과 平野地方이 各己 그 唱法이나 構成에 있어 다르다. 平野地帶에서는 農土가 넓어 많은 사람이 作業을 하기 때문에 先, 後 소리의 區分이 있는데 비해서 山間에서는 대개 天水畚으로 農地의 面積이 좁아 한사람이 부르다가 다음 사람이 이어부르는 이어부르기(連曲)의 形式을 취하고 있다. 瑞山地方의 農謠는 忠淸道에 있으면서도 京畿道의 農謠와 同一하게 나타는데 이는 뱃길에서 地域間的 노래가 交流된 것으로 推定된다.

〈모심기노래 1〉

♩.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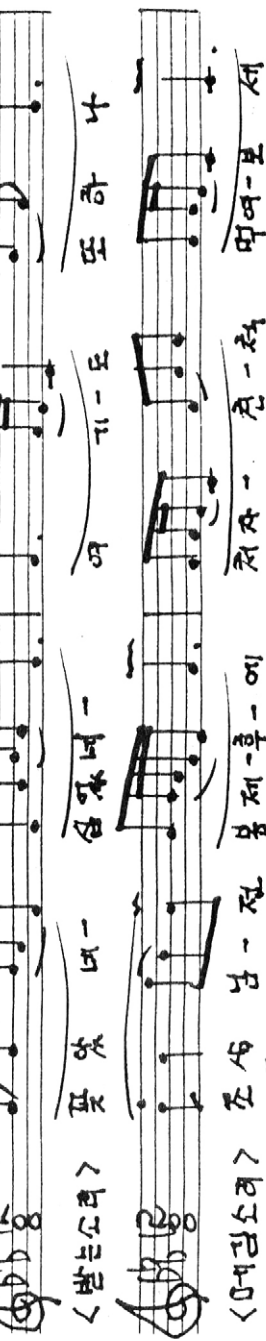
<메리소리> 꽃 앓 네 - 심 앓 네 - 여 기 - 도 또 하 나
 <밝은소리> 꽃 앓 네 - 심 앓 네 - 여 기 - 도 또 하 나
 <메리소리> 이 눈 에 모 를 심 거 - 들 - 땅 살 배 출 - 하 가 소 원 - 없 앓
 <밝은소리> 꽃 앓 네 - 심 앓 네 - 여 기 - 도 또 하 나
 <메리소리> 여 보 시 고 동 부 내 - 네 우 리 가 - 함 일 농 사 로 구 나
 <밝은소리> 꽃 앓 네 - 심 앓 네 - 여 기 - 도 또 하 나



 <발는소리> 어늬사 줄 - 지가-를-고 수배-줄로-여 편어-들-여 나



 <발는소리> 꽃 내- 삼았네 - 여 기-도 또 하 나



 <발는소리> 나-가-가-하-고 부도 남게-호도하-고 또 하 나



 <발는소리> 꽃 내- 삼았네 - 여 기-도 또 하 나

꽃앓네 심었네
 으‘하 여기에 또하나
 우리農夫 農事일이
 어제오늘 아니거든
 피땀흘려 지은농사
 모든사람 배불리며
 그도또한 공덕이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논빼미 얼른심고
 장고배미로 넘어가세

장고배미 끝나거든
 점심참이 될것이요
 마나님네 거동보소
 함지박을 머리에이고
 논둑길을 돌아오면
 없던힘이 절로나오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또하나
 어서빨리 이모심고
 귀가길을 재촉하세

이농사를 잘지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처자권속 잘먹이고
 중생구제 책임맡아
 우리농부 땀을내지
 이논매기 끝나며는
 우리농부 해야할일
 무슨일이 또있는가
 초벌매고 두벌매고
 세벌매기 끝난후에
 허리펴고 일어서면

황금들녘 보이나니
 흥에겨워 어깨춤이요
 오곡백화 결실있어
 배장단에 덩실춤에
 지금고생 하건마는
 이후낙에 참아보세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논빼미 끝났거던
 김서방네 모를심고

김서방네 끝났거던
 귀가길을 서둘러서
 토끼같은 자식놈들
 재롱이나 보십시오.
 우리농부 땀을내야
 이나라가 풍년들고
 우리농부 힘을써야
 대풍년이 올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농부
 마음아니 바쁘리까

♩. = 72.

〈모심기노래 3〉

<모심소리> 일 러 러 - 상 - 사 디 야 <밤은소리> 일 러 러 상 - 사 디 - 야
 농 사 과 고 - 하느것-은 - 일 러 러 상 - 사 디 - 야
 천 하 에 - 근본-인 데 일 러 러 상 - 사 디 - 야
 어 보 시 요 - 농부남-네 - 일 러 러 상 - 사 디 - 야
 농사-일-일-일 하-모 세 일 러 러 상 - 사 디 - 야
 일 러 러 상 - 사 디 - 야

이 노 사 가 나 없-사-나
 상-사 디-야
 려 려 려
 려 려 려

신-노-가 지었-은 나
 상-사 디-야
 려 려 려
 려 려 려

우 리 농-부 분을-밤-아
 상-사 디-야
 려 려 려
 려 려 려

농사-짓-기 소원-일 세
 상-사 디-야
 려 려 려
 려 려 려

미 농 사 파-나-
 상-사 디-야
 려 려 려
 려 려 려

우 리-나-각 나-당 네
 상-사 디-야
 려 려 려
 려 려 려

동사 파고 - 하 - 고 - 금 - 려 - 상 - 사 - 디 - 야
 나 - 라 - 구 - 제 - 이 - 제 - 라
 사 - 는 - 공 - 상 - 하 - 려 - 오 - 아
 신 - 비 - 아 - 음 - 은 - 다 - 오 - 아
 공 - 모 - 미 - 고 - 오 - 아
 수 - 바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이-꽃 주 인 안방-마-모
 일 려 려 송-사-아
 동-방-방 거-리-모-
 달-문-문 바-진-어-저-모
 이 고 자-고 나으실 때-
 원 할 말-은 영-영이 가-
 영-시-구-나 줄-줄-다.

〈모심기노래 4〉

♩. = 60.

〈매리소리〉 씨 - 헤 - 야 - 상 사 - 로 - 구 - 나 -

〈밭논소리〉 씨 - 헤 - 구 - 상 사 - 로 - 구 나

〈매리소리〉 씨 - 헤 - 노 - 나 - 이 내 밭 - 좀 - 들 어 보 - 소

〈밭논소리〉 씨 - 헤 - 노 - 나 - 상 사 - 로 - 구 나

〈매리소리〉 오 - 늘 - 날 도 아 - 아 - 가 - 아 - 나

〈밭논소리〉 씨 - 헤 - 구 - 상 사 - 로 - 구 나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variou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The notation is written in a cursive, handwritten style. The notes are mostly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some beamed together. There are several rests of varying durations. The dynamic markings include *mf* (mezzo-forte) and *f* (forte). The notation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with a treble clef. The overall style is that of a handwritten musical score.

저기가는 저아가씨
 거동을 보아라
 우리농부 땀흘리며
 농사일에 열심커늘
 저기가는 저처자는
 엉덩이가 저리크니
 이다음에 시집가면
 자식농사 잘짓겠네
 우리집안 마나님네
 죽순만 먹었는지
 뻗뻗하긴 참나무요

멋없기는 메주라니
 우리같은 머슴팔자
 어느세월 농사짓고
 어느세월 돈을벌어
 저런색씨 품어볼까
 아서라 세상만사
 인생이 덧없거던
 딴생각은 하지말고
 농사에다 힘을쏟아
 대풍년을 이룩한후
 태평가나 불러보세

〈모심기노래 5〉

♩. = 48 ~

<모심노래> 심 어 보 세
 심 어 보 세 <모심노래> 심 어 보 세
 심 어 보 세
 이 는 모 들 - 을 세
 이 는 모 들 - 을 세
 이 는 모 들 - 을 세
 이 는 모 들 - 을 세
 이 는 모 들 - 을 세
 이 는 모 들 - 을 세

장고배미로 넘어가세
여보시오 농사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꽃더라도
일도시칸 심어주고
한폭두폭 꽃더라도
사배출짜리로 꽃아주소

〈리매기노래 1〉

♩. = 68.

〈매곡소리〉를 들 - 려 송사 - 디야 <발판소리>
 해는 저 서 어두-운- 데
 우 리 앞 은 어 떤-가 고
 슬피 우는 저 불-여-귀
 어찌 그대도 슬피 - 어-나

The image shows a handwritten musical score on six staves. Each staff begin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bove each staff, there is a diagonal line, possibly indicating a section or a specific instrument.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slurs.

Staff 1: 독수 공방 이바-신-세

Staff 2: 처방 타고 함께유자 나

Staff 3: 땀을 흘려-온

Staff 4: 불쌍 타고 슬피-유 나

Staff 5: 하 지 만 - 그리-마-라

Staff 6: 지름-은 - 땀을-내 나

This musical score is for a piece titled 'Seosan's Old Song' (瑞山の 옛노래). It is written for a four-part vocal ensemble, with each part on a separate five-line staff. The notation is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featuring a treble clef with a sharp sign (F#) on the first line, indicating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D major or F# minor). The music is written in a single system, with each staff containing a melodic line and corresponding lyrics in Korean. The lyrics are: '나 - 오 - 리 - 고', '나 - 오 - 리 - 고', '나 - 오 - 리 - 고', and '나 - 오 - 리 - 고'.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slurs, and is marked with a diagonal line across the middle of the page.

처자권속 잘먹인후
우리임도 만나보면
어깨춤이 절로나니
그아니나 종을손가
여보시오 농부들아
세상살이 힘들거든

불여귀의 과거듣고
위안삼아 일들하세
오늘울음 고달거든
내일웃음 있다하니
피땀흘려 김을매서
사배출을 하여보세

<리매기노래 2>

♩. =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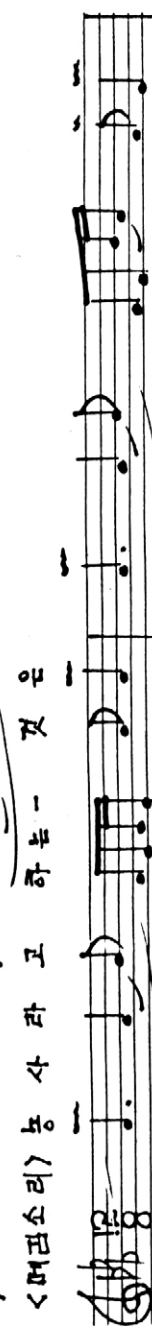
<메리소리>



<반노소리>



<메리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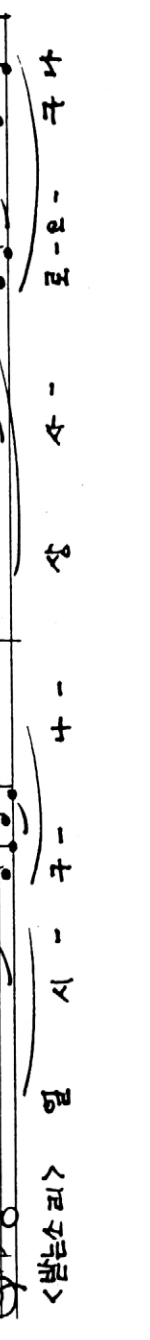
<반노소리>



<메리소리>



<반노소리>



<바다소리> 우 리 동복가- 새아- 할 일
 <바다소리> 부 사 - 구 - 나 - 상 사 - 구 나
 <바다소리> 부 사 - 구 - 나 - 상 사 - 구 나
 <바다소리> 부 사 - 구 - 나 - 상 사 - 구 나
 <바다소리> 부 사 - 구 - 나 - 상 사 - 구 나
 <바다소리> 부 사 - 구 - 나 - 상 사 - 구 나

<바람소리> 마 누 라 - 웃 흥 - 주 고
 <바람소리> 시 - 구 - 나 - 상 사 - 로 - 오 - 구 나
 <바람소리> 아 들 너 서 흥 흥 - 오 -
 <바람소리> 올 시 - 구 - 나 - 상 사 - 로 - 오 - 구 나
 <바람소리> 바 나 땀 내 흥 흥 - 오 - 고
 <바람소리> 올 시 - 구 - 나 - 상 사 - 로 - 오 - 구 나

저주모년 거동보소
엉덩이가 저리크니
주모신세 못면하나
여보시오 벗님네야
우리신세 한탄말고
일심으로 김을매서

사배출을 하시거든
뚝단배를 하나사서
서해바다 배 띄우고
고기잡이나 하여보세
그런말씀 하지마오
농사라고 하는것이
세상간에 근본이니

어찌하여 배 띄울까
문전옥답 잘지어서
마누라의 옷해주고
우리아들 학비주고
막내딸년 여워우고
주막으로 내달아서
술한잔에 취해보세

〈3 2 1 1 0 0〉

$$1.09 =$$
[illegible]

<배관소리> 우 리 농 복 가 - 하 아 - 할 - 일
 <북소리> 잘 하 오 잘 도 하 오 -
 <북소리> 잘 하 오 잘 도 하 오 -
 <배관소리> 이 농 사 를 - 다 지 어 서 -
 <북소리> 잘 하 오 잘 도 하 오 -
 <북소리> 잘 하 오 잘 도 하 오 -
 <배관소리> 주 소 땅 - 서 - 다 지 - 어 - 고
 <북소리> 잘 하 오 잘 도 하 오 -

도 사 -
 뽕 이 가
 뽕 이 가
 사 바
 뽕 이 가
 뽕 이 가
 뽕 이 가
 뽕 이 가

더 외 -
 잘 도 -
 잘 도 -
 이 사 거 들 -
 잘 도 -
 잘 도 -
 잘 도 -
 잘 도 -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ong, featuring ten staves of music with lyrics in Korean and musical notation.

The lyrics are:

1.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2.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3.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4.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5.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6.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7.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8.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9.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10. 天 地 萬 物 皆 有 生 靈 之 靈 氣 也

The musical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with the lyrics written below the staves.

우리농부 열심히면
 급식공덕 한다는데
 나라님께 기별하여
 충성됨을 알려보세
 저기가는 저처녀야
 말한마디 물어보자
 이팔청춘 되었거든
 길나들이 하지말고
 열두대문 꼭꼭닫고

자수공부 하였다가
 이농사를 잘짓거든
 며늘아기 하여보자
 일락서산 해는지고
 월른동령 달이뜬다
 여보시오 농부님들
 어서빨리 김들매고
 호미놓고 지게매고
 귀가길을 서두르세

<리메기노래 4>

♩. = 60.

<메리소리> 잘 하오 잘도 하오 메리호-산이가- 잘도-하오
 <밤소리> 잘 하오 잘도 하오 메리호-산이가 잘도-하오
 <메리소리> 여보 사-이- 뎡-뎡- 들어보소
 <밤소리> 잘 하오 잘도 하오 메리호-산이가 잘도-하오
 <메리소리> 오하오 하-이- 메리호-산이가
 <밤소리> 잘 하오 잘도 하오 메리호-산이가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ong, featuring a melody line and a guitar accompaniment.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and a 4/4 time signature. The guitar part is written on a six-line staff, using a combination of chords and single notes.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are placed below the melody line.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each containing four measures. The first system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the second system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final cadence. The lyrics are: "가게 드려 주시라, 가게 드려 주시라, 가게 드려 주시라, 가게 드려 주시라".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ten staves, featuring Korean lyrics and musical symbols. The lyrics are:
 1. <한글>
 2. <한글>
 3. <한글>
 4. <한글>
 5. <한글>
 6. <한글>
 7. <한글>
 8. <한글>
 9. <한글>
 10. <한글>

〈작은김매기 1〉

♩. = 80.

<작은김매기> 아 - 카 - 아, 아 - 카 - 아, 아 - 카 - 아, 아 - 카 - 아, 아 - 카 - 아, 아 - 카 - 아.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作業謠' (Work Song) on seven staves.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Korean lyrics. The lyrics are:

1.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2.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3.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4.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5.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6.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7.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10-12-10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Soyang's Old Song" (瑞山の 옛노래). The score consists of six staves, each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notation is a mix of standard musical notes and Korean Hanja characters. The first staff has a double bar line at the beginning. The second staff has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The third staff has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The fourth staff has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The fifth staff has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The sixth staff has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Staff 1:
 Notes: G4, A4, B4, C5, B4, A4, G4, F#4, E4, D4, C4, B3, A3, G3, F#3, E3, D3, C3, B2, A2, G2, F#2, E2, D2, C2, B1, A1, G1, F#1, E1, D1, C1, B0, A0, G0, F#0, E0, D0, C0, B-1, A-1, G-1, F#-1, E-1, D-1, C-1, B-2, A-2, G-2, F#-2, E-2, D-2, C-2, B-3, A-3, G-3, F#-3, E-3, D-3, C-3, B-4, A-4, G-4, F#-4, E-4, D-4, C-4, B-5, A-5, G-5, F#-5, E-5, D-5, C-5, B-6, A-6, G-6, F#-6, E-6, D-6, C-6, B-7, A-7, G-7, F#-7, E-7, D-7, C-7, B-8, A-8, G-8, F#-8, E-8, D-8, C-8, B-9, A-9, G-9, F#-9, E-9, D-9, C-9, B-10, A-10, G-10, F#-10, E-10, D-10, C-10, B-11, A-11, G-11, F#-11, E-11, D-11, C-11, B-12, A-12, G-12, F#-12, E-12, D-12, C-12, B-13, A-13, G-13, F#-13, E-13, D-13, C-13, B-14, A-14, G-14, F#-14, E-14, D-14, C-14, B-15, A-15, G-15, F#-15, E-15, D-15, C-15, B-16, A-16, G-16, F#-16, E-16, D-16, C-16, B-17, A-17, G-17, F#-17, E-17, D-17, C-17, B-18, A-18, G-18, F#-18, E-18, D-18, C-18, B-19, A-19, G-19, F#-19, E-19, D-19, C-19, B-20, A-20, G-20, F#-20, E-20, D-20, C-20, B-21, A-21, G-21, F#-21, E-21, D-21, C-21, B-22, A-22, G-22, F#-22, E-22, D-22, C-22, B-23, A-23, G-23, F#-23, E-23, D-23, C-23, B-24, A-24, G-24, F#-24, E-24, D-24, C-24, B-25, A-25, G-25, F#-25, E-25, D-25, C-25, B-26, A-26, G-26, F#-26, E-26, D-26, C-26, B-27, A-27, G-27, F#-27, E-27, D-27, C-27, B-28, A-28, G-28, F#-28, E-28, D-28, C-28, B-29, A-29, G-29, F#-29, E-29, D-29, C-29, B-30, A-30, G-30, F#-30, E-30, D-30, C-30, B-31, A-31, G-31, F#-31, E-31, D-31, C-31, B-32, A-32, G-32, F#-32, E-32, D-32, C-32, B-33, A-33, G-33, F#-33, E-33, D-33, C-33, B-34, A-34, G-34, F#-34, E-34, D-34, C-34, B-35, A-35, G-35, F#-35, E-35, D-35, C-35, B-36, A-36, G-36, F#-36, E-36, D-36, C-36, B-37, A-37, G-37, F#-37, E-37, D-37, C-37, B-38, A-38, G-38, F#-38, E-38, D-38, C-38, B-39, A-39, G-39, F#-39, E-39, D-39, C-39, B-40, A-40, G-40, F#-40, E-40, D-40, C-40, B-41, A-41, G-41, F#-41, E-41, D-41, C-41, B-42, A-42, G-42, F#-42, E-42, D-42, C-42, B-43, A-43, G-43, F#-43, E-43, D-43, C-43, B-44, A-44, G-44, F#-44, E-44, D-44, C-44, B-45, A-45, G-45, F#-45, E-45, D-45, C-45, B-46, A-46, G-46, F#-46, E-46, D-46, C-46, B-47, A-47, G-47, F#-47, E-47, D-47, C-47, B-48, A-48, G-48, F#-48, E-48, D-48, C-48, B-49, A-49, G-49, F#-49, E-49, D-49, C-49, B-50, A-50, G-50, F#-50, E-50, D-50, C-50, B-51, A-51, G-51, F#-51, E-51, D-51, C-51, B-52, A-52, G-52, F#-52, E-52, D-52, C-52, B-53, A-53, G-53, F#-53, E-53, D-53, C-53, B-54, A-54, G-54, F#-54, E-54, D-54, C-54, B-55, A-55, G-55, F#-55, E-55, D-55, C-55, B-56, A-56, G-56, F#-56, E-56, D-56, C-56, B-57, A-57, G-57, F#-57, E-57, D-57, C-57, B-58, A-58, G-58, F#-58, E-58, D-58, C-58, B-59, A-59, G-59, F#-59, E-59, D-59, C-59, B-60, A-60, G-60, F#-60, E-60, D-60, C-60, B-61, A-61, G-61, F#-61, E-61, D-61, C-61, B-62, A-62, G-62, F#-62, E-62, D-62, C-62, B-63, A-63, G-63, F#-63, E-63, D-63, C-63, B-64, A-64, G-64, F#-64, E-64, D-64, C-64, B-65, A-65, G-65, F#-65, E-65, D-65, C-65, B-66, A-66, G-66, F#-66, E-66, D-66, C-66, B-67, A-67, G-67, F#-67, E-67, D-67, C-67, B-68, A-68, G-68, F#-68, E-68, D-68, C-68, B-69, A-69, G-69, F#-69, E-69, D-69, C-69, B-70, A-70, G-70, F#-70, E-70, D-70, C-70, B-71, A-71, G-71, F#-71, E-71, D-71, C-71, B-72, A-72, G-72, F#-72, E-72, D-72, C-72, B-73, A-73, G-73, F#-73, E-73, D-73, C-73, B-74, A-74, G-74, F#-74, E-74, D-74, C-74, B-75, A-75, G-75, F#-75, E-75, D-75, C-75, B-76, A-76, G-76, F#-76, E-76, D-76, C-76, B-77, A-77, G-77, F#-77, E-77, D-77, C-77, B-78, A-78, G-78, F#-78, E-78, D-78, C-78, B-79, A-79, G-79, F#-79, E-79, D-79, C-79, B-80, A-80, G-80, F#-80, E-80, D-80, C-80, B-81, A-81, G-81, F#-81, E-81, D-81, C-81, B-82, A-82, G-82, F#-82, E-82, D-82, C-82, B-83, A-83, G-83, F#-83, E-83, D-83, C-83, B-84, A-84, G-84, F#-84, E-84, D-84, C-84, B-85, A-85, G-85, F#-85, E-85, D-85, C-85, B-86, A-86, G-86, F#-86, E-86, D-86, C-86, B-87, A-87, G-87, F#-87, E-87, D-87, C-87, B-88, A-88, G-88, F#-88, E-88, D-88, C-88, B-89, A-89, G-89, F#-89, E-89, D-89, C-89, B-90, A-90, G-90, F#-90, E-90, D-90, C-90, B-91, A-91, G-91, F#-91, E-91, D-91, C-91, B-92, A-92, G-92, F#-92, E-92, D-92, C-92, B-93, A-93, G-93, F#-93, E-93, D-93, C-93, B-94, A-94, G-94, F#-94, E-94, D-94, C-94, B-95, A-95, G-95, F#-95, E-95, D-95, C-95, B-96, A-96, G-96, F#-96, E-96, D-96, C-96, B-97, A-97, G-97, F#-97, E-97, D-97, C-97, B-98, A-98, G-98, F#-98, E-98, D-98, C-98, B-99, A-99, G-99, F#-99, E-99, D-99, C-99, B-100, A-100, G-100, F#-100, E-100, D-100, C-100, B-101, A-101, G-101, F#-101, E-101, D-101, C-101, B-102, A-102, G-102, F#-102, E-102, D-102, C-102, B-103, A-103, G-103, F#-103, E-103, D-103, C-103, B-104, A-104, G-104, F#-104, E-104, D-104, C-104, B-105, A-105, G-105, F#-105, E-105, D-105, C-105, B-106, A-106, G-106, F#-106, E-106, D-106, C-106, B-107, A-107, G-107, F#-107, E-107, D-107, C-107, B-108, A-108, G-108, F#-108, E-108, D-108, C-108, B-109, A-109, G-109, F#-109, E-109, D-109, C-109, B-110, A-110, G-110, F#-110, E-110, D-110, C-110, B-111, A-111, G-111, F#-111, E-111, D-111, C-111, B-112, A-112, G-112, F#-112, E-112, D-112, C-112, B-113, A-113, G-113, F#-113, E-113, D-113, C-113, B-114, A-114, G-114, F#-114, E-114, D-114, C-114, B-115, A-115, G-115, F#-115, E-115, D-115, C-115, B-116, A-116, G-116, F#-116, E-116, D-116, C-116, B-117, A-117, G-117, F#-117, E-117, D-117, C-117, B-118, A-118, G-118, F#-118, E-118, D-118, C-118, B-119, A-119, G-119, F#-119, E-119, D-119, C-119, B-120, A-120, G-120, F#-120, E-120, D-120, C-120, B-121, A-121, G-121, F#-121, E-121, D-121, C-121, B-122, A-122, G-122, F#-122, E-122, D-122, C-122, B-123, A-123, G-123, F#-123, E-123, D-123, C-123, B-124, A-124, G-124, F#-124, E-124, D-124, C-124, B-125, A-125, G-125, F#-125, E-125, D-125, C-125, B-126, A-126, G-126, F#-126, E-126, D-126, C-126, B-127, A-127, G-127, F#-127, E-127, D-127, C-127, B-128, A-128, G-128, F#-128, E-128, D-128, C-128, B-129, A-129, G-129, F#-129, E-129, D-129, C-129, B-130, A-130, G-130, F#-130, E-130, D-130, C-130, B-131, A-131, G-131, F#-131, E-131, D-131, C-131, B-132, A-132, G-132, F#-132, E-132, D-132, C-132, B-133, A-133, G-133, F#-133, E-133, D-133, C-133, B-134, A-134, G-134, F#-134, E-134, D-134, C-134, B-135, A-135, G-135, F#-135, E-135, D-135, C-135, B-136, A-136, G-136, F#-136, E-136, D-136, C-136, B-137, A-137, G-137, F#-137, E-137, D-137, C-137, B-138, A-138, G-138, F#-138, E-138, D-138, C-138, B-139, A-139, G-139, F#-139, E-139, D-139, C-139, B-140, A-140, G-140, F#-140, E-140, D-140, C-140, B-141, A-141, G-141, F#-141, E-141, D-141, C-141, B-142, A-142, G-142, F#-142, E-142, D-142, C-142, B-143, A-143, G-143, F#-143, E-143, D-143, C-143, B-144, A-144, G-144, F#-144, E-144, D-144, C-144, B-145, A-145, G-145, F#-145, E-145, D-145, C-145, B-146, A-146, G-146, F#-146, E-146, D-146, C-146, B-147, A-147, G-147, F#-147, E-147, D-147, C-147, B-148, A-148, G-148, F#-148, E-148, D-148, C-148, B-149, A-149, G-149, F#-149, E-149, D-149, C-149, B-150, A-150, G-150, F#-150, E-150, D-150, C-150, B-151, A-151, G-151, F#-151, E-151, D-151, C-151, B-152, A-152, G-152, F#-152, E-152, D-152, C-152, B-153, A-153, G-153, F#-153, E-153, D-153, C-153, B-154, A-154, G-154, F#-154, E-154, D-154, C-154, B-155, A-155, G-155, F#-155, E-155, D-155, C-155, B-156, A-156, G-156, F#-156, E-156, D-156, C-156, B-157, A-157, G-157, F#-157, E-157, D-157, C-157, B-158, A-158, G-158, F#-158, E-158, D-158, C-158, B-159, A-159, G-159, F#-159, E-159, D-159, C-159, B-160, A-160, G-160, F#-160, E-160, D-160, C-160, B-161, A-161, G-161, F#-161, E-161, D-161, C-161, B-162, A-162, G-162, F#-162, E-162, D-162, C-162, B-163, A-163, G-163, F#-163, E-163, D-163, C-163, B-164, A-164, G-164, F#-164, E-164, D-164, C-164, B-165, A-165, G-165, F#-165, E-165, D-165, C-165, B-166, A-166, G-166, F#-166, E-166, D-166, C-166, B-167, A-167, G-167, F#-167, E-167, D-167, C-167, B-168, A-168, G-168, F#-168, E-168, D-168, C-168, B-169, A-169, G-169, F#-169, E-169, D-169, C-169, B-170, A-170, G-170, F#-170, E-170, D-170, C-170, B-171, A-171, G-171, F#-171, E-171, D-171, C-171, B-172, A-172, G-172, F#-172, E-172, D-172, C-172, B-173, A-173, G-173, F#-173, E-173, D-173, C-173, B-174, A-174, G-174, F#-174, E-174, D-174, C-174, B-175, A-175, G-175, F#-175, E-175, D-175, C-175, B-176, A-176, G-176, F#-176, E-176, D-176, C-176, B-177, A-177, G-177, F#-177, E-177, D-177, C-177, B-178, A-178, G-178, F#-178, E-178, D-178, C-178, B-179, A-179, G-179, F#-179, E-179, D-179, C-179, B-180, A-180, G-180, F#-180, E-180, D-180, C-180, B-181, A-181, G-181, F#-181, E-181, D-181, C-181, B-182, A-182, G-182, F#-182, E-182, D-182, C-182, B-183, A-183, G-183, F#-183, E-183, D-183, C-183, B-184, A-184, G-184, F#-184, E-184, D-184, C-184, B-185, A-185, G-185, F#-185, E-185, D-185, C-185, B-186, A-186, G-186, F#-186, E-186, D-186, C-186, B-187, A-187, G-187, F#-187, E-187, D-187, C-187, B-188, A-188, G-188, F#-188, E-188, D-188, C-188, B-189, A-189, G-189, F#-189, E-189, D-189, C-189, B-190, A-190, G-190, F#-190, E-190, D-190, C-190, B-191, A-191, G-191, F#-191, E-191, D-191, C-191, B-192, A-192, G-192, F#-192, E-192, D-192, C-192, B-193, A-193, G-193, F#-193, E-193, D-193, C-193, B-194, A-194, G-194, F#-194, E-194, D-194, C-194, B-195, A-195, G-195, F#-195, E-195, D-195, C-195, B-196, A-196, G-196, F#-196, E-196, D-196, C-196, B-197, A-197, G-197, F#-197, E-197, D-197, C-197, B-198, A-198, G-198, F#-198, E-198, D-198, C-198, B-199, A-199, G-199, F#-199, E-199, D-199, C-199, B-200, A-200, G-200, F#-200, E-200, D-200, C-200, B-201, A-201, G-201, F#-201, E-201, D-201, C-201, B-202, A-202, G-202, F#-202, E-202, D-202, C-202, B-203, A-203, G-203, F#-203, E-203, D-203, C-203, B-204, A-204, G-204, F#-204, E-204, D-204, C-204, B-205, A-205, G-205, F#-205, E-205, D-205, C-205, B-206, A-206, G-206, F#-206, E-206, D-206, C-206, B-207, A-207, G-207, F#-207, E-207, D-207, C-207, B-208, A-208, G-208, F#-208, E-208, D-208, C-208, B-209, A-209, G-209, F#-209, E-209, D-209, C-209, B-210, A-210, G-210, F#-210, E-210, D-210, C-210, B-211, A-211, G-211, F#-211, E-211, D-211, C-211, B-212, A-212, G-212, F#-212, E-212, D-212, C-212, B-213, A-213, G-213, F#-213, E-213, D-213, C-213, B-214, A-214, G-214, F#-214, E-214, D-214, C-214, B-215, A-215, G-215, F#-215, E-215, D-215, C-215, B-216, A-216, G-216, F#-216, E-216, D-216, C-216, B-217, A-217, G-217, F#-217, E-217, D-217, C-217, B-218, A-218, G-218, F#-218, E-218, D-218, C-218, B-219, A-219, G-219, F#-219, E-219, D-219, C-219, B-220, A-220, G-220, F#-220, E-220, D-220, C-220, B-221, A-221, G-221, F#-221, E-221, D-221, C-221, B-222, A-222, G-222, F#-222, E-222, D-222, C-222, B-223, A-223, G-223, F#-223, E-223, D-223, C-223, B-224, A-224, G-224, F#-224, E-224, D-224, C-224, B-225, A-225, G-225, F#-225, E-225, D-225, C-225, B-226, A-226, G-226, F#-226, E-226, D-226, C-226, B-227, A-227, G-227, F#-227, E-227, D-227, C-227, B-228, A-228, G-228, F#-228, E-228, D-228, C-228, B-229, A-229, G-229, F#-229, E-229, D-229, C-229, B-230, A-230, G-230, F#-230, E-230, D-230, C-230, B-231, A-231, G-231, F#-231, E-231, D-231, C-231, B-232, A-232, G-232, F#-232, E-232, D-232, C-232, B-233, A-233, G-233, F#-233, E-233, D-233, C-233, B-234, A-234, G-234, F#-234, E-234, D-234, C-234, B-235, A-235, G-235, F#-235, E-235, D-235, C-235, B-236, A-236, G-236, F#-236, E-236, D-236, C-236, B-237, A-237, G-237, F#-237, E-237, D-237, C-237, B-238, A-238, G-238, F#-238, E-238, D-238, C-238, B-239, A-239, G-239, F#-239, E-239, D-239, C-239, B-240, A-240, G-240, F#-240, E-240, D-240, C-240, B-241, A-241, G-241, F#-241, E-241, D-241, C-241, B-242, A-242, G-242, F#-242, E-242, D-242, C-242, B-243, A-243, G-243, F#-243, E-243, D-243, C-243, B-244, A-244, G-244, F#-244, E-244, D-244, C-244, B-245, A-245, G-245, F#-245, E-245, D-245, C-245, B-246, A-246, G-246, F#-246, E-246, D-246, C-246, B-247, A-247, G-247, F#-247, E-247, D-247, C-247, B-248, A-248, G-248, F#-248, E-248, D-248, C-248, B-249, A-249, G-249, F#-249, E-249, D-249, C-249, B-250, A-250, G-250, F#-250, E-250, D-250, C-250, B-251, A-251, G-251, F#-251, E-251, D-251, C-251, B-252, A-252, G-252, F#-252, E-252, D-252, C-252, B-253, A-253, G-253, F#-253, E-253, D-253, C-253, B-254, A-254, G-254, F#-254, E-254, D-254, C-254, B-255, A-255, G-255, F#-255, E-255, D-255, C-255, B-256, A-256, G-256, F#-256, E-256, D-256, C-256, B-257, A-257, G-257, F#-257, E-257, D-257, C-257, B-258, A-258, G-258, F#-258, E-258, D-258, C-258, B-259, A-259, G-259, F#-259, E-259, D-259, C-259, B-260, A-260, G-260, F#-260, E-260, D-260, C-260, B-261, A-261, G-261, F#-261, E-261, D-261, C-261, B-262, A-262, G-262, F#-262, E-262, D-262, C-262, B-263, A-263, G-263, F#-263, E-263, D-263, C-263, B-264, A-264, G-264, F#-264, E-264, D-264, C-264, B-265, A-265, G-265, F#-265, E-265, D-265, C-265, B-266, A-266, G-266, F#-266, E-266, D-266, C-266, B-267, A-267, G-267, F#-267, E-267, D-267, C-267, B-268, A-268, G-268, F#-268, E-268, D-268, C-268, B-269, A-269, G-269, F#-269, E-269, D-269, C-269, B-270, A-270, G-270, F#-270, E-270, D-270, C-270, B-271, A-271, G-271, F#-271, E-271, D-271, C-271, B-272, A-272, G-272, F#-272, E-272, D-272, C-272, B-273, A-273, G-273, F#-273, E-273, D-273, C-273, B-274, A-274, G-274, F#-274, E-274, D-274, C-274, B-275, A-275, G-275, F#-275, E-275, D-275, C-275, B-276, A-276, G-276, F#-276, E-276, D-276, C-276, B-277, A-277, G-277, F#-277, E-277, D-277, C-277, B-278, A-278, G-278, F#-278, E-278, D-278, C-278, B-279, A-279, G-279, F#-279, E-279, D-279, C-279, B-280, A-280, G-280, F#-280, E-280, D-280, C-280, B-281, A-281, G-281, F#-281, E-281, D-281, C-281, B-282, A-282, G-282, F#-282, E-282, D-282, C-282, B-283, A-283, G-283, F#-283, E-283, D-283, C-283, B-284, A-284, G-284, F#-284, E-284, D-284, C-284, B-285, A-285, G-285, F#-285, E-285, D-285, C-285, B-286, A-286, G-286, F#-286, E-286, D-286, C-286, B-287, A-287, G-287, F#-287, E-287, D-287, C-287, B-288, A-288, G-288, F#-288, E-288, D-288, C-288, B-289, A-289, G-289, F#-289, E-289, D-289, C-289, B-290, A-290, G-290, F#-290, E-290, D-290, C-290, B-291, A-291, G-291, F#-291, E-291, D-291, C-291, B-292, A-292, G-292, F#-292, E-292, D-292, C-292, B-293, A-293, G-293, F#-293, E-293, D-293, C-293, B-294, A-294, G-294, F#-294, E-294, D-294, C-294, B-295

〈작은리매기 2〉

♩. = 88.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작은리매기 2" (Small Field Magpie 2). The score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in G major (one sharp) and 2/4 time. The melody is written in a treble clef.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slurs, and dynamic markings. The lyrics are: <작은리매기> (Small Field Magpie), 작은리매기 (Small Field Magpie), 작은리매기 (Small Field Magpie), 작은리매기 (Small Field Magpie), 작은리매기 (Small Field Magpie), 작은리매기 (Small Field Magpie).

이렇듯 나타나고 있는 瑞山地方의 農謠의 경우 忠淸南道의 어느 地方보다도 辭說이나 旋律의 形態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地域에서는 最近까지도 農作을 함에 있어서 農謠를 使用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天安이나 溫陽, 大田, 公州 等에 비해서 現代 文明의 導入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調直된 前記 都市의 경우에는 旋律은 알고 있으나 辭說을 記憶하지 못하고 辭說은 口述할 수 있으나 歌唱을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瑞山地方에서는 辭說의 多樣함과 旋律의 正確한 口誦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 地域은 海岸에 聚落의 形成이 많아 陸路의 交通보다는 뱃길을 利用하여 京畿道의 海岸地方과 交流했으며 그러한 地理的 特性은 이 곳의 農謠를 보아도 京畿道의 旋律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瑞山地方의 農謠와 比較하기 위한 方法으로 編者가 他地方에서 採錄한 農謠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therefore = 6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처자식들 양식일랑
 보릿대로 하지
 에헤야 산이가 잘도하네
 우에있기는 동기간이요
 화목하기는 일가친척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장일만 훨훨 영화로다
 풍년이 들어야 공출하지
 흉년이 들면 먹을게 없네
 흉년이 드는것도 농부의 손이요
 풍년이 드는것도 우리네 복이라
 여-농사법은 그 누가지었나
 복희 신농씨가 지어냈지
 저기가는 저년은 할일도 없구나
 농부들 되땀 나는 줄도
 모르고 가네
 저기가는 행인은
 무얼먹고 사나
 농사가 무엇인지 모르나베
 닳마지기 논이 서마지기 남으니
 논두렁에 술이오니 먹고매세
 술가져 오는 아낙네들
 걸음쫘 보소
 아장아장 예쁘게 걸어오네
 여보시오 농부님들
 말 들어보소
 호미를 들고나와 먹고 매세

〈한밭의 옛노래에서 발췌〉

《天安地方》

$$\sim 99. = 1$$


여보시오 농부들아
 이내 말을 들어나 보아라
 이 논일랑 어서매고
 저 논으로 올라들 가세
 해가지면 어두우니
 어찌하여 논맬건가
 어서빨리 이는 매고
 저논으로 올라들가세

(천안의 옛노래에서 발췌)

〈錦山地方〉

$$\sim 55 \sim$$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ong, featuring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The score is written on ten staves, with lyrics in Korean and English. The lyrics are: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The lyrics are written in a stylized, handwritten fon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bar lines. The lyrics are: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가장소라>
 The lyrics are written in a stylized, handwritten fon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bar lines.

에헤이 오하 오호
놀구나가세 놀구나 가세
오늘 날에 놀구나 가세
오 오호오 호오

에헤이 오하 오호
무정하신 우리님 나를 두고 간다면
십리도 목가서 발병난다
오 오호오 호오

(1987. 7 錦山에서 採錄)

〈洪城地方〉

$$-0.9 = 7$$


여보시오 농부들아

이내말을 들어보소

이농사로 말하자면

신농씨의 유업이라

(받음소리)

우리같은 농부들은

오늘하루 소일말고

이농사업 본받아서

대풍년을 이룩하세

(받음소리)

우리농부 해야할일

농사밖에 더있겠소

오늘하루 저물거든

내일다시 지어보세

(받음소리)

〈安城地方〉

$$I = 60.$$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page with five staves.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other musical symbols. Below the staves, there are several lines of text in Devanagari script, which appear to be lyrics or a title.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우리 농부가 생전에 할일
 농사 아니면 어디있나
 우리 농부들 잘들어보게
 농사 싫으면 실언이지
 오호 오호어야
 에루화 슬슬 둘러라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한말을 들어보세
 오늘 하루도 저무는데
 내일 또 하루 어디서 노나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는데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성달이 반달이지

서산에 해는 뚝 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이 밝았구나
 농도소리가 잦아드니
 농도소리를 후려주세
 얼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오호 오호어야 에루화 슬슬 둘러라
 내일 다시 만나거든
 어디 집 논을 매어나 볼까
 우리 농부들 농사밖에
 더 할 일이 어디에 있나

〈1987. 5. 安城에서 採錄〉

<慶州地方>

♩. = 54 ~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system, consisting of three staves.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lyrics in Korean. The lyrics are:
 <예리노래>
 <예리노래>
 <예리노래>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system, consisting of three staves.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lyrics in Korean. The lyrics are:
 <예리노래>
 <예리노래>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system, consisting of three staves.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lyrics in Korean. The lyrics are:
 <예리노래>
 <예리노래>
 <예리노래>

<예리노래>

이벼가 무슨벼냐
광주분원 양품벼요
여주이천 자채벼요
김제만경 사발벼요

이모를 심거들랑
삼배출만 건어주세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점심참이 되었으니
어서빨리 심어보세

오하 오허아야
이폭저폭 꽃을때도
정성을 가득들여
삼배출을 기대하세
점심참이 되기전에
어서심고 끝내보세

〈1986. 9. 慶州에서 採錄〉

앞의 比較에서도 나타나듯 瑞山地方의 農謠에서 나타나는 旋律은 忠南 일대와 京畿道の 여러地域(海道の 交通의 可能的 處)의 農謠와 共通點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面에서 볼때 瑞山地方에서 나타나는 農謠의 特徵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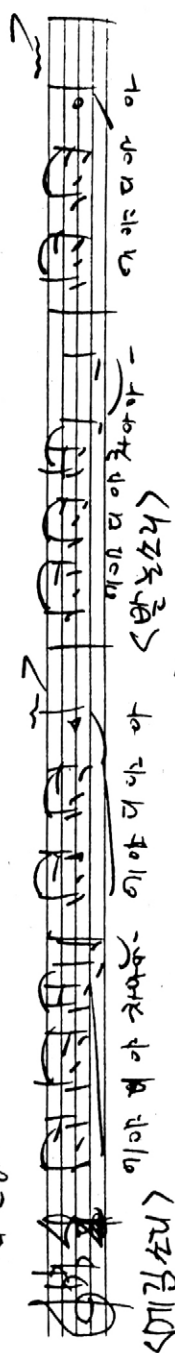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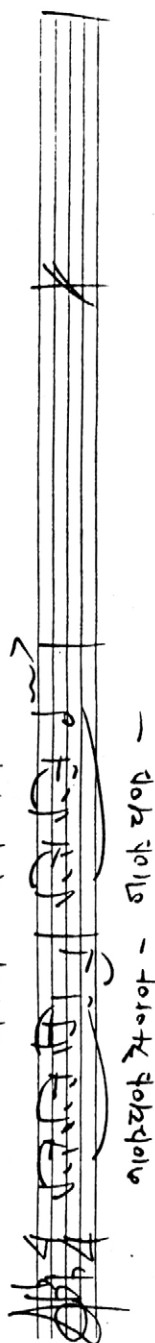
첫째: 陸路의 交通보다는 海路가 더 發達했던 地域으로써 忠清道の 地理的인 特徵이 나타나기 보다는 海岸地方(京畿, 全羅)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더 비중이 크다.

둘째: 忠清道の 位置가 中心部에 있어서 比較的 京畿, 全羅, 慶尙의 複合的인 形態를 나타나고 있으나 瑞山地方의 경우에는(內陸) 比較的 農謠를 비롯한 俗謠의 경우 忠清道の 地理的인 特徵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셋째: 交通이 원활하지 못했던 地理的인 여건 때문에 아직도 많은 俗謠가 있었으며 高齡者들도 旋律이나 辭說을 記憶하고 있어 地域이 旣 處에 비해 西歐文明의 影響이 弱했음을 알 수 있다.

◎ 魚 謠

魚謠는 그물후리는 소리, 배 젓는 소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요즈음에는 農謠나 其他 陸地에서의 作業謠와 마찬가지로 이 魚謠도 遠洋魚業이나 규모가 커진 배의 作業 등으로 인해 예전의 近海魚業이나 노를 젓는 때에 비해 急激히 쇠퇴되었다. 瑞山地方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魚謠의 歌唱을 의뢰했으나 거의가 記憶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화곡, 대산, 오지, 막동, 만리포, 안면, 안흥, 석포 등 西海岸과 인접한 聚落을 돌며 居住人에게 魚謠를 授錄하였으나 거의가 調査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물건는소리(배소리), 배치기, 시선배노래 등 共通的인(京畿道の 海岸地方와 同一하다) 旋律과 辭說이 나타나고 있어 魚謠는 近接海邊에서는 서로가 水路의 往來로 인해 共通的인(地域에 關係없이) 辭說이나 旋律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f
(리코를 리듬)

(배치기)

에헤디아 에헤디아

에헤야 에헤 에헤에야

(에헤야 에헤 에헤에야)

오늘도 만선을 실었구나

(에헤야 에헤 에헤에야)

연평바다에 배 띄웠구나

(에헤야 에헤 에헤에야)

연평바다에 배 띄웠구나

(에헤야 에헤 에헤에야)

연평바다에 돈도 띄웠구나

(에헤야 에헤 에헤에야)

아랫동네 윗동네

다 젓혀놓고

(에헤야 에헤 에헤에야)

가운데 동네에서

도장원 낳았구나

(에헤야 에헤 에헤에야)

(시선뱃노래)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안개등에 불켰구나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달도밝고 처량한데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고향생각이 절로난다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배 띄워라 바람이 분다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노저어라 바람이 잔다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닻올려라 배떠나간다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고향땅으로 배떠나간다

(에야디야 에헤에디야)

上記에서 나타나듯 瑞山地方의 옛노래를 보면 京畿道の 西海岸地方에서 나타나는 옛노래와 同一함을 알 수 있다. 즉 陸路의 交通網이 海路에 비해서 發達하지 못했던 이 곳의 地理的인 條件때문에 이들은 배로 京畿道와 全羅道の 西海岸과 交易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自然스럽게 같은 俗謠의 口誦帶가 形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昨今에 들어서 많은 魚謠가 急激히 衰退하고 斷絶되는 것은 現代의 環境이 過去와 같이 風船이나 노를 젓는 것이 아니고 動力을 利用하고 있으며 더욱 高度로 發達한 水産業이 모든 作業을 人間이 하기보다는 自動化된 機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內陸의 農謠가 그러하듯 現場을 잃어가고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 地 硬 謠

요즈음에는 家屋를 建築함에 있어서 거의가 機械화된 基礎工事に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地硬밟기는 全國에서 完全 斷絶되고 말았으나 十數年 前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各處에서는 이 지경밟기가 매우 盛行하였다. 이 地硬밟기는 집을 짓기 前에 땅을 단단하게 다져서 집을 더 튼튼하게 짓기위한 方法으로 創出된 民俗으로써, 必然에 의해 나타난 民俗이었다. 人口가 늘어남에 따라서 家屋에 必然적으로 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터를 다지는 이 儀式이 必要했던 것이며 이 터를 다지는 地硬밟기는 단순히 터를 단단하게 하기위한 것만이 아니고 韓國에서 나타나는 巫俗的 祭儀式的 하나로 터를 건드림으로 垸主神이 노하여 일어나는 働土를 막기위한 習俗이기도 하다.

이 地硬밟기는 比較的 연약지반이 많은 海岸이나 江邊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瑞山地方에서는 海岸을 接하고 聚落의 形成이 되

어 있는 곳이 많아 이 地硬밧기의 儀式이 딴 곳에 비해서 더 盛行하였으며 相村의으로 많은 地硬謠가 나타나고 있다.

地硬謠의 辭說은 대개 巫經의 帝釋經이나 地神經, 明堂經의 辭說에서 引用하는데 그 內容이 품고 있는 뜻을 보면

- 1) 터를 건드림으로 해서 나타나는 働土를 垆主神이 막아줄 것과
- 2) 이 터를 明堂이기 때문에 富貴榮華가 있을 것을 祈願하며
- 3) 집이 더 튼튼하기를 바라는 內容이 主를 이루고 있다.

瑞山地方에서는 最近 十數年 前만 하여도 洞里마다 이 地硬밧기가 매우 盛行하였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地硬謠의 歌唱을 口誦하고 있었다.

이터전 닭고닭아
 백년이 더 길구나
 이터전의 내력을 들어보세
 이명당이 제일이라
 좌청룡이 뚜렷하니
 노인봉이 비쳤구나
 노인봉이 비쳤으니

박달당상 할것이요
 우백호가 뚜렷하니
 노적봉이 여기구나
 노적봉이 총졌으니
 만석거부 나리로다
 앞의안산 바라보니

주작임이 분명구나
 남주작이 뚜렷하니
 문필봉도 성세하다
 문장재사 태어날때
 어느문장 태어나나
 이태백의 문장에다
 왕희지의 필 법에다

소진장의 구변에다
고루고루 점지받아
나라에는 충신되고
부모에는 효자되니
이명당이 제일이라
뒷쪽산을 바라보니
현무임이 분명한데
현무가 뚜렷하니

이집안에 대대손손
정승판서 줄을잇고
충신효자 볼것ियो
열녀효부 날것이니
이아니나 좋을손가
에헤야 터전ियो
어허야 터전ियो

〈地 硬 謡 2〉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ong titled "地 硬 謡 2" (Earth Hard Song 2). The score is written on six staves, each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tempo/meter is indicated as "♩. = 60".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slurs.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with some characters appearing to be in a specific dialect or historical form. The lyrics are as follows:

Staff 1:
 1. 60
 <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 60
 <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Staff 2:
 1. 60
 <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Staff 3:
 1. 60
 <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Staff 4:
 1. 60
 <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Staff 5:
 1. 60
 <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Staff 6:
 1. 60
 <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여보시오 역군들아
 이내말을 들어보소
 이터전을 닦을적에
 명당타령을 하여보세
 우리나라 주봉산은
 백두산에 제일이요
 그산맥이 뚝떨어져
 묘향산이 생겨났고

그 산맥이 뚝떨어져
 금강산이 생겨났고
 또한산맥 떨어져서
 삼각산이 생길적에
 일지맥이 낙맥하여
 충청도라 삼도에는
 계룡산이 명산인데
 서해로늘 머리에다

동으로는 꼬리로다
 그눈을 들어보니
 서해바다 펼쳐있어
 산수가 조화로써
 이곳이 명당이라
 천하명당 논할때에
 충청남도 서산군에
 〇〇面 〇〇리에
 계룡낭맥이었으니

어찌아니 명당인가

○氏宅 한가중에

이명당에 터를잡아

선영봉분 마련하니

천하에 제일이라

옆을보니 주작이요

돌아보니 현무로다

좌토는 청룡이요

우토는 백호로다

이자리는 등사로세

이명당에 잡은터전

천하에 제일인데

천년만년 살고질때

당상부모는 백년수요

슬하자손은 만세영이라

충신아기 효자아기

열녀아기 효부아기

대대로 이었으니

이명당이 제일이라

지점맞는 역군들아

어서빨리 다져보세

먼데사람 듣기나좋게

가까운사람 보기나좋게

에이어라 지점이요

前記했듯이 俗謠는 그 地方에서 口誦되는 巫經이나 巫歌와 密接한 關係를 보이며 나타난다고 하였다. 瑞山地方의 地硬謠를 보아도 瑞山地方의 狹은거리 巫覡들이 口誦하는 經文에서 많이 引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巫經이 專門的인 職業人이 巫覡들에 의해서 口誦되기 때문에 辭說이 體系的인데 비해 俗謠는 現場에서 潛在的인 記憶속에 있다가 表出되기 때문에 歌唱者의 技藝力에 따라서 變化하기 때문에 體系的이지 못하다. 俗謠 地硬謠의 辭說과 比較하기 위하여 巫覡, 地神經과 城主經, 帝釋經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城主經〉

世上天地 萬本中에
城造本鄉 어데신가
崑崙山 一技脈이
이山으로 落脈하여
城造本鄉 되었구나
鴨綠江을 씩건너서
大韓國에 當到하여

地脈을 살피보니
東에는 太白이요
西에는 三角이요
北에는 白頭에다
南에는 智異에다
中央에는 鷄龍인데
平安道라 접어들어

檀君千年 箕子千年
 二千年的 治國이니
 第一江山 分明하다
 大同江가 浮壁樓에
 城造大監 坐定하시고
 漢陽城中 돌아들어
 地勢를 살펴보니

道峯山이 落脈하여
 仁旺山이 主山이요
 南山은 案山이요
 漢江이 潮水되고
 東赤江 水口막아
 千年都邑 이아니나
 億萬長安 八萬家戶
 三正丞 六判書에

都承旨며 六曹로다
 點指次로 마련하고
 城造大監 坐定이요
 松都에 돌아들어
 王建太祖 創建으로
 五百年을 都邑하니
 城造大監 坐定하시고
 三南으로 썩내달아

慶尙道라 慶州는
朴氏大王 千年治國
城造大監 坐定한후
忠淸道라 돌아들어
俗雄山이 起峯되니
鷄龍山이 名山이라

扶餘城中 돌아드니
百濟王의 治國인데
城造大監 坐定이라
今歲家中 돌아들어
左右前後 살펴보니
左靑龍 右白虎에

南朱雀 北玄武에
仁口明堂 大主明堂
八卦六條 貴人峯이
이리저리 벌려있고
治山治水 論할시에
성왕방이 고장되요

앞에案山 바라보니
萬古吉山 이아니냐
露積峯이 비쳤으니
寅卯方에 곡창산은
富蒙되기 알맞구나

壯元峯이 비쳤으니
 丙子方에 패방산은
 壯元及弟 날것이요
 東方에는 富貴公明
 南方에는 壽命長壽
 西方에는 子孫昌盛
 地方에는 家畜繁盛
 태오복희 신농황제
 요순무당 문무주공
 좋은터에 자리할때
 瓦家草家 줄行廊을

入口字로 벌려놓고
 龍의머리 터를닦고
 鶴의등에 柱礎놀때
 仁義禮智 主柱하고
 三網으로 大樑엮고
 人條木으로 도리하고
 六十四卦 석가래걸고
 三百六十四爻로다
 날날히도 散子열고
 五十土로 새를막고
 人蔘으로 구들놓고
 不老草로 蓋草할때

千年기와 萬年掘皮
이리저리 올려놓고
卍字窓의 가로단이
菓花色이 分明한데
충충루각 초현다락
治裝도 현란한데
房안治裝 볼작시면

房안治裝 어땡드나
현란하기 그지없다
쳐다보니 소래반자
내려보니 각장장판
강유지 굽도리에
서화부벽 立春祝은
만고재사 솜씨로다
堂上父母 千年壽요

膝下子孫 萬歲榮이라
연함오복 白南來요
三災八亂 向北去라
역역히 붙어있고
대문한칸 바라보니
龍輪五福하고 虎遂三災라
역역히 붙어있고
房內治裝 볼작시면

紛壁紗窓 종을시고
 左右便을 바라보니
 天下名畫 몽아다가
 여기저기 부쳤는데
 동편벽을 바라보니
 위수강에 太公先生

周文王을 보라하고
 곧은낚시 물에 넣고
 으젓하니 앉아있고
 詩中天子 李太白이
 채석강상 明月下에
 한잔술에 興이올라

물속에 잠긴달을
 잡으려고 손을젓고
 西便을 바라보니
 한종진 유황숙이
 다홍선생 모시려고
 삼고초려 하는모습

역역히도 그려있고
 北壁을 바라보니
 白髮道人 네仙人이
 바둑판을 벌려놓고
 黑白碁棋 두는모습

역력히도 그려있네

金剛山の 좋은경치

여기저기 부쳤으니

조들가니 좋으리까

門間治裝 불작시면

三八木으로 東門내고

二七火로 南門내고

回九金으로 西門내고

一六水로 北門내고

五十土로 中門내고

生門方에 大門내고

開問方에 出入할때

應天上之 三光이요

倫人間之 五福이라

연년태평 누리실제

夫婦間에 同苦同樂

年壽차지 南極老人

吉輪星을 벌어다가

夫婦宮에 點指하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以下 省略)

〈帝 釋 經〉

(省略)

금가래에 금줄매고
은가래에 은줄매고
무쇠가래에 짚줄달고
높은데는 밀어다가
낮은데를 밀어다가
아랫역군 윗역군을 불러들여
지점을 다지는데
일세동방 주추밑에
봉의머리 묻혔구나
봉의머리 다칠세라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경이요
에라 지경이다
이세남방 주추밑에
청룡한쌍이 묻혔으니
용의머리 다칠세라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경이다
에라 지경이요
삼세서방 주추밑에

금두깨비 한쌍 문혔으니

두껍머리 다칠새라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경이오

에라 지경이다

사세북방 주추밑에

쪽제비한쌍 문혔구나

쪽제비머리 달칠새라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경이다

에라 지경이요

오세중앙 주추밑에

황룡한쌍 문혔구나

용의머리 다칠새라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경이요

에라 지경이다

이때에 帝釋님네

나무가 있어야

집을 안짓나

앞으로도 십이바다

뒤로도 십이바다

二十四江 훨썬건너

名山大川 찬아가서

좋은나무 골라낸다

한나무를 잡고보니
 온갖짐승이 똥을누워
 不淨똥다 마다하고
 또한나무 잡고보니
 靑龍黃龍 뒤흠어져
 不淨똥다 마다하고

또한나무 잡고보니
 임금王字 걸려있고
 山川明氣 그려있다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팔모로다 뉘여놓고

유엄선 배에실어
 명주바람 솔한풍에
 와지끈뚝뚝 건너서서
 만년쿨러 기화로다
 무쇠기둥에 구리쇠중앙에
 고대광실 높은집을

덩그라니 지어놓고
 미귀에다 풍경을 달았으니
 구리쇠 기둥이 씹어지랴
 東南風이 불게되면
 山川明氣 들었다네

(以下 省略)

(2) 婦 女 謠

흔히 內房歌謠나 閨房歌謠라고 稱하는 婦女謠는 크게 나누어서 自嘆歌의 一種인 시집살이謠와 內房作業謠인 베틀노래 물레타령이 있다. 하지만 廣意의 뜻으로 볼때는 婦女子들의 노래는 全部를 合하여 婦女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婦女謠의 특징은 대개 어떠한 旋律이 特異하게 나타나기 보다는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식의 口誦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理由는 周圍의 環境의 女子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歌唱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婦女子들의 노래는 全國에서 나타나는 辭說이나 旋律이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作業謠인 베틀노래나 물레타령의 경우에는 단순한 作業的 意味보다는 戀情에 의한 辭說이 대부분이며 시집살이謠의 辭說을 보면 두가지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첫째는 시집의 식구들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공격형이고 둘째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自殺하는 自殺刑이다. 이러한 시집살이나 作業謠의 旋律은 대개 입 속에서 읊조리는 口誦形態로 나타나는 것이 通例로써 이 外에 어린아이를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나 아이를 달래며 부르는 弄戲謠도 그 旋律은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집살이요 1〉

♩ = 60.

시집살이요 1

시집살이요 1

시집살이요 1

시집살이요 1

시집이라 하는것은
 열폭치마 눈물젖고
 삼단같은 채전머리
 검불더미 되어버려
 백옥같던 요내 흰손
 두겹잔등 되어버려
 애고애고 말도마라
 시집살이 말도마라
 시집이라 하는것이
 어땡드냐 묻지마라

지옥에를 간다해도
 시집살이 못배긴다
 동생동생 사촌동생
 시집살이 들어봐라
 앞뜰에는 고초심어
 뒷뜰에는 당초심어
 고추당초 맵다한들
 시집보다 더매우라
 쓸개웅담 쓰다한들
 시집살이 더쓰더라

이애이애 묻지마라
 시집살이 묻지마라
 앞발에다 논을갈고
 뒷논에다 밭을갈아
 아침먹고 일어나면
 해가져야 돌아도고
 집에라도 오고보면
 호랑같은 시아범은
 밥늦었다 호령하고
 팽이같은 시어멈은

살림살이 못한다고
 있는 흥 없는 흥을
 있는데로 떠벌리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꿈과같은 서방놈은
 밥달라고 투정하고
 여우같은 시누이년
 방구석에 틀어박혀

매주같은 쌍판에다
 하루종일 토닥거리
 언갓치장 다한후에
 형님형님 우리형님
 시집살이 고될텐데
 내가빨리 시집가야
 형님고생 면한다고

여기장을 놓는소리
 삼년전에 정월보름
 온갓정성 다들여서
 이웃집에 나눠주던
 오곡밥을 먹는것이
 되새김질 하려하고
 이야기에 묻지마라

나혼자서 배불리고
 나혼자서 편하자고
 시집간줄 아나보다
 시집이라 하는것은
 가도후회 못가후회
 후회로다 친다하면
 동생동생 사촌동생
 시집일랑 아예마라

시집이라 하는것이
어느누가 좋다했나
시집간지 사흘만에
안방문을 열어놓고
부엌엘랑 들어가니
쌀독에는 거미줄에
술속에는 앙금내에

십년묵은 먼지들은
겹겹이도 쌓였구나
시집갈때 다홍치마
홀떡벗어 내던지고
행주치마 둘러입고
대광주리 옆에 끼고
호미랑은 손에 들고
우리발이 어디메나

길손에게 물었더니
십리밖에 동구지나
뒷산에를 올라가면
콩알만한 띄기발이
자네시집 발이라기
시들시들 시들어진
배추랑은 젓혀놓고
새순돈아 싱싱한것

하나하나 골라내어
한번두번 서번씻어
배추죽을 끓여내어
시아버지 진지잡수
배추죽은 안먹는다
너나갓다 퍼먹어라

시아머니 진지잡수
계집년이 오죽하면
주변머리 그리없어
고기국은 못끓여도
밥한사발 못마련해
너나갓다 퍼먹어라

고래고래 소리치니
기구하다 내팔자야
어이하여 이러하냐
저녁상을 다시차려
시아즈베 죽자시오
속이허허 비어버려

죽가지곤 안되겠소
고기국좀 끓여오소
문전퇴짜 맞는구나
시누이님 저녁먹소
문을열고 쳐다본후

하고한날 배추죽에
 맹물로만 배 채우니
 어느세월 몸이불어
 시집이랑 간단말요
 애고애고 나죽겠네
 소리치며 통곡하니
 이세신세 처량하네
 소매끝에 눈물찍고
 서방님네 서방님네
 어서어서 죽드시오

지지리도 못난년이
 서방마저 죽이려나
 하고한날 죽이라니
 이년어서 나가거라
 고래고래 소리치니
 눈물만이 나눈구나
 시집이라 하는것이
 이다지도 어렵구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시집살이 어찌할꼬

〈시집살이요 3〉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ong, featuring four staves of music.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various musical symbols.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below the staves. The score is titled "시원함이요 3" (시원함이요 3).

부엌으로 내달아서
정지문을 열어보니
없던한숨 절로나네
뒤주안엔 거미줄이
몇겹이나 쳐져있고
가마솥을 열어보니

녹이가득 슬었구나
거미줄을 걷어내고
청동녹을 닦아놓고
뒤뜰에를 돌아가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물독에다 가득붓고

바구니를 옆에 끼고
앞뜰에로 달려나가
미나리를 뜯어다가
삼시세 번 씻어내어
미나리국 끓여놓고
이웃집에 개똥엄마

시집올때 끼고왔던
은가락지 내줄테니
쌀 한되만 내어주소
깨끗하게 일구워서
정성들여 밥을지어

녹쓴수저 뒹아다가
 저녁상을 차린후에
 시아버지 진지잡수
 이가빠져 버린내가
 미나리를 어이먹나
 이저녁상 내가거라
 한숟갈도 안뜨시고

시어머니 진지잡수
 시집온지 사흘만에
 부엌에를 나갔다면
 진수성찬 못차려도
 어포육식 있다더니
 미나리죽 왜말인가
 너갓다가 다먹거라
 다시상을 차린후에

시아즈범 저녁드소
 새색씨가 저녁한다
 온갖기대 다했더니
 고작해야 미나리국
 덧정없어 못먹겠소
 내다갓다 다드시오
 시누이님 저녁잡수
 새언니가 왜일이요

고생이 많겠구료
 이웃집에 복실이는
 새언니가 오더니만
 시집온지 사흘만에
 온갖포육 산해진미
 진수성찬 차려갖고
 동네방네 손을청해

동네 잔치 벌린 후에
 하고한날 고기국에
 온갖반찬 차려내어
 배가불러 못먹겠다
 자랑하고 다니기에
 내가가서 구경하고
 실컷먹고 왔더니만
 미나리국 생각없소

언니 많이 드시구료
 눈물이 앞을가려
 없던한숨 절로난다
 여보시오 서방님네
 이리와서 저녁잡수
 계집이 주변없어
 사내망신 시키더니
 이집망신 시키구나
 자리에 눕는구나

새아기씨 거동보소
머리랑은 곱게벗고
열두폭 다홍치마
곱게도 차려입고

싸리문을 썩나서서
동산으로 내달아서
한참동안 흐느낀후
자는듯이 누웠고나
애고애고 원홍하다

새아기씨 가련하다
모진시집 원망하다
자는듯이 누웠구나

앞의 시집살이謠에서 나타나듯 대개의 辭說이나 旋律은 特別한 內容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口誦의 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婦女謠는 前記 시집살이뿐만이 아니고 作業謠인 물레타령이나 베틀노래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朝鮮時代의 婦女子들의 位置가 문밖 出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마음껏 소리내어 歌唱할 수 없었다는 것이 社會的인 環境으로써 이 時代의 노래가 (婦女子들의) 거의 읊조리는 形態를 취하고 있다. 特히 忠淸道의 地理的인 特性이 旣 地方과는 달리 완만하여 性格이 느리고 온유한 것도 俗謠의 創出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 되었으며 兩班道라는 分圍氣가 婦女謠의 創出에 많은 影響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성서〉

♩ = 60.

《물마음》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piece titled "물마음" (Water Heart). The score is written on four systems, each consisting of a treble and bass staff. The tempo is marked as ♩ = 60.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melody is written in the treble staff, and the accompaniment is in the bass staff. The piece features a simple, folk-like melody with a repeating rhythmic pattern.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below the treble staff.

물레야 돌아라
뱅뱅뱅 돌아라
한양가신 우리님이

오신다고 기별했오
우리임이 돌아오면
명주저고리 명주바지
곱게지어 입힌후에

화류놀이 가잔다
물레야 돌아라
뱅뱅뱅 돌아라

〈베틀노리 1〉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세
동남간에 베틀놓세
앞다리는 높게놓고
뒷다리는 낮게놓아
월궁선녀 할일없이
베틀노래 부르느냐
이베짜서 어이할까

서방님의 옷도 짓고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 월광단이요
일광단으로 옷지을까
일광단은 저고리질고
월광단은 바지를 지어
서방님의 옷을지어
화류놀이 나 가볼까나

〈베틀노래 3〉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아
종놈간에 베틀놓세
베틀놓아 베짜은후
서방님의 옷을지어
사랑놀이나 하여볼까
에헤이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잉아대는 삼형젠데
이내몸은 독신이니
어느세월 이베짜서
시집밋천을 마련하나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아가씨
수심만 지누니

이러한 베틀노래나 물레타령은 婦女子들이 內房의 作業過程에서 口傳에 의해 傳授가 되어 왔으며 作業의 지극함을 잊고자 하는데서 불리워지던 노래로써 대개는 戀情的인 辭說을 表現하고 있다. 瑞山地方의 물레타령이나 베틀가에서도 나타나듯 作業的인 俗謠이면서도 그 辭說에서는 男女間의 情을 表現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全國的으로 同一한 現象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忠南에서 採錄된 婦女謠 中에서 作業謠인 물레타령과 베틀가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 54 ~

오루를 조꾸를 짖는 물려- 아서 나 땀 땀 라

뒷 창 문 여 불 의 수- 평 개 구- 리 - 리 - 리 - 리

동 창 동 새 춘 달 나 달 - 나 동 새 춘 달 - 리 - 리

러 리 전강은 고 후려 라

오루룽 조루룽 잣는 물레
빙글 뱅뱅 돌아라
뒷창문에 붙으신 청개구리
이 방중 안에
독한 독새를 만나며는
너의 조금은 고태리라

〈1987. 7. 錦山에서 採錄〉

$\text{♩} = 60.$

한밤의 옛노래에서 발췌

베틀가의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많이 불리워지는 民謠 베틀가와 같은 類의 것이 大部分이므로 瑞山地方에서도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베틀가는 베짜는 形態를 노래한 것과 情謠로서의 베틀가가 있는데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월궁에 놀던 선녀
 할일이 전혀없어
 옥난간에 베틀놀때
 앞다리는 높게놓고
 뒷다리는 낮게놓고
 가룻대는 쏘아놓고
 안지량은 돌아놓고
 말코부에 두른양은
 북두칠성 두른듯이
 채바리라 채인양은
 남해수 무지개를 박은듯이

바디집 치는소리
 서산벽력을 울리는 듯
 북 드나드는 양은
 황금같은 찌꼬리가
 버들속에 왕래하듯
 맏뎡이 듣는 양은
 야산초목의 빗방울이 듣는듯이
 구비구비 북해의 도토말이
 북해의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서
 흑운간에 넘노는 듯
 꾸벅꾸벅 끌기씨는
 이쁜남 선남자가

은근히 다가 목을매고
 행복받는 제요
 꿈벽꿈벽 눈섭머리
 강태공의 낚시대를
 어림강에 띄어는듯
 늘림대는 독신이요
 잉아대는 삼형젠데
 만군사를 에워쌓네
 비거미 없는 양은

홍문연의 잔치적에
 복창을 고인듯이
 시침대는 형제인데
 울울히 헤친울을
 자연이도 갈러간다
 빼득빼득 용두마리
 우는 소리는
 동지선달 긴긴 밤에
 외기러기 짝을 잃고
 벗 부르는 소리로다

쇠나절에 째 베가
 아흔아홉잔에
 돌이나무 함박이에
 오리나무 방망이에
 오복소복 담아이고
 올라가는 활랑님네
 내려오시는 선비님네
 그 베 값이 얼마인가
 은이며는 닷말이고
 금이며는 서말일쎄

♩ = 68 ~

가 3 애는 새아 - 흥 - 고
 가 3 애는 새아 - 흥 - 고
 가 3 애는 새아 - 흥 - 고
 가 3 애는 새아 - 흥 - 고

〈忠清道誌에서 발췌〉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 월광단인데
 일광단 월광단 다 짜가지고
 우리님 옷이나 지어나 볼까
 에헤요오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잉아대는 삼형제요
 눈림대는 두형젠데
 이내몸은 독신이니
 건저집 도령님 잠자나 오지
 에헤요오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춘삼월 호시절에
 꽃구경을 가자하고
 구시월 추국시절
 단풍놀이 가자는데
 독수공방 이내신세
 처량하기 그지없네
 에헤요오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서울가신 우리임은
 꽃이피면 오신다더니
 앞이나고 앞이저도
 속절없이 아니오나
 에헤요오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자랑가 1〉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ong titled "자랑가 1)" (Jarangga 1). The score is written on five staves, each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are transcribed below the note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bar lines.

Lyrics: 자랑가 1)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ong titled "자랑가 1)". The score is written on five staves, each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are transcribed below the note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bar lines.

Lyrics: 자랑가 1)

우리아기 착한아기

자장자장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지마라

우리아기 잠깨운다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잠깨울라

착한아기 우리아기

엄마품에 잘도잔다

〈자장가 2〉

1=68-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Zazangga 2". The score is written on four staves. The first staff i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second staff is in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third and fourth staves are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are aligned with the notes. The tempo is marked as 1=68.

Lyrics (Korean):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자장가 -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겐 효자동이
 금을주면 너를사라
 은을주면 너를사라
 동기둥둥 우리아기
 착하게도 잘도잔다

형제간에 화목동이
 우리아기 착한아기
 이웃간에 보배동이
 하늘보다 높고높아
 이세상에 태인동아
 누구라서 점지했나

부모님전 태어날때
 우리아기 보배라서
 인간세상 내려올때
 칠성님이 명을주고
 제석님이 복을주고
 삼신제왕 발원하여

이세상에 태였으니
 하늘같은 보배동이
 땅과같은 보배동이
 금과같은 보배동이
 은과같은 보배동이
 잘도잔다 우리아기
 착한아기 잘도잔다

어린아이들을 재우거나 달래면서 부르는 戲兒謠의 하나인 弄戲謠는 대개 父母의 情이 담긴 辭說로써 旋律 또한 매우 單調롭게 表現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 弄戲謠는 地域에 關係없이 辭說이나 旋律이 共通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婦女子들이 한 두마디의 辭說을 口誦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子息에 대한 母情은 바로 人間의 本能임을 알 수 있다.

忠淸道 地方에서는 前記한 자장가의 辭說이 아닌 士大夫歌에서 傳해지는 傳해지던 자장가의 辭說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地域의 特徵적인 面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辭說은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아가 잘도잔다
 반송위에 쌍학자듯
 백합장미에 봉접자듯
 열미품에 동자자듯
 동정호에 바람자듯
 추녀아래에 제배자듯
 우리아가 잘도잔다

논다논다 잘도논다
 우리애기가 잘도논다
 상투끝에 큰애놀듯
 백화화단에 나비놀듯
 동정호에 봉어놀듯
 외그네에 춘향놀듯
 허공중천 연이놀듯
 우리아가 잘도논다

等으로 表現되고 있어서 忠淸道 地方에서 나타나는 特異한 辭說을 보이고 있다. 이 자장가와 함께 아이들을 달래며 부르는 弄戲謠는 아이를 추스르면서 부르는데 辭說은 여러 形態가 있으나 旋律에 얹어 부르기 보다는 口述式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 辭說을 보면

평기평기 평산아
 날다가는 학산아
 포대기속 귀인아
 쌀한섬을 저보니
 우리애기 반일쎄
 콩한섬을 달으니
 우리애기 동갑네

等으로 表現하는 辭說이 있는가 하면

강실강실 강실도령
 강실책을 옆에 끼고
 무주땅에 장가가게
 서산땅에 시집올께
 피꼬리가 놀던땅에
 매새끼가 날던땅에
 동창너머 우는애기
 배고프다 젖을줘라

아랫방에 하인들아
 옷방에 하인들아
 장인장모 떠나간다

等を 부르며 아이들을 달래기도 하고

달궁달궁 우리아기
 착한아기 우리아기
 밤한톨을 주어다가
 가마솔에 삶아서
 성한쪽은 아기주고
 상한쪽은 엄마먹고
 사이좋게 나누어서
 어서먹고 어서크고
 달궁달궁 우리아기

等도 있어 많은 種類의 弄戲謠의 辭說이 있다. 이러한 자장가나 애어르는 소리를 한두마디씩 口誦할 수 있음은 社會의 環境的 要因이 婦女子들의 노래를 禁忌로 삼고 있었으나 아이에 대한 情만은 母情으로써 어떠한 周圍環境에도 影響을 받지 않았으며 더욱 過去의 生活條件이 現在와 같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娛樂 器具가 없었으므로 母聲만이 有一하게 아이들을 달래고 情을 느끼게 할 수 있었음이다. 이 外에도 婦女謠에는 교훈요나 自嘆歌 등이 있으나 瑞山地方에서는 採錄이 되지 않았다.

(3) 儀式謠

儀式謠라 함은 地方에서 나타나는 많은 俗謠 中에서 限定되어 나타나고 있다. 俗謠의 儀式謠는 喪吊性格謠인 行輿歌와 회댓이소리(달구질노래) 回心曲과 各種 民俗놀이의 六方곳에서 口誦되는 告祀唱이 이에 屬한다.

이 儀式謠는 같은 地方에서도 여러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喪吊歌의 一種인 行輿歌나 회댓이소리는 先唱者의 先唱에 의해서 後唱이 받아지기 때문에 地域的인 特性보다는 歌唱者의 技藝力에 의해서 旋律의 特徵이 나타나고 있다.

이 儀式謠의 辭說의 特徵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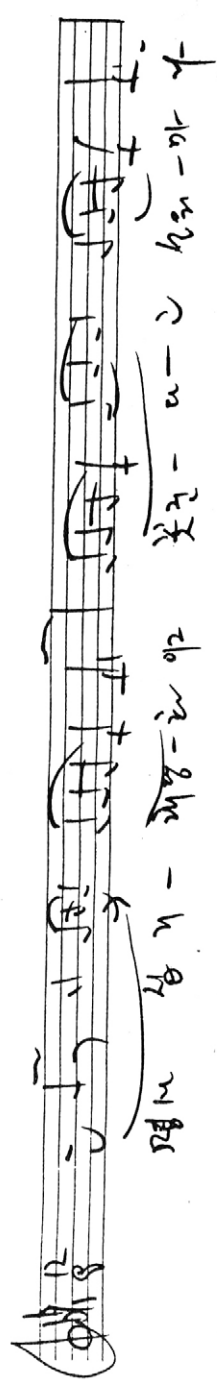
- 1) 人間의 生老病死의 이치
- 2) 生死에 대한 기쁨이나 두려움
- 3) 人道幻生에 대한 祈願
- 4) 삶에 대한 간절한 欲望

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不孝에 대한 후회가 그 內容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삶과 죽음에 의한 自然的 삶에 대한 애착이나 富貴榮華에 대한 人間의 本能的인 欲望 等を 辭說에 담고있다.

이 儀式謠는 全國에서 거의 같은 辭說과 旋律로 나타나고 있으며 歌唱者에 따라서 特徵있게 나타난다.

〈喪興歌 1〉

1. 260



명년삼월 돌아오면
 꽃은다시 되련마는
 가련하다 우리인생
 한번가니 허사로다
 여보시오 뱃님네야
 이내 할말 들어보소
 이세상에 태어날때
 뉘덕으로 태었는가

어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이세상에 태어날때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조받아
 석가세존 발원하여

이세상에 태어날때
 금지옥엽 하였더니
 한두살에 철을물과
 부모은공 못다갚고
 이삼십에 당도하여
 부모은총 갚을손가
 서럽구나 서럽구나
 우리인생 서럽구나
 흥안청춘 젊은몸이

어느세월 백발되어
 염라전에 부름받아
 사자님네 대령하니
 초로같은 우리인생
 아니가고 못견디리
 여보시오 벗님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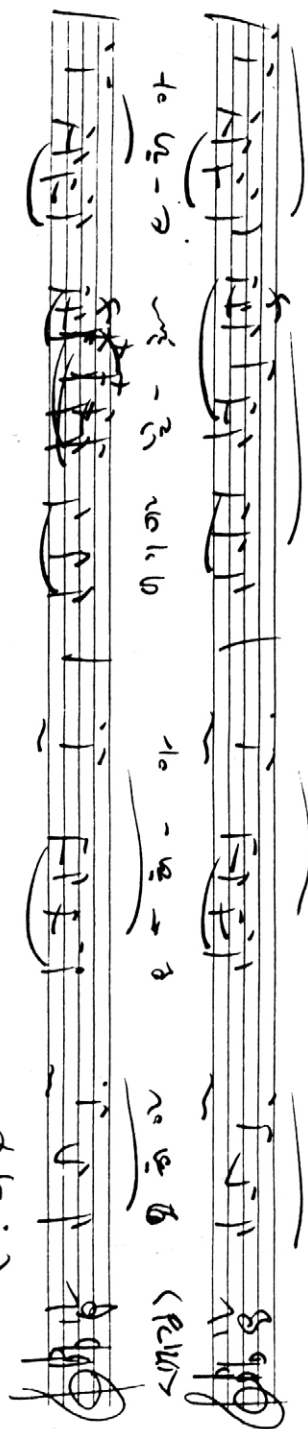
나는가오 나는가오
 뒤를보고 울부짖고
 앞을보고 눈물흘려
 가는길이 험란한들
 어느누가 알아줄까
 서리같은 호령으로
 사자님네 재촉할때

앞선사자 손을끌고
 뒷선사자 등을밀며
 방망이에 쇠사슬에
 무섭기만 하는도다
 저승길이 어디메뇨
 가도가도 끝이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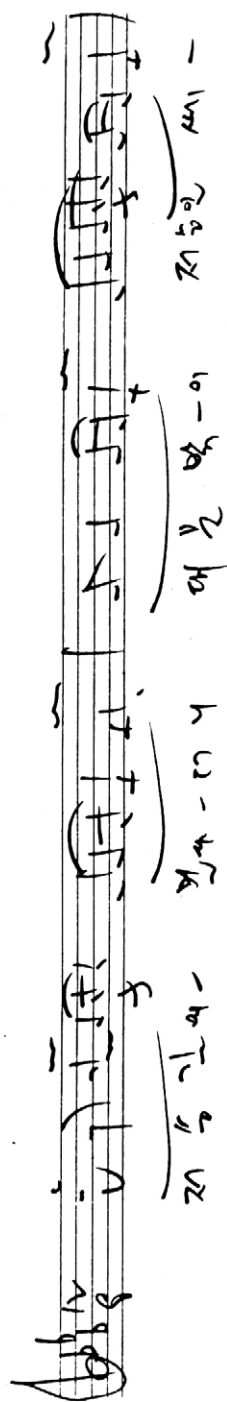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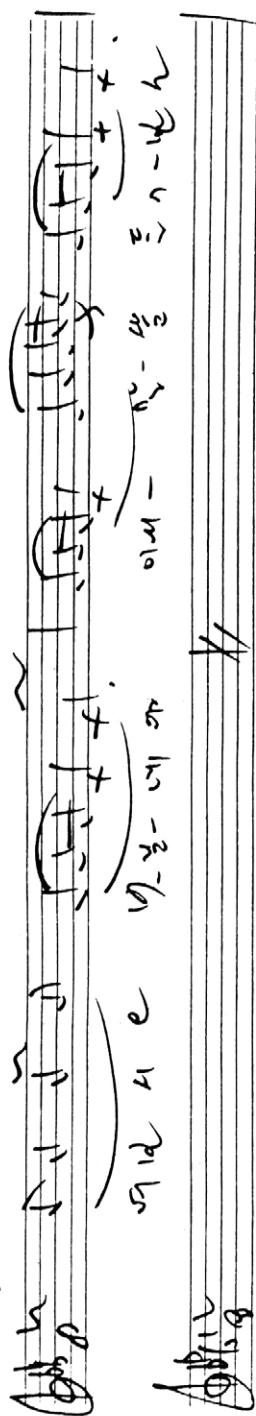
여보시오 사자님네
 쉬었가면 안되겠소
 애걸복걸 하였건만
 어서가자 재촉하니
 나는가오 나는가오
 다시못을 황천길로
 나는가오 나는가오

〈喪輿歌 2〉

1. 214



(322)



한번가면 못올이길
 저승길로 나는가오
 부모형제 많다한들
 어느누가 대신가면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누가 대신갈까
 한번가면 못올이길
 부모처자 다버리고

정처없이 떠나갈때
 어디라고 다시올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봄이되면
 너는다시 되련마는
 한번아차 죽어지니
 다시올길 전혀없네

이제가면 언제오나
 다시오기 어려워니
 안타깝고 애통하다
 구석구석 웃는모습
 나는가오 나는가오
 북망산천 멀고먼길
 다시못올 저승길을
 부모처자 다버리고
 나는가오 나는가오

북망산이 여기로다
 간다간다 나는간다
 북망산으로 돌아간다
 한번가면 못올길을
 나는가오 나는가오
 명사십리 백사장에
 꽃이되면 돌아올까

병풍에 그린닭이
 왜를치면 돌아올까
 가마솔에 삶을개가
 커커경 짓으면 돌아올까
 원통하고 애닭구나
 다시올수 없는이길
 멀고도먼 저승길을

나혼자서 어이갈까
 내처자는 어디있소
 손이라도 잡았으면
 내형제는 어디있소
 다시 한번 보았으면
 애걸복걸 하였지만

아는체도 아니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저승고혼 되었으니
 언제 다시 돌아와서
 처자상봉 하여볼까
 간다간다 나는간다
 저승길로 나는간다

前記한 喪輿歌에서도 보이듯이 모든 共同體의인 俗謠의 特徵을 보면 先唱에 맞추어서 後唱이 받아지게 되는 것으로서 地域的인 特徵보다도 技藝人의 力倆에 의해서 旋律이나 辭說이 나타나게 된다. 이 儀式謠인 喪輿歌나 회닥이노래는 全國을 통해서 辭說이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理由는 人間이 죽음에 대한 恨이나 두려움은 本能的인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儀式謠의 대부분은 巫歌 回心曲의 辭說에서 引用하고 저명 歌唱者에 따라서 內容이나 辭說의 順序를 약간씩 變化가 있으나 그 全體的인 것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평소에 父母에게 孝를 다하지 못한 후회, 人生에 대한 회한 등으로 주된 辭說을 나타내고 있다.

辭說과 마찬가지로 旋律 또한 地域的 特徵보다는 先唱者의 歌唱力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長短이나 高低~小節의 차이는 있으나 主旋律은 共通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俗謠의 받는소리는 메김소리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瑞山地方에서 많이 나타나는 喪輿소리의 후렴은 다음과 같다.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Rose Tree' in G major. The score is written on four staves, with the first two staves for the treble clef and the last two for the bass clef.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music includes variou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such as 'p' (piano) and 'f' (forte). The score is written in a cursive, handwritten style.

〈타고칠노래 1〉

- 89 = '1'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타고칠노래 1" (Tago-chil-nora 1). The score consists of five staves. The first staff ha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second staff has a bass clef. The third staff has a treble clef. The fourth staff has a bass clef. The fifth staff has a treble clef. The music is written in a handwritten style with various notes, rests, and accidentals. There are also some handwritten annotations in Korean and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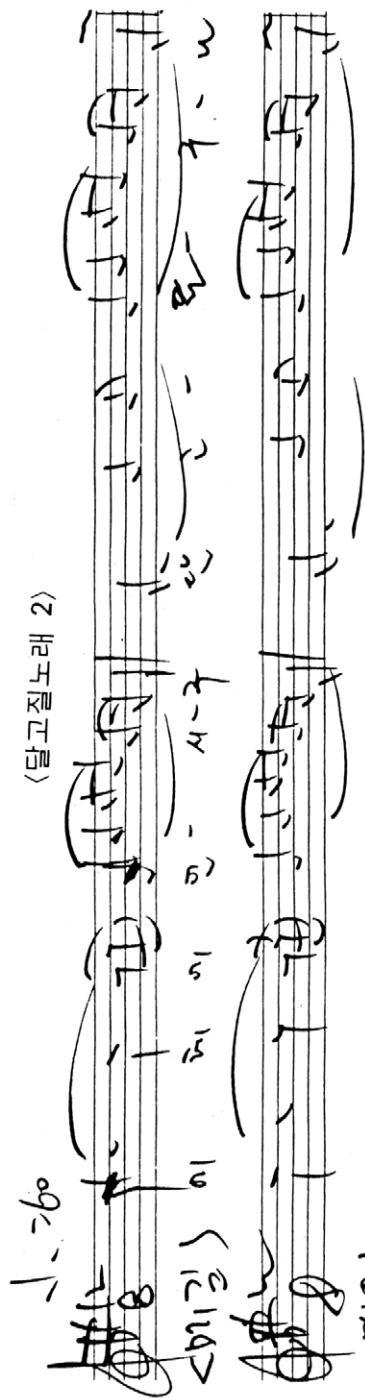
Staff 1: Treble clef,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Notes: G4, A4, B4, C5, D5, E5, F#5, G5, A5, B5, C6, D6, E6, F#6, G6, A6, B6, C7, D7, E7, F#7, G7, A7, B7, C8, D8, E8, F#8, G8, A8, B8, C9, D9, E9, F#9, G9, A9, B9, C10, D10, E10, F#10, G10, A10, B10, C11, D11, E11, F#11, G11, A11, B11, C12, D12, E12, F#12, G12, A12, B12, C13, D13, E13, F#13, G13, A13, B13, C14, D14, E14, F#14, G14, A14, B14, C15, D15, E15, F#15, G15, A15, B15, C16, D16, E16, F#16, G16, A16, B16, C17, D17, E17, F#17, G17, A17, B17, C18, D18, E18, F#18, G18, A18, B18, C19, D19, E19, F#19, G19, A19, B19, C20, D20, E20, F#20, G20, A20, B20, C21, D21, E21, F#21, G21, A21, B21, C22, D22, E22, F#22, G22, A22, B22, C23, D23, E23, F#23, G23, A23, B23, C24, D24, E24, F#24, G24, A24, B24, C25, D25, E25, F#25, G25, A25, B25, C26, D26, E26, F#26, G26, A26, B26, C27, D27, E27, F#27, G27, A27, B27, C28, D28, E28, F#28, G28, A28, B28, C29, D29, E29, F#29, G29, A29, B29, C30, D30, E30, F#30, G30, A30, B30, C31, D31, E31, F#31, G31, A31, B31, C32, D32, E32, F#32, G32, A32, B32, C33, D33, E33, F#33, G33, A33, B33, C34, D34, E34, F#34, G34, A34, B34, C35, D35, E35, F#35, G35, A35, B35, C36, D36, E36, F#36, G36, A36, B36, C37, D37, E37, F#37, G37, A37, B37, C38, D38, E38, F#38, G38, A38, B38, C39, D39, E39, F#39, G39, A39, B39, C40, D40, E40, F#40, G40, A40, B40, C41, D41, E41, F#41, G41, A41, B41, C42, D42, E42, F#42, G42, A42, B42, C43, D43, E43, F#43, G43, A43, B43, C44, D44, E44, F#44, G44, A44, B44, C45, D45, E45, F#45, G45, A45, B45, C46, D46, E46, F#46, G46, A46, B46, C47, D47, E47, F#47, G47, A47, B47, C48, D48, E48, F#48, G48, A48, B48, C49, D49, E49, F#49, G49, A49, B49, C50, D50, E50, F#50, G50, A50, B50, C51, D51, E51, F#51, G51, A51, B51, C52, D52, E52, F#52, G52, A52, B52, C53, D53, E53, F#53, G53, A53, B53, C54, D54, E54, F#54, G54, A54, B54, C55, D55, E55, F#55, G55, A55, B55, C56, D56, E56, F#56, G56, A56, B56, C57, D57, E57, F#57, G57, A57, B57, C58, D58, E58, F#58, G58, A58, B58, C59, D59, E59, F#59, G59, A59, B59, C60, D60, E60, F#60, G60, A60, B60, C61, D61, E61, F#61, G61, A61, B61, C62, D62, E62, F#62, G62, A62, B62, C63, D63, E63, F#63, G63, A63, B63, C64, D64, E64, F#64, G64, A64, B64, C65, D65, E65, F#65, G65, A65, B65, C66, D66, E66, F#66, G66, A66, B66, C67, D67, E67, F#67, G67, A67, B67, C68, D68, E68, F#68, G68, A68, B68, C69, D69, E69, F#69, G69, A69, B69, C70, D70, E70, F#70, G70, A70, B70, C71, D71, E71, F#71, G71, A71, B71, C72, D72, E72, F#72, G72, A72, B72, C73, D73, E73, F#73, G73, A73, B73, C74, D74, E74, F#74, G74, A74, B74, C75, D75, E75, F#75, G75, A75, B75, C76, D76, E76, F#76, G76, A76, B76, C77, D77, E77, F#77, G77, A77, B77, C78, D78, E78, F#78, G78, A78, B78, C79, D79, E79, F#79, G79, A79, B79, C80, D80, E80, F#80, G80, A80, B80, C81, D81, E81, F#81, G81, A81, B81, C82, D82, E82, F#82, G82, A82, B82, C83, D83, E83, F#83, G83, A83, B83, C84, D84, E84, F#84, G84, A84, B84, C85, D85, E85, F#85, G85, A85, B85, C86, D86, E86, F#86, G86, A86, B86, C87, D87, E87, F#87, G87, A87, B87, C88, D88, E88, F#88, G88, A88, B88, C89, D89, E89, F#89, G89, A89, B89, C90, D90, E90, F#90, G90, A90, B90, C91, D91, E91, F#91, G91, A91, B91, C92, D92, E92, F#92, G92, A92, B92, C93, D93, E93, F#93, G93, A93, B93, C94, D94, E94, F#94, G94, A94, B94, C95, D95, E95, F#95, G95, A95, B95, C96, D96, E96, F#96, G96, A96, B96, C97, D97, E97, F#97, G97, A97, B97, C98, D98, E98, F#98, G98, A98, B98, C99, D99, E99, F#99, G99, A99, B99, C100, D100, E100, F#100, G100, A100, B100, C101, D101, E101, F#101, G101, A101, B101, C102, D102, E102, F#102, G102, A102, B102, C103, D103, E103, F#103, G103, A103, B103, C104, D104, E104, F#104, G104, A104, B104, C105, D105, E105, F#105, G105, A105, B105, C106, D106, E106, F#106, G106, A106, B106, C107, D107, E107, F#107, G107, A107, B107, C108, D108, E108, F#108, G108, A108, B108, C109, D109, E109, F#109, G109, A109, B109, C110, D110, E110, F#110, G110, A110, B110, C111, D111, E111, F#111, G111, A111, B111, C112, D112, E112, F#112, G112, A112, B112, C113, D113, E113, F#113, G113, A113, B113, C114, D114, E114, F#114, G114, A114, B114, C115, D115, E115, F#115, G115, A115, B115, C116, D116, E116, F#116, G116, A116, B116, C117, D117, E117, F#117, G117, A117, B117, C118, D118, E118, F#118, G118, A118, B118, C119, D119, E119, F#119, G119, A119, B119, C120, D120, E120, F#120, G120, A120, B120, C121, D121, E121, F#121, G121, A121, B121, C122, D122, E122, F#122, G122, A122, B122, C123, D123, E123, F#123, G123, A123, B123, C124, D124, E124, F#124, G124, A124, B124, C125, D125, E125, F#125, G125, A125, B125, C126, D126, E126, F#126, G126, A126, B126, C127, D127, E127, F#127, G127, A127, B127, C128, D128, E128, F#128, G128, A128, B128, C129, D129, E129, F#129, G129, A129, B129, C130, D130, E130, F#130, G130, A130, B130, C131, D131, E131, F#131, G131, A131, B131, C132, D132, E132, F#132, G132, A132, B132, C133, D133, E133, F#133, G133, A133, B133, C134, D134, E134, F#134, G134, A134, B134, C135, D135, E135, F#135, G135, A135, B135, C136, D136, E136, F#136, G136, A136, B136, C137, D137, E137, F#137, G137, A137, B137, C138, D138, E138, F#138, G138, A138, B138, C139, D139, E139, F#139, G139, A139, B139, C140, D140, E140, F#140, G140, A140, B140, C141, D141, E141, F#141, G141, A141, B141, C142, D142, E142, F#142, G142, A142, B142, C143, D143, E143, F#143, G143, A143, B143, C144, D144, E144, F#144, G144, A144, B144, C145, D145, E145, F#145, G145, A145, B145, C146, D146, E146, F#146, G146, A146, B146, C147, D147, E147, F#147, G147, A147, B147, C148, D148, E148, F#148, G148, A148, B148, C149, D149, E149, F#149, G149, A149, B149, C150, D150, E150, F#150, G150, A150, B150, C151, D151, E151, F#151, G151, A151, B151, C152, D152, E152, F#152, G152, A152, B152, C153, D153, E153, F#153, G153, A153, B153, C154, D154, E154, F#154, G154, A154, B154, C155, D155, E155, F#155, G155, A155, B155, C156, D156, E156, F#156, G156, A156, B156, C157, D157, E157, F#157, G157, A157, B157, C158, D158, E158, F#158, G158, A158, B158, C159, D159, E159, F#159, G159, A159, B159, C160, D160, E160, F#160, G160, A160, B160, C161, D161, E161, F#161, G161, A161, B161, C162, D162, E162, F#162, G162, A162, B162, C163, D163, E163, F#163, G163, A163, B163, C164, D164, E164, F#164, G164, A164, B164, C165, D165, E165, F#165, G165, A165, B165, C166, D166, E166, F#166, G166, A166, B166, C167, D167, E167, F#167, G167, A167, B167, C168, D168, E168, F#168, G168, A168, B168, C169, D169, E169, F#169, G169, A169, B169, C170, D170, E170, F#170, G170, A170, B170, C171, D171, E171, F#171, G171, A171, B171, C172, D172, E172, F#172, G172, A172, B172, C173, D173, E173, F#173, G173, A173, B173, C174, D174, E174, F#174, G174, A174, B174, C175, D175, E175, F#175, G175, A175, B175, C176, D176, E176, F#176, G176, A176, B176, C177, D177, E177, F#177, G177, A177, B177, C178, D178, E178, F#178, G178, A178, B178, C179, D179, E179, F#179, G179, A179, B179, C180, D180, E180, F#180, G180, A180, B180, C181, D181, E181, F#181, G181, A181, B181, C182, D182, E182, F#182, G182, A182, B182, C183, D183, E183, F#183, G183, A183, B183, C184, D184, E184, F#184, G184, A184, B184, C185, D185, E185, F#185, G185, A185, B185, C186, D186, E186, F#186, G186, A186, B186, C187, D187, E187, F#187, G187, A187, B187, C188, D188, E188, F#188, G188, A188, B188, C189, D189, E189, F#189, G189, A189, B189, C190, D190, E190, F#190, G190, A190, B190, C191, D191, E191, F#191, G191, A191, B191, C192, D192, E192, F#192, G192, A192, B192, C193, D193, E193, F#193, G193, A193, B193, C194, D194, E194, F#194, G194, A194, B194, C195, D195, E195, F#195, G195, A195, B195, C196, D196, E196, F#196, G196, A196, B196, C197, D197, E197, F#197, G197, A197, B197, C198, D198, E198, F#198, G198, A198, B198, C199, D199, E199, F#199, G199, A199, B199, C200, D200, E200, F#200, G200, A200, B200, C201, D201, E201, F#201, G201, A201, B201, C202, D202, E202, F#202, G202, A202, B202, C203, D203, E203, F#203, G203, A203, B203, C204, D204, E204, F#204, G204, A204, B204, C205, D205, E205, F#205, G205, A205, B205, C206, D206, E206, F#206, G206, A206, B206, C207, D207, E207, F#207, G207, A207, B207, C208, D208, E208, F#208, G208, A208, B208, C209, D209, E209, F#209, G209, A209, B209, C210, D210, E210, F#210, G210, A210, B210, C211, D211, E211, F#211, G211, A211, B211, C212, D212, E212, F#212, G212, A212, B212, C213, D213, E213, F#213, G213, A213, B213, C214, D214, E214, F#214, G214, A214, B214, C215, D215, E215, F#215, G215, A215, B215, C216, D216, E216, F#216, G216, A216, B216, C217, D217, E217, F#217, G217, A217, B217, C218, D218, E218, F#218, G218, A218, B218, C219, D219, E219, F#219, G219, A219, B219, C220, D220, E220, F#220, G220, A220, B220, C221, D221, E221, F#221, G221, A221, B221, C222, D222, E222, F#222, G222, A222, B222, C223, D223, E223, F#223, G223, A223, B223, C224, D224, E224, F#224, G224, A224, B224, C225, D225, E225, F#225, G225, A225, B225, C226, D226, E226, F#226, G226, A226, B226, C227, D227, E227, F#227, G227, A227, B227, C228, D228, E228, F#228, G228, A228, B228, C229, D229, E229, F#229, G229, A229, B229, C230, D230, E230, F#230, G230, A230, B230, C231, D231, E231, F#231, G231, A231, B231, C232, D232, E232, F#232, G232, A232, B232, C233, D233, E233, F#233, G233, A233, B233, C234, D234, E234, F#234, G234, A234, B234, C235, D235, E235, F#235, G235, A235, B235, C236, D236, E236, F#236, G236, A236, B236, C237, D237, E237, F#237, G237, A237, B237, C238, D238, E238, F#238, G238, A238, B238, C239, D239, E239, F#239, G239, A239, B239, C240, D240, E240, F#240, G240, A240, B240, C241, D241, E241, F#241, G241, A241, B241, C242, D242, E242, F#242, G242, A242, B242, C243, D243, E243, F#243, G243, A243, B243, C244, D244, E244, F#244, G244, A244, B244, C245, D245, E245, F#245, G245, A245, B245, C246, D246, E246, F#246, G246, A246, B246, C247, D247, E247, F#247, G247, A247, B247, C248, D248, E248, F#248, G248, A248, B248, C249, D249, E249, F#249, G249, A249, B249, C250, D250, E250, F#250, G250, A250, B250, C251, D251, E251, F#251, G251, A251, B251, C252, D252, E252, F#252, G252, A252, B252, C253, D253, E253, F#253, G253, A253, B253, C254, D254, E254, F#254, G254, A254, B254, C255, D255, E255, F#255, G255, A255, B255, C256, D256, E256, F#256, G256, A256, B256, C257, D257, E257, F#257, G257, A257, B257, C258, D258, E258, F#258, G258, A258, B258, C259, D259, E259, F#259, G259, A259, B259, C260, D260, E260, F#260, G260, A260, B260, C261, D261, E261, F#261, G261, A261, B261, C262, D262, E262, F#262, G262, A262, B262, C263, D263, E263, F#263, G263, A263, B263, C264, D264, E264, F#264, G264, A264, B264, C265, D265, E265, F#265, G265, A265, B265, C266, D266, E266, F#266, G266, A266, B266, C267, D267, E267, F#267, G267, A267, B267, C268, D268, E268, F#268, G268, A268, B268, C269, D269, E269, F#269, G269, A269, B269, C270, D270, E270, F#270, G270, A270, B270, C271, D271, E271, F#271, G271, A271, B271, C272, D272, E272, F#272, G272, A272, B272, C273, D273, E273, F#273, G273, A273, B273, C274, D274, E274, F#274, G274, A274, B274, C275, D275, E275, F#275, G275, A275, B275, C276, D276, E276, F#276, G276, A276, B276, C277, D277, E277, F#277, G277, A277, B277, C278, D278, E278, F#278, G278, A278, B278, C279, D279, E279, F#279, G279, A279, B279, C280, D280, E280, F#280, G280, A280, B280, C281, D281, E281, F#281, G281, A281, B281, C282, D282, E282, F#282, G282, A282, B282, C283, D283, E283, F#283, G283, A283, B283, C284, D284, E284, F#284, G284, A284, B284, C285, D285, E285, F#285, G285, A285, B285, C286, D286, E286, F#286, G286, A286, B286, C287, D287, E287, F#287, G287, A287, B287, C288, D288, E288, F#288, G288, A288, B288, C289, D289, E289, F#289, G289, A289, B289, C290, D290, E290, F#290, G290, A290, B290, C291, D291, E291, F#291, G291, A291, B291, C292, D292, E292, F#292, G292, A292, B292, C293, D293, E293, F#293, G293, A293, B293, C294, D294, E294, F#294, G294, A294, B294, C295, D295, E295, F#295, G295, A295, B295, C296, D296, E296, F#296, G296, A296, B296, C297, D297, E297, F#297, G297, A297, B297, C298, D298, E298, F#298, G298, A298, B298, C299, D299, E299, F#299, G299, A299, B299, C300, D300, E300, F#300, G300, A300, B300, C301, D301, E301, F#301, G301, A301, B301, C302, D302, E302, F#302, G302, A302, B302, C303, D303, E303, F#303, G303, A303, B303, C304, D304, E304, F#304, G304, A304, B304, C305, D305, E305, F#305, G305, A305, B305, C306, D306, E306, F#306, G306, A306, B306, C307, D307, E307, F#307, G307, A307, B307, C308, D308, E308, F#308, G308, A308, B308, C309, D309, E309, F#309, G309, A309, B309, C310, D310, E310, F#310, G310, A310, B310, C311, D311, E311, F#311, G311, A311, B311, C312, D312, E312, F#312, G312, A312, B312, C313, D313, E313, F#313, G313, A313, B313, C314, D314, E314, F#314, G314, A314, B314, C315, D315, E315, F#315, G315, A315, B315, C316, D316, E316, F#316, G316, A316, B316, C317, D317, E317, F#317, G317, A317, B317, C318, D318, E318, F#318, G318, A318, B318, C319, D319, E319, F#319, G319, A319, B319, C320, D320, E320, F#320, G320, A320, B320, C321, D321, E321, F#321, G321, A321, B321, C322, D322, E322, F#322, G322, A322, B322, C323, D323, E323, F#323, G323, A323, B323, C324, D324, E324, F#324, G324, A324, B324, C325, D325, E325, F#325, G325, A325, B325, C326, D326, E326, F#326, G326, A326, B326, C327, D327, E327, F#327, G327, A327, B327, C328, D328, E328, F#328, G328, A328, B328, C329, D329, E329, F#329, G329, A329, B329, C330, D330, E330, F#330, G330, A330, B330, C331, D331, E331, F#331, G331, A331, B331, C332, D332, E332, F#332, G332, A332, B332, C333, D333, E333, F#333, G333, A333, B333, C334, D334, E334, F#334, G334, A334, B334, C335, D335, E335, F#335, G335, A335, B335, C336, D336, E336, F#336, G336, A336, B336, C337, D337, E337, F#337, G337, A337, B337, C338, D338, E338, F#338, G338, A338, B338, C339, D339, E339, F#339, G339, A339, B339, C340, D340, E340, F#340, G340, A340, B340, C341, D341, E341, F#341, G341, A341, B341, C342, D342, E342, F#342, G342, A342, B342, C343, D343, E343, F#343, G343, A343, B343, C344, D344, E344, F#344, G344, A344, B344, C345, D345, E345, F#345, G345, A345, B345, C346, D346, E346, F#346, G346, A346, B346, C347, D347, E347, F#347, G347, A347, B347, C348, D348, E348, F#348, G348, A348, B348, C349, D349, E349, F#349, G349, A349, B349, C350, D350, E350, F#350, G350, A350, B350, C351, D351, E351, F#351, G351, A351, B351, C352, D352, E352, F#352, G352, A352, B352, C353, D353, E353, F#353, G353, A353, B353, C354, D354, E354, F#354, G354, A354, B354, C355, D355, E355, F#355, G355, A355, B355, C356, D356, E356, F#356, G356, A3

이터전을 잠을적에
지관불러 전후보고
풍수불러 좌우본후
명당터를 잡았구나
이명당에 유택마련
천년만년 살고질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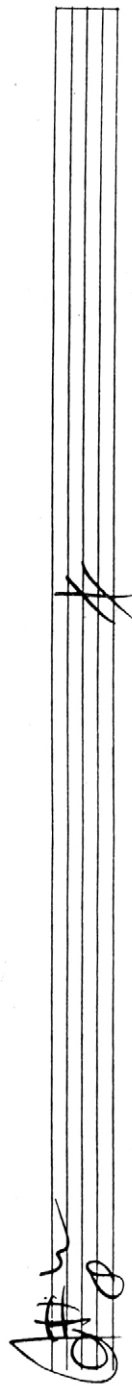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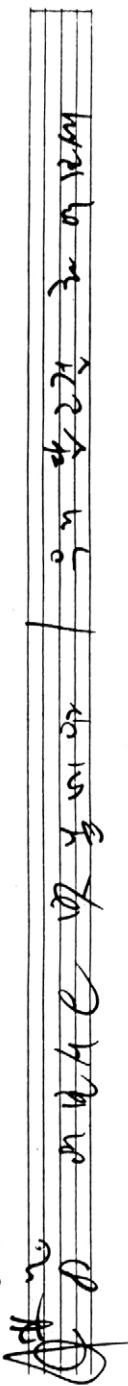
정승판서 나오시면
충신아니 나오실까
아들아기 나오시면
효자아니 나오실까
딸아기를 점지하면
열녀효부 분명구니

이명당 이터전에
제일임이 분명구나
땅을다져 나갈때에
한발들어 앞에 딛고
한발들어 뒤에 딛고
단단히도 자져보세

〈탈고칠노래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금구쇠를 손에 잡고
 전후좌우를 살펴보니
 천차에는 崑崙이요
 지하에는 西海水요
 明堂中엔 本宅이라
 백두산이 일지맥은

어디로 뚝떨어져
 南鮮으로 내리달아
 우리나라 中心部에
 鶴龍山이 불쑥솟아
 忠淸道라 名山인데
 鷄龍精氣 어데 갔나

瑞山郡 ○○面에
 ○○리에 當到하여
 ○氏家中 한家中에
 선영유택 마련하니
 이明堂의 내력을보니
 天下에 第一이라

일을하는 役君들아
 明堂내력 들어봐라
 앞을보니 南朱雀에
 北에로는 玄武로다
 좌편에는 靑龍이요
 우편에는 白虎로다
 四星이 뚜렷하니

明堂之地 아니더나
 老人峯이 보였으니
 堂上白髮 千年壽요
 膝下子孫 萬歲榮이라
 財物峯이 層졌으니
 萬柘巨高 나리로다
 종이나면 忠婢에다
 소거나면 약내에다

개가나면 사지보구
 닭이나면 鳳鷄낭고
 말이나면 龍天馬요
 물이나면 生命水요
 풀이나면 還生草라
 이아니나 종을손가
 이터전의 덕택으로
 代代孫孫 이어가며

百子千孫 하실때에
 政丞判書는 물론이요
 사내아이 낳으며는
 孝子에다 忠臣이요
 딸아기를 낳으며는
 孝婦에다 烈女로다
 이아니나 종으리카
 明堂덕택 뿐이로다.

儀式謠는 前記한 喪輿소리와 달고질소리(회방아타령)이 있으며 告祀唱이 있다. 이 中에서 달고질노래는 作業謠인 地硬謠와 그 辭說이 同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그 理由는 地硬땀기나 달고질이나 그 外的인 形態가 땅을 다지기 위한 것이며 더욱 살아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家屋이나 죽어서 永遠한 安息을 누리기 위한 유택이나 똑 같은 집이라는 思考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터를 잘 잡아야 子孫昌盛하고 富貴榮華를 누릴 수 있다는 巫俗의인 思考로 인하여 집터를 잡을때나 墓가리를 잡을때 그 터가 明堂이길 바라는 念願이 있으며 明堂을 잡아서 子孫들이 번성하기를 비는 習俗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 子孫이 禍를 당하기라도 하면 집터를 잘못 잡았다고 하거나 祖上의 墓를 잘못 썼다고 탓하기도 하는 등 明堂에 대한 念願이 張했기 때문에 同一한 明堂에 대한 祈願에서 같은 辭說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瑞山地方의 儀式謠의 辭說을 보면 巫經 宣祖德談이나 回心曲 등에서 引用하고 있으며 比較的 辭說이 整理되어 있는 理由는 忠淸南道의 어느 곳이나 그러하듯 많은 巫俗人이 生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은거리 巫覡들은 대개 經文을 口誦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리의 巫歌와는 달리 辭說의 變化가 없고 文書에 의해 傳해지기 때문에 同一한 辭說로써 나타나고 있어서 反複되는 辭說로 듣는이의 潛定的인 記憶이 確實하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 巫覡들이 다니며 專門的인 口誦을 하고 있음도 體系的인 辭說이 나타나는 理由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瑞山地方의 年初의 地神밧기나 乞粒에서 나타나는 進行過程 中에서 六方굿의 德談인 告祀德談을 보아도 年初가 되면 漢戲牌가 돌아 다닐때에 德談의 口誦은 專門的인 巫覡을 請願하는 것이 흔한 예이다. 瑞山地方에서 많이 口誦되는 대청굿의 告祀德談의 辭說은 다음과 같다.

〈告祀德談〉

天地가 開闢할때

一大國이 생겨나니

乾父坤母 名別하여

陰과陽의 調和로다

太陽精氣는 낮이되고

太陰精氣는 밤이되니

山之宗은 崑崙이요

水之宗은 黃河水라

人之宗은 順德이니

山水造化 無窮하다

一大國을 세울적에

三角山은 主山이요

南山은 案山이니

鶴을놀이 大闕짓고

大闕앞에 六曹로다

六曹앞에 五營門

五營門앞 三角이니

各都各邑 마련할때

仁旺山이 主峯되고

南山이 案山이니

東丘재는 靑龍이요

萬里재는 白虎로다

冠岳山 守口막아

東赤江 潮水되니

南鮮을 府州잡아

海東은 朝鮮國

京畿같은 政丞네는

三十七官 마련하고

慶尙道는 五十七官

全羅道와 江原道는

二十六官 마련후에

忠淸道라 돌아들어

五十三官 마련할때

乾高坤低 ○○生

太主姓名은 ○○○氏

○○年 ○○月 ○○日이요

地主姓名은 ○○○氏

○○年 ○○月 ○○日인데

昨年같은 험한 歲月

꿈결같이 보낸후에

今年새해 접어들어

몸주살이 세다하니

몸주살을 돌고가자

煞 풀었다 除解煞

夫婦之間 離別煞

內外之間 空房煞

父母離別 蒙喪煞

解喪벗어 脫喪煞

蒙喪벗어 解喪煞

親戚之間 不和煞

洞內房內 婚姻葬死 不淨煞

婚姻大事 酒糖煞

山에 올라 山神煞

풀을내려 野菜煞

물에 들어 龍王煞

洞里 뒷길 城隍煞

마을入口 長丞煞

방아간에 디딤煞

안마당에 戲弄煞

大門間에 守門將煞

처마끝에 落水煞

부엌에는 竈王煞

수채에는 흘림煞

垆主에는 明堂煞

大方에는 城造煞

안방에는 三神煞

距里道中 落傷煞

원갓煞을 풀고가자
 하늘드는 天厄煞은
 太上老君이 풀어줄때
 父母宮에 離別煞은
 太之老君이 풀어주고
 兄弟乙間 天孤煞은
 五放神將이 풀어주고

夫婦宮에 空房煞은
 太白星君이 풀어내고
 子孫宮에 天拘煞은
 括狼子門이 막아내고
 財物宮에 破厄煞은
 三佛帝釋이 풀어내고
 命之短長 黃泉煞은
 北斗七星이 풀어내고

非命에 간 橫厄煞은
 五岳山神이 막아내고
 落井水沈 溺死煞은
 四海龍王이 풀어줄때
 四肢六體 天刃煞은
 三神帝王이 풀어내고
 他鄉遊客 天驛煞은
 垞主神이 풀어내고

一家親戚 不睦煞은

藺王大神 풀어내고

重夫二妾 隔産煞은

城主大監이 풀어내고

獨守空房 虛房煞은

陰陽之神이 풀어내고

名譽上에 亡身煞은

天乙貴人이 막아내고

子午卯酉 相冲煞은

六甲之神이 풀어낼때

(中略)

東方에 드는 靑帝煞은

三八木으로 건어내고

南方에 드는 赤帝煞은

二七火로 건어내고

西方에 드는 白帝煞은

四九金으로 건어내고

北方에 드는 黑帝煞은

一六水로 건어내고

中央에 드는 黃帝煞은

五十土로 막아낼때

年厄月厄 日厄時厄

病厄橫厄 三災八亂

人間世界の 모든災難
 十二苦薩이 막아낼때
 모든厄煞 막았으니
 日月이라 帝釋님께
 命과福도 發願하자
 日月이라 帝釋님은
 人間五福을 點指次로
 億兆蒼生 萬民들의
 富와貴를 마련하고
 貧과賤을 마련차로

海東은 大韓民國
 瑞山郡에 나오실때
 앞바다도 열두바다
 뒷바다도 열두바다
 二十四江 건너실때
 木造船을 지어타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石造船을 지어타니

돌배는 가라앉고
 土造船을 지어타니
 흙이라서 풀어지고
 鐵造船을 지어타니
 쇠바라 달라붙어

건너설길 전혀없네
日月이라 帝釋님께
首陽山에 치달아서
앵무공작 깃늘이던
버들잎을 주룩훑어

柳葉船을 지어 타고
大韓國에 나오실때
明絲바람 잔솔풍에
와자직끈 건너서서
大韓國에 當到하여
이리갈까 저리갈까
四方을 둘러본후
漢陽으로 돌아들어

王候將相 點指하고
政丞判書 點指하고
富貴貧賤 마련한후
南鮮으로 내리달아
실날같은 줄기마다
瑞氣줄을 느려눌때
이宅家中 돌아들어
이明堂 이터전에
帝釋宮을 마련하고
宮안에 坐定한후

人間五福 點指한다

人間五福 點持할때

天福地福 모여든다

구름福은 넘어들고

안개福은 모여들고

물福은 흘러들고

바람福은 불어들때

꼭제비業은 뛰어들고

童子業은 걸어들고

돼지福은 물려들고

두깨비福은 영금거리고

새福일랑 날아들때

千秬巨富 點指하고

萬秬巨富 點指할때

敗數所望 發願이요

南田北答 장만할때

높은데는 깎아내어

낮은데를 채워놓고

낮은데는 다져줄때

앞뜰에는 千秬지기

뒷뜰에는 萬秬지기

물길좋은 고래실에

천수바래기 샘치논에

乾答水答 가른후에

農事한철 지어보자

욕심많아 돼지찰

알록달록 까투리찰

廣州分院에는 양돌벼에

驪州利川에 자체벼

金堤萬頃 사발벼에

감실거리는 다마금에

빛깔좋은 금옥이며

샬깔좋은 은방도

키가작아 안질뱅이

먼저먹어 六月벼

쓸기러워 조실벼

豐年들어 豐玉이며

하나밖에 몰라 하나벼

이벼저벼 다버리고

新品種의 씨를골라

千拓지기 씨를뿌려

萬拓지기 옮길적에

西海龍王 물을주고

五方地神은 모내기하고

五岳之神은 논을매서

雨順豐調 골고루 엮어

거침없이 자라나서
 大豊年이 들었으니
 조들아니 좋으리까
 밭농사도 지어보자
 南山아래 장채밭은

牛耕百苗 갈아놓고
 五穀百穀 씨뿌리자
 苦草唐草 南方草여
 참깨들깨 심어놓고
 봄팔가을팔 赤豆에다
 千里遠征 江南콩

올망줄망 푸르대콩
 방정맞아 주더니콩
 獨守空房 홀애비콩
 二八青春 각씨돈부
 외홀박이는 홀어미콩
 두알박이는 兩主夫妻

세풀박이는 三兄弟콩
 大麥小麥 봄보리에
 모밀기장 옥수수에
 온갖雜穀 씨뿌리고
 온갖精誠 다해보자
 歲月이 如流하며

그모두가 자라나서
大豐年이 되었구나
가을이라 秋收철에
八月맞이 하여보자
장달이같은 종놈들은
꼬부랑 낫을 싹갈아서
이리걸어 저리베고

저리걸어 이리베어
지게에다 저들이고
앵무같은 종년들은
또아리받쳐 이어들여
露積을 쌓아놓고
마굿간의 牛馬들은
양대바리로 실어들여
앞뜰에는 千柘露積

뒷뜰에도 萬柘露積
암불히도 쌓았으니
앞노적은 大主露積
뒷노적은 地主露積
앞뒤로 쌓아놓때
난데없는 봉덕새가
두날개를 훨훨치며
훨훨훨 날아들어

露積더미에 올라앉아

한날개를 툭탁치면

一千柘이 쏟아지고

또한날개 툭탁치면

一萬柘이 쏟아진다

五穀百穀 재들어서

穀間마다 가득하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글란그리도 하려니와

집안治裝도 하여보자

高台廣室 지어볼까

江湖溪名 景致 좋아

나비터전 부리明堂

부리明堂 나비터전

左右之間 터닭을때

얕은地帶 치다듬고

높은地帶 낮게해서

덩그라니 닭아놓고

千年地點 다질적에

한쪽산을 바라보니

露積峯이 비쳤구나

萬柘巨宮 날것이라

지점을 다져주오

또 한山을 바라보니
 文筆峯이 비쳤구나
 高官大爵 날것이요
 지점을 다재주오
 또 한山을 바라보자

老人峯이 비쳤구나
 堂上父母 千年壽요
 膝下子孫 萬歲榮이라
 가만가만 다져주오
 東方을 바라보니
 靑龍한쌍 문혔구나
 龍의머리 다치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점이요
 南方을 바라보니
 朱雀한쌍 문혔구나
 朱雀머리 다치겠다
 가만가만 다재주오
 에라 지점이요
 西方를 바라보니
 白虎한쌍 문혔구나
 범의머리 다치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점이요
 北方을 바라보니
 玄武한쌍 묻혔구나
 玄武머리 다치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점이요

中央을 바라보니
 騰蛇한쌍 묻혔구나
 騰蛇허리 끊기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라 지점이야
 지점이를 다진후에

집을한채 지어보자
 八道에 방을내어
 일등木手 불러다가
 大山에가 大木내고
 달산에가 小木낸후
 大木小木 골라낸후

굵은나무는 가다듬고
 곧은나무는 다듬어서
 五行으로 柱礎놓고
 仁義禮智로 기둥하고
 三綱으로 大樑없고

三八木으로 도배 하고

六十四卦 석글 걸고

二十八宿 왜를 엮어

一百八十四爻로 다

차례 차례 지어 보자

쪽 곧아서 一字집

꼬부라져 ㄱ字집

네모나서 ㅁ口字집

한쪽터진 ㄷ字집

行廊채며 아래윗채

덩그라니 지어놓고

二層누각 三層누각

보기 좋게 올려놓고

네 귀에 풍경 달아

東南風이 건듯 불면

땡그랭땡 올려대니

근들아니 종을 쏘냐

門間治裝도 하여 보자

上門中門 바라보니

龍字와 唐字는

三災八亂 원갓災厄

차례거리로 막아내고

大門안에 썩들어서

大廳기둥 바라보니

堂上父母는 千年壽요

膝下子孫을 萬歲榮이라

딩그라니 붙여있고

左便기둥 바라보니

千增歲月 人增壽요

春滿乾坤 萬福家라

보기 좋게 붙여있고

右便기둥을 바라보니

和氣子生 君子宅에

春光先到 古人家라

뚜렷이도 붙었구나

(中略)

房안治裝도 하여보자

올려보니

손내 반자

내려다보니 각장장판

人物屏風 만뎃이에

여기저기 널려보고

금수병풍 산수병풍

전후좌우 둘러치고

자개농에 자개문갑

머리말에 늘어놓고

샛별같은 요강대야
 저만치에 밀어놓고
 비단금침 이부자리
 덮을듯이 펼친후에
 자수벼개 왕골퇴침
 첩첩히도 쌓였으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그도그리 하려니와
 子孫昌盛 發願하자
 上男子孫 서방님

中男子孫 도련님
 下男子孫 童子아기
 무릎밑에 孫童子
 어깨넘어 길童子
 한胎줄에 五兄弟를
 차례대로 點持할때
 있는아기는 壽命長壽
 없는아기는 生男發願

차례대로 發願한후
 어느子孫 낳았드냐
 나라에는 忠臣되고
 父母에겐 孝子되고
 一家親戚 和睦하고

兄弟間에 友愛있고

이웃 간에 貴人되고

金枝玉葉 자라날때

二年만에 起就하고

三年만에 呼父하고

四年만에 言語깨고

五六歲에 入學시켜

天地玄黃 馬哉乎也

순신 간에 읽어낸후

四書三經 百家書에

小學大學 論語孟子

禮書春和 다통달후

周易八卦 壯子書를

나는듯이 외우는구나

無不通知 외운후에

天地陰陽 造化述과

千和古今 未來事며

육도삼략 둔갑술을

日就月將 다뎌후에

出世로다 맞이할때

初立으로 翰林學士

參議參判 都承旨며

八道監使 六曹判書

고루고루 다지낸 후
 左右政丞 자낸 후에
 一人之下 萬人之上
 領議政을 지냈으니
 靑史에 그 이름이
 千秋萬代 遺傳하니
 거리마다 善政碑요

마을마다 頌德碑니
 근돌아니 좋으리까
 글란그리 하거니와
 부억治裝 살펴볼때
 부억門을 열뜨리고
 竈王治裝 살펴보니
 慶尙道에 웅솔이며
 忠淸道에 가마솔이

열두채씩 쌓여있고
 春夏秋冬 二十四節氣
 二層三層 床들은
 네 귀맞춰 늘어놓고
 廣州分院 도자기에
 安城유기 맞춤그릇
 은반상기 늘어놓고
 양푼대야 수십벌에

金著銀著 수백죽에
 慶南山淸 조래미는
 구석구석 달려있네
 靑山特産 술자루는
 대롱대롱 매달리고
 산중에 난 함지박에
 들에서 난 광주리는
 저리도 칩칩 쌓였구나
 金石木土 家財道具
 구석구석 쌓였으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글란그리도 하래니와
 垓主治裝도 하여보자
 후원을 돌아오니
 前後左右 화단인대
 온갖화초 심었구나
 홍국백국 백일홍에
 난초지초 온갖앵초

부용작약 목단화에
 청실홍실 대부송에
 군자란에 머루다래
 여기저기 심어놓고
 이화도화 봉선화에

춤잘추는 능수버들
물잘드는 치자목을
여기저기 심었으니
무릉도원 분명구나
화단주위 둘러보니

화단옆에 연못과고
연못안에 초당짓고
초당을 불작시면
孝子忠臣 烈女孝婦
종일위시 놀았으니
垚主治裝 종을시고
花草속의 못새들은
春風弄月에 짝을지어

壽命長壽 노래하고
연못속의 봉어들은
富貴功名을 자랑하네
靑鶴白鶴 춤을추고
기린봉황 넘나들때
앵무공작은 노래하고
門前에서 짓는개은
失物之厄 막아내고
햇대끝에 우는닭은
三災八亂 막아주고

豚舍안에 도야지는
 火災之厄 막아줄때
 마굿간의 牛馬들은
 人間五福을 들일적에
 高台廣室 富貴功名
 南田北畝 널렸으니

근들아니 종으리까
 孝子忠臣 烈女孝婦
 萬代子孫 富貴功名
 至誠으로 發願하니
 근들아니 종으리까
 今戚家中 大主마님
 所願成就 發願한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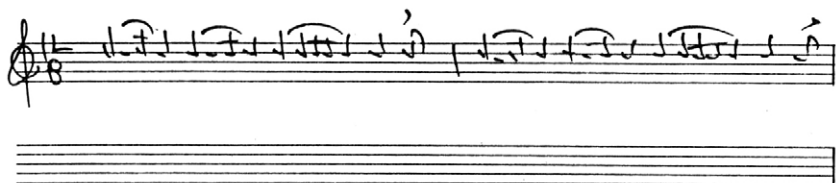
夫婦百年 해로하고
 子孫滿堂 富貴功名
 百子千孫 子子孫孫
 巨富長者 所願成就
 應天上之 三光하고
 非人間之 五福일랑
 고루點指 하옵소서

人間的 命과福을
 點指次로 發願할때
 堂上父母는 千年壽요
 膝下子孫은 萬威榮이니
 代代孫孫 富貴功名
 今日今時 發願이요

위에 記錄한 告祀德談에서 나타나듯 巫經의 辭說은 體系的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專門人이 아닌 마을의 技藝人이 부르는 告祀唱의 경우 歌唱者의 力倆에 따라서 그 辭說이 심하게 變化되어 口誦되고 있기도 한다.

이 告祀德談은 굿의 過程에서 口誦될때는 辭說의 全體가 誦經者에 의해서 북과 ฆ과리의 長短에 맞추어 계속해서 連誦되고 있으나 年初에 나타나는 地神밧기나 乞粒 등의 儀式에서는 짧은 時間에 洞里內의 여러 집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辭說의 全體를 長時間에 걸쳐서 口誦하기가 어려우므로 唱者는 上記의 辭說을 部分 部分 발췌해서 口誦하게 되는데 그 順序는 太平聖代, 흥수풀이, 달거리, 농사풀이의 순서로 나타나게 되며 行動에 편리를 위해서 ฆ과리만으로 사잇가락을 치면서 德談을 한다.

〈사이가락〉



(4) 巫 經

한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의 研究를 위해서는 먼저 그 地方에서 口誦되고 있는 巫歌나 巫經을 研究하여야 한다.

대개의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는 娛樂謠나 婦女謠 或은 합성에 가까운 遊戲謠를 제하면 作業的 俗謠나 巫俗性을 띠우고 있는 儀式謠 등의 辭說을 보면 대개 그 地方에서 나타나는 巫歌나 巫經의 辭說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韓國의

傳來 習俗의 대부분이 傳統信仰인 巫俗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러한 巫俗에서의 辭說을 그것이 專門性을 띠우고 語句가 體系的인데 비해 俗謠의 경우에는 그때 그때 必要에 의해서 辭說의 變化가 오게되며 더욱 歌唱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巫歌(巫經)와 俗謠와의 差異로 보아야 할 것이다.

瑞山地方의 경우에는 忠淸道의 歙인 歙을거리의 歙에서 나타나는 巫經과 풍어굿 등에서 外地에서 請願되었거나 西海岸과 南海岸에서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는 선굿이 있어 比較的 巫儀式의 過程에서 口誦되는 辭說이 多樣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이 地域의 俗謠에 影響을 끼쳐 이 地域의 俗謠의 辭說이 旣 地方에 비해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巫儀式의 形態는 대개 선굿과 앉은굿으로 區分지어 지며 선굿은 漢水 以北에서 주로 나타나는 形態로써 旋律樂器인 大笊이나 奚琴 혹은 簫簫과 打樂器인 杖鼓와 鉦, 바라 등에 맞추어 巫覡이 서서 巫歌를 부르거나 巫舞를 추고 神의 이야기를 人間에게 전하는 公事(人間에게 내리는 占卦)를 위주로 進行하게 되며 이때는 神과 人間과의 中間에게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앉은 굿에서는 誦經者가 歙床 앞에 앉아서 북과 桴과리를 치면서 神을 誦祝하는 經文을 口誦하므로 해서 人間에게 많은 福을 줄것을 請願하는 形態이다. 이때 나타나는 巫經은 대개 佛經의 文句를 많이 引用하게 되며 音律은 口誦의 形態이므로 高低의 變化가 없이 매우 單調롭게 表現되고 있으며 巫歌는 旋律樂器의 伴奏에 맞추어서 巫歌를 부르기 때문에 高低의 變化는 심하나 辭說의 內容은 巫經과 같이 體系的이지 못하고 그때 그때 接神의 狀態에 따라 辭說이 變化하기도 한다.

忠淸道의 앉은굿에서는 經文을 口誦하기 때문에 대개는 有能한 巫覡를 말할때는 一淸, 二鼓杖, 三文書로 稱하는데 첫째는 淸音이

맑고 깨끗하여 듣는이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單調로운 經文만을 계속 口誦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주지않도록 長短의 變化가 자주 있어야 하며 셋째는 經文의 辭說이 좋아서 神에게 드리는 請拜가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얹은곳에서 口誦되는 經文은 대개 太乙保身經, 不諍經, 祝願文, 竈王經, 地神經, 城主經, 帝釋經, 祖上經, 神將, 內殿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派生되는 經文을 모두 합하며 30여 가지에 이르게 되고 그 經文을 모두 口誦하려면 18~24시간 정도를 소요하게 된다.

最近에 들어서는 社會的으로 傳統的인 巫儀式에 대해서 迷信이나 偶像崇拜라고 지탄을 하기 때문에 많은 經文이 省略되고 있으며 經文의 辭說의 變化도 오고 있는 實情이다. 瑞山の 얹은거리들이 口誦하는 經文의 辭說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太乙保身經

황천생아 황지생아

일월조아 성진령아

제신고아 사영여아

태을임아 옥신동아

삼강보아 삼관신아

오제동아 북극상아

남두제아 금동시아

옥녀배아 옥갑진아

육정진아 천문괘아

지오동아 상덕용아

강하도하 풍운순아
 뇌전조아 팔괘준아
 구궁순아 음양종아
 오행신아 사시령아
 명책조아 하명착아

태상현전 승공승강
 무궁불식 금반옥잔
 자구개지 허법일월
 여천위서 은표성구
 소구자득 소향자형
 소유자합 소목자성
 종종병화 여도합신
 하신불복 하명불행

전지주작 후지현무
 좌지청룡 우지백호
 상정화개 하섭기강
 애아자생 오아자멸
 회아자사 증아자망
 영동신여 삼백육십상좌야
 방적설방부 여아동유
 태상섭아 경천대길
 음 급급여울령 사바하

2) 不 淨 經

天上不淨 除不正

地下不淨 除不淨

遠家不淨 除不淨

近家不淨 除不淨

大門不淨 除不淨

中門不淨 除不淨

牛馬不淨 除不淨

葬死不淨 除不淨

問喪不淨 除不淨

天上地下 遠家近家

牛馬葬死 大門不淨

一時로 消滅할때

東方에 드는 靑帝不淨

三八木으로 막아주고

南方에 드는 赤帝不淨

二七火로 막아내고

西方에 드는 白帝不淨

四九金으로 막아주고

北方에 드는 黑帝不淨

一六水로 막아내고

中央에 솟는 黃帝不淨

五十土로 막아낼때

東方甲乙 드는不淨

靑帝將軍이 막아주고

南方丙丁 드는不淨

赤帝將軍이 막아주고

西方庚申 드는不淨

白帝將軍이 막아주고

北方壬癸 드는不淨

黑帝將軍이 막아내고

中央戊乙 솟는不淨

黃帝將軍이 막아줄때

天地間에 모든不淨

一時에 消滅하라

음 급급여 율령 사바하

3) 祝 願 文

不淨經 發願한 後

祝願文 連誦이요

북원천존 자비하시며

건곤이 증연후에

음양청탁지간과 오덕지중에

수화상내하여 일체축원은

인생언하니

생내자연이 생하고

장내 자연이 장하고

喪即 自然이 喪하고

生即 自然이 生하고

老即 自然이 老하고

病即 自然이 病하고

死即 自然이 死하니

世上 말하기를

人多는 生하고

人多는 死하고

人多는 老하고

人多는 病하니

人多는 凶하고

人多는 疫疾하고

人多는 客死하고

人多는 橫死하는고로

八方命除 時節에

西域佛法이 遍中國하여

海東朝鮮에 들어와서

救濟衆生하고

死中救生하시며

絶體縫生하여

끊어진 命은 이어지고

病者는 即差하고

貧賤者는 福과 貴를 주고

無在子는 得男成就하려고
 西天 西域國 들어가서
 釋迦如來의 佛法으로
 八萬大藏經을 대문대문 엮어다가
 化전공덕을 내리실때
 東西南北 中央이 相通하여

사바세계 南鮮府州
 海東은 大韓民國
 忠淸南道 瑞山郡 ○○面 ○○里
 ○氏 明堂에 돌아들어
 安過太平 시킬차로
 所願成就 發願이요

※ 〈註〉

上記의 太乙保身經, 不淨經, 祝願文은 安宅굿의 처음에 誦經者가 連誦으로 口誦하게 되며 太乙保身經은 굿을 進行함에 있어 굿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몸을 保護하는 經文이며 不淨經은 모든 사람들의 不淨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옳바른 굿이 되기를 바라는 데서 口誦하는 經文이고 祝願文은 굿儀式이 좀더 德을 많이 보기를 頌祝하는 經文이다.

太乙保身經, 祝願文, 不淨經은 굿의 各過程의 처음에 恒時 連誦을 하게되며 그만큼 굿이 더 德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 세 經文에서 나타나는 長短의 가락은 다음과 같다.

4) 龍 王 經

祝願文 連誦한 後

龍王經으로 發願이요

龍王經을 發願할때

어느조왕 나오시나

범춘조왕 범천조왕

범속조왕 제석조왕

용진조왕 달진조왕

성진조왕 호진조왕

일광조왕 월광조왕

대자조왕 진부조왕

진우조왕 진담조왕

도시조왕 변성조왕

초강조왕 염라조왕

전륜조왕 평등조왕

오관조왕 대산조왕

진광조왕 송제조왕

삼신조왕 터두조왕

성주대왕 우마조왕

대감조왕 창부왕

상파퇴제조왕신 의금신왕조왕신

의평지라조왕신 금강역독조왕신

금홍관신조왕신 아미아상조왕신

각진신왕조왕신 소길팔나조왕신
 부군신왕조왕신 북보근라조왕신
 각진신왕조왕신 소길팔나조왕신
 부군신왕조왕신 북보근라조왕신
 상량파주조왕신 삼천구토조왕신
 금악대상조왕신 십이호상조왕신
 매액매국조왕신 삼천중신조왕신
 도솔천명조왕신 대감부인조왕신
 삼천상리조왕신 택신지주조왕신
 좌보우부조왕신 공천삼리조왕신
 유계천녀조왕신 좌은우온조왕신

상천부인조왕신 백고부인조왕신
 천재부인조왕신 나라군신조왕신
 돌상고려조왕신 육갑부모조왕신
 조석치모조왕신 달시역사조왕신
 천존지부조왕신 명분선악조왕신
 목신화신조왕신 수신토신조왕신
 십이토금조왕신 나무서방금왕신
 나무남방화왕신 나무동방목왕신
 나무북방수왕신 나무중앙토왕신
 나무동방조왕신 나무남방조왕신
 나무서방조왕신 나무북방조왕신
 나무천상조왕신 나무지중조왕신

나무상계조왕신 나무중계조왕신

나무하계조왕신

나무삼천호리 조왕신

나무칠만백호 조왕신

나무사천만호 조왕신

나무육천만호 조왕신

나무팔만사천 조왕신

액해중신 액하중신

액정중신 액운중신

복룡택룡 액조중신

상당회호 일유신영

무유홍화 만은택중

부귀길창 개실소멸

현관구설 수구개득

현관구설 일시소멸

나무아미타불

※〈註〉 安宅곳에서 실질적으로 神에게 誦祝하는 처음의 經文은 竈王經이다.

조왕경은 부엌의 神인 조왕신에게 請願하여 집안의 安過太平을 비는 것으로써 이 조왕경은 부엌에서 經文을 口誦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巫俗에서는 이 조왕신은 火神으로 不淨을 태워버리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제일 먼저 이 조왕경을 읽어서 곳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 조왕신은 그 집안의 食福을 관장한다고도 믿고 神位의 옆에 집을 떠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주 발에 밥을 담아 놓아 두기도 한다.

2) 地 神 經

흔히 岱主神을 위하는 이 過程에서는 집 뒤편에 있는 터주가리 앞에 床을 놓고 祭物을 陳設한 後에 촛불을 밝히고 經文을 口誦하는데 이때는 地神謠, 明堂經, 堂山經, 働上經 等を 口誦한다.

이 岱主神은 後土主任, 岱主大監, 土主神 等으로 불리워지며 흔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不詳事(働上)를 막기위한 經文과 이 터가 明堂이기 때문에 安過太平하고 富貴功名하며 子孫昌盛하기를 바라는데서 誦祝하는 經文이다.

이 中에서 明堂經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어화世上 天地를 만드시고

天地를 開創後에

萬物이 自生할때

崑崙山 一枝脈이

이남맥에 떨어져서

朝鮮國이 생겼는데

朝鮮國을 둘러보니

錦繡江山 分明도다

錦繡江山 생겨날때

十勝地之 없을손가

十勝地之 찾으려고

別有天地 찾아들어

前後左右 살펴보니

무릉도원 여기로다

무릉도원 생겨날때
明堂奇址 없을손가
明堂奇址 찾으려고
八道地官 불러들여
금구쇠를 손에 쥐고
洞山後園 올라서서
전후좌우로 살펴볼때
東便을 바라보니
東方靑帝 大將軍은
三八木을 應하여서

子孫峯을 비쳤으니
膝下子孫은 萬歲榮이요
南便을 바라보니
南方赤帝 大將軍은
二七火로 應하여서
文筆峯이 비쳤으니
文章才士 날것이요
西便을 굽어보니

西方白帝 大將軍은
四九金을 應하여서
財物峯이 비쳤으니
億萬長者가 날것이요
萬柘巨富 날것인데

北便도 바라보니
 地方黑帝 大將軍은
 一六水를 應하여서
 長壽峯이 層이졌으니
 堂上白髮 父母님은

壽命長壽 할것이요
 中央을 바라보니
 中央黃帝 大將軍은
 五千土로 應하여서
 日月峯이 비쳤으니
 今此家中 一門春風
 日月같이 밝히시어
 安過太平 시킬테니

이런明堂 어데있으며
 이런奇址 어데있을까
 나비明堂 부릴터전
 부릴明堂 나비터전
 삼태육성이 分明하니
 역역히도 가려내어
 東西南北 役君불러
 地點이를 다굴적에
 三綱五倫 터를뒹고
 崑崙山에 玉을캐어

萬年柱軸 묻어놓고
 봉래 산에 손을베어
 下龍落鳩로 上樑하고
 八卦連木 걸어놓고
 六十四號 기와엮고
 二十四方 배를엮어
 五行水土로 발라놓고
 仁義禮智로 장판하고
 원령이전 도배하고
 요지日月 반자눌러
 純至乾坤 단청한후

高台廣室 높은집에
 百子千孫 탄생할때
 있는아기는 壽命長壽
 없는아기는 點指하여
 男子子孫 낳거들랑
 孝子忠臣 생겨나고
 子女子孫 낳거들랑
 孝婦烈女 點指하여

金枝玉葉 貴한子女
 日就月將 자라날때
 花鳥月石 좋은時節
 웃음으로 맞이하여
 매봉가절 즐거울땐

웃음으로 즐거웁고
 梧桐服板 거문고는
 年豐歌를 노래하고
 花樂茶耽 노닐적에
 천일미주를 가져다가
 고량진미로 안주삼아

일배일배 부일배에
 삼배주로 전주할때
 堂上白髮 늙으신父母는
 萬壽安康 하옵시고
 洞園桃李 片時春에
 萬物始生 春節이니

堂上白髮 늙으신父母
 春秋精誠 하옵시고
 綠陰芳草 盛夏時는
 萬物蒼陽 夏節이니
 膝下子孫 어린아이들
 芳草같이 자라나고

秋菊枌楓 가을철은
 萬物誠實 秋節이니
 東西南北 쌓인財物
 虛空中天 쌓인財物
 落葉같이 쏟아질때
 白雲紛紛 銀世界는

萬物開場 冬節이니
金銀玉白 좋은財物
前後左右 쌓아두고
太平聖代 누릴적에
明堂덕택 아니리카
明堂祝願 發願할때
天王大地는 壽命長壽요
壽命長壽는 빌어다가

이 明堂에 點指하고
地王大地는 萬福地요
萬福地도 빌어다가
이 明堂에 點指하고
人王大地는 淨福數요
淨福數도 빌어다가
이 明堂에 點指하고
東方木星은 安心地요

平安安字 빌어다가
이 明堂에 點指하고
南方火星은 熱火地요
熱火地도 빌어다가
이 明堂에 點指하고
西方金星은 富貴地요
富貴地도 빌어다가
이 明堂에 點指하고

北方水星은 露丘地요
 露丘地도 빌어다가
 이 明堂에 點指하고
 中央五星은 壯嚴地요
 그 壯嚴地 빌어다가
 이 明堂에 點指하면
 이 宅家中 四北春風
 安過太平 시키실때
 一白二黑은 萬歲地
 三白四綠은 依服地

五黃六靑은 天財物
 七赤八白은 地財物
 露積처럼 쌓였구나
 이 明堂 이터전에
 壽命長壽 富貴功名
 암불담불 쌓여갈때
 九字地神은 得吉人
 五方神將은 露丘地

靑龍白虎는 得牛馬
 玄武朱雀은 住食福
 明堂奇址는 富貴地
 三災八亂 消除殺
 이明堂에 點指할때

萬歲萬歲 數萬歲

數萬歲를 벌어가

이明堂에 點指할때

千里明堂 쓸어트리고

萬里明氣 끌어들여

東西南北 虛空中天

곳곳에도 흐르는財物

이明堂에 모아들여

쓰고남게 點指하고

먹고남겨 點指하고

입고남게 點指할때

安過泰平 시키시고

富貴功名 壽命長壽

고루고루 點指次로

이明堂에 坐定하시라고

至誠으로 發願이요

2) 城 主 經

世上天地 萬本中에

城主本郷 어디메요

天下國이 本郷이니

城主大監 나을적에

鴨綠江을 건너서서

大韓國에 當到하니

東에는 太白이요
 西에는 三角이요
 南에는 智異山에
 北에는 白頭에 다
 中央에 鷄龍인데
 平安道라 접어들어
 檀君千年 箕子千年

二千年을 治國하니
 第一江山 생겼도다
 大洞江 浮壁樓에
 城主大監 坐定하시고
 漢陽城中 돌아들어
 地勢를 살펴보니
 道峯山이 落脈하여
 仁旺山이 主山이요

南山은 案山이니
 漢江은 潮水되니
 東赤江의 水口막아
 千年都邑 이아니냐
 億萬長安 돌아들어
 城主大監 坐定한후
 松都의 송덕산은
 王建太子 都邑이니

城主大監 坐定이요

三南으로 내리달아

慶尙道라 慶州는

朴氏大王 基址되어

八百年의 治國이니

城主大監 坐定한후

大韓國의 中央에는

忠淸道라 돌아들어

俗離山이 起峯하여

鷄龍山이 名山이라

扶餘城中 當到하니

百濟王의 治國이라

城主大監 坐定이라

今址 家中에도

城主大監이 어찌 없다 하오리카

今址家中에 所願成就 發願이요

今址家中에 一三은 五七九

三萬六千 城主大監님은

기뻐喜子 즐거울樂字

의롭게 感應感動을 하옵소서

城主大監 坐定하시니

天皇氏 時節에는

천애 단재를 하셔서

玉皇이 나계시고

地皇氏 時節에는

지부에 단재를 하시니

後土地神 五方岱主地神이 나계시고

人皇氏 時節에는

천호지도상 하나니

오십삼분이 나계시고

유소씨 時節에는

구목위소하여

집짓는 법을 마련하니

三萬六阡 城主大監

世出하시더니

유인씨 時節에는

손수생 화하여

교인 화식을 하였으니

八萬四阡 제대 화왕대신이

나시더이다

태호 복희씨는 世出하여

河圖落書와 九宮八卦 마련하니

팔대 장신이 나계시고

마당에는 마대 장군

굴뚝에는 굴뚝장신

지붕위에는 용초부인

마굿간에 六畜大神

변소간에 廁神將軍

內外門에 水門大將

土主地神 明堂神將

四中八身 立柱土樑이

大吉昌盛하니

三萬六阡 城主大神

城主判官 十二城主

天鼓請兵 하옵시고

일일이 坐定하니

十方氣運은 消滅하고

東方에 木德眞君 請來하여

破木之厄 消滅하고

南方에 火德眞君 請來하여

火災之厄 消滅하고

西方에 金德眞君 請來하여

鐵物之厄 消滅하고

北方에 水德眞君 請來하여

水災之厄 消滅하고

中央에 土德眞君 請來하여

働上之厄 消滅할때

四海龍王은 請來하여

水江道場을 點指할때

海東은 大韓國

忠淸南道 瑞山郡

○○面 ○○리에

今址家中 돌아들어

城主大監 坐定하니

○氏家中 一門春風

官災口舌 三災八亂

一時에 消滅하라

옴 급급여 율령사바하

※〈註〉 韓國의 巫俗에서는 家屋의 어느곳이나(사람이 居住하던 안하던 간에)그 집안을 지키는 城主神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는데 이 城主神은 家神 中에서 으뜸으로 그 집안의 모든 神을 거느리며 집안의 吉凶禍福과 富貴貧賤, 生老病死에 대해서 관장한다고 믿는다.

이 城主神은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대들보나 기둥에 자리하고 있는 理由도 집안을 지켜 나가는 神이기 때문이며 各種 民俗놀이에서도 이 大廳곳을 가장 重要하게 알고 있으며 巫儀式에서도 大廳에서 상을 차례놓고 이 城主神을 위하는 儀式을 함으로도 알 수 있다.

7) 祖 上 經

祖上經 發願이요

先亡祖上 後亡祖上

先代祖上 神位님네

祖上解冤 받으소서

이승의 上甲은 甲子甲이요

저승의 上甲은 庚子甲인데

庚午辛未 壬申癸酉 甲戌乙亥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이요

庚午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에 매였던가

第一殿에 秦光大王

秦光大王에 매여있어

刀山地獄 마련인데

그大王을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면

인정쓸것 없다 하지말고

적삼벗어 인정쓸때

그 적삼 입힌뜻은

무슨뜻으로 입혔을까

영결종천 運命時에

招魂三聲 들어보면

回生할길 있다기에

적삼벗어 招魂부르고

적 적삼을 입혔으니

그使者님 따라가서

王候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戊子乙丑 庚寅辛卯 壬辰癸巳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이요

戊子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 매였나요

第二殿에 初江大王

初江大王 매여있고

鑊湯地獄 마련인데

그大王님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거든

인정없다 하지말고

도포벗어 인정쓸때

그도포 입힌뜻은

무슨뜻으로 입혔을까

세상천지 남자되어

도포한번 못입으면

저승원문 어찌갈까

구천객귀 된다하기

그도포를 입혔으니

도포벗어 인정쓰고
 그使者님 따라가서
 王候將相 福德歌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壬午癸未 甲申乙酉 丙戌丁亥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인가
 壬午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 매였나요
 第三殿에 宋帝大王
 宋宰大王에 매여있고
 寒水地獄 마련인데
 그大王님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면

인정없다 하지말고
 신발벗어 인정쓸때
 使者床에 놓인신발
 무슨뜻으로 놓았는가
 태산준령 넘어갈때
 가시들까 염려되어
 그신발을 놓았으니
 태산준령 다넘은후
 신발벗어 인정쓰고

그使者님 따라가서

王候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甲子乙丑 丙寅丁卯 戊辰乙巳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인가

甲子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 매여있나

第四殿에 五官大王

五官大王에 매여있고

劒樹地獄 마련인데

그大王님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거든

인정없다 하지말고

고갈벗어 인정쓸때

그고갈 씌운뜻은

어떤뜻으로 씌웠을까

살아生前 이 世上에

善心功夫 해봤다고

念佛功德 한연후에

그고갈을 씌웠으니

그고갈벗어 인정쓰고

그使者님 따라가서

王候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庚子辛丑 壬寅癸卯 甲辰乙巳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이요

庚子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 매였나요

第五殿에 閻羅大王

閻羅大王에 매여있고

撥亂地獄 마련인데

그大王님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면

인정쓸것없다 하지말고

저돈집이 인정쓸때

저기다가 놓은돈은

무슨뜻으로 놓았을까

영결충철 가는길에

인정이라도 써보라고

저돈을 놓았으니

저돈집에 인정쓰고

저使者님 따라가서

王侯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丙子丁丑 戊寅巳卯 庚辰辛巳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인가

어느大王에 매여있나

第六殿에 變成大王

變成大王에 매여있고

毒蛇地獄 마련인데

그大王님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면

인정쓸것없다 하지말고

面幕手벗어 인정쓸때

그면막수 썩운뜻은

살아生前 이세 상에

착한일은 적게 보고

악한일을 많이보았다고

그면막수 썩웠으니

면막수없어 인정쓰고

그使者님 따라가서

王候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甲午乙未 丙申丁酉 戊戌乙亥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인가

甲午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 매었나요

第七殿에 泰山大王

泰山大王에 매여있고

挫磨地獄 마련인데

그大王을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면

인정쓸것없다 하지말고

장담풀러 인정쓸때

장당一幅 매인뜻은

무슨뜻으로 매었는가

영결종천 돌아갈때

장담一幅 없으며는

의지할곳 없다기에

그장담을 매었으니

장담풀러 인정쓰고

그使者님 따라가서

王候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丙午丁未 戊申巳酉 庚戌辛亥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인가

丙午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에 매여있나

第八殿에 平等大王

平等大王에 매여있고

攤擲地獄 마련인데

그大王도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며

인정달라 소리치면

인정쓸것없다 하지말고

조발랑벗어 인정쓸때

그조발랑 채운뜻은

무슨뜻으로 채웠는가

晝夜不息 돌아갈때

손톱발톱 닳을까 염려되어

그조발랑 채웠으니

조발랑벗어 인정쓰고

그使者님 따라가서

王候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壬子癸丑 甲寅乙卯 丙辰丁巳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이요

壬子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 매여있나

第九殿에 都市大王

都市大王에 매여있고

鐵床地獄 마련인데

그大王도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면

인정없다 하지말고

동신결 끌러 인정쓸때

이동신결 매인뜻은

무슨뜻에 매었을까

母上天地 人間몸으로

동신결 한번 못매보면

人道幻生 못한다기

그동신결 매었으니

그것풀러 인정쓰고

그使者님 따라가서

王候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戊午巳未 庚申辛酉 壬戌癸亥 여섯甲은

어느甲이 上甲인가

戊午甲이 上甲인데

어느大王 매였는가

第十殿에 轉輪大王

轉輪大王에 매여있고

黑暗地獄 마련인데

轉輪大王 찾아가면

守門使者 썩나서서

인정달라 소리치면

인정쓸것없다 하지말고

백배사죄 하올적에

人間世上 하직하고

저승에 當到하여

어느大王에 인정쓰고

어느大王에 예정쓰나

十大王에 當到하여

적수공신 되었으니

인정쓸것 전혀없고

예정쓸것 없다하면

저使者님 하는말이

저山을 넘어가면

念珠밭이 나올테니

念珠밭을 매고가면

저승길이 밝으리라
 念珠밭을 다맨後에
 王候將相 福德家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저기오신 저祖上
 저기오신 저魂身
 길을몰라 못가셨나
 인정없어 못가셨나
 인정없어 못가셨거든
 저돈집에 인정쓰시고

길을몰라 못가셨거든
 路程帋를 드릴테니
 路程帳를 받아갖고
 매인大王 찾아갈때
 天運指揮 받아들고
 月岳山을 넘어가면

兩岐小路 나올테니
 左便小路 가신다면
 往生極樂 가는길이요
 右便小路 가신다면
 黃泉地獄 가는길이
 右便小路 저버리고
 左便小路 접어들어

往生極樂 가실때에
가다가다 저물어도
山中엘랑 들지마오
五岳山神 罰받으면
往生極樂 못가리다
가다가다 저물어도
물가에는 서지마오

四海龍王 罰받으면
往生極樂 못가리다
가다가다 저물어도
距里路上 서지마오
火德眞君 罰받으면
往生極樂 못가리다
가다가다 저물어도
父母집에 들지마오
妖妄鬼가 罰받으면

往生極樂 못가리다
가다가다 저물어도
子孫집엔 들지마오
老妄鬼가 罰받으면
往生極樂 못가리다
가다가다 저물어도
同氣집에 들지마오
怨魂鬼가 解冤받아
往生極樂 못가리다

가다가다 저물어도
 親舊집엔 들지마오
 뜬客鬼가 罰받으면
 往生極樂 못가리라
 往生極樂 머나먼길
 不息晝夜 돌아갈때
 日落西山에 해가지고
 月出東嶺 달이웃아
 日夜宿泊 곤란커든
 적벽강 秋夜月에

소자점의 놀았으니
 거기서 잠깐 쉬어가오
 계명산 추야월에
 장자방이 놀았으니
 거기서 잠깐 쉬어가오
 가다가다 저물거든
 소상감 대밭속에
 아황여영이 놀았으니

거기서 잠깐 쉬어가오
 往生極樂 머나먼길
 月岳山을 넘고보면
 往生極樂이 거기오니
 어느大王에 매였는가

어느甲子에 매였는가
어느使者에 매였는가
매인곳을 따라가서
八道幻生 하시라고

열두大王 불을밝혀
往生極樂 인도할때
저기오신 저祖上은
誦經祝願 받으신후
六十甲子 길을찾아

서수천명 가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南無阿彌陀佛
南無阿彌陀佛

※ 〈註〉 祖上經의 經文은 앓은거리 굿儀式 中에서는 가장 많은 辭說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거리와는 달리 앓은거리에서는 이 祖上經에서 中點的으로 천도를 시키고 이 조상들의 천도는 곧 그 집안의 安寧과 密接한 關係가 지어지기 때문이다. 앓은굿에서의 祖上經에서는 祖上들의 천도를 위해서 많은 經文이 口誦되는데 앞에 記錄한 祖上經 外에도 六甲에 맞추어 맺힌 恨을 풀어 천도시키는 六甲解冤과 젊어서 죽거나 非命橫死한 祖上을 위해서 천도시에 口誦하는 請誦(淸聲)解冤 等 많은 經文이 口誦되고 있으나 이 中에서 가장 많이 使用되는 六甲解冤과 淸誦解冤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六甲解冤

甲子乙丑 海中金

金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망망창해 황금되니

인간이별이 적막하구나

이세상에 태어나서

백년한을 못다풀고

죽어지니 허사로다

南無阿彌陀佛

丙寅丁卯 欄中火

火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노상천변 타는불이

변화중에 불이되어

무주고혼 분별하리

원심분심 풀으시고

극락왕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戊辰己巳 大林木

木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음울창창 임하혼의

무월공산 적막하니
 원심분심 풀으시고
 왕후장상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庚午辛未 路傍土는
 土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한번아차 죽어진몸
 거리중에 누웠으니
 오고가는 행인중에
 어느누가 문상하며
 어느누가 조상하나
 원심분심 풀으시고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壬申癸酉 劍棒金
 金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전망장군 죽은넋이
 칼날같이 품은마음
 풀해자로 풀으시고
 왕생극락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甲戌巳亥 山頭火는
火生男女 원혼인데
이신장군 사자되어
봉화불을 전하던가
천지같은 우리부모
요내일신을 곱게 길러

효자충신 보라하고
금지옥엽 기르더니
가련할손 저조상님
보지못해 원심되니
원심분심 풀으시고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丙子丁丑 澗下水는
生水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심산벽계 흐르는물
굴삼녀의 충혼심을

누구라서 알리었나
구비구비 솟아나니
인간전혀 볼수없네
원되었고 분되었소
원심분심 풀으시고

왕생극락 돌아가서
 왕후장상 부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戊寅巳卯 城頭土는
 土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석토성을 이별한후
 망실탑이 서럽구나

한번아차 죽어진몸
 북망산천 누웠으니
 일락서산 해는지고
 월출동령 달돈아도
 독수공방 처량하오
 원있으면 원을풀고
 한있으면 한을품고
 왕생극락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庚辰辛巳 白臘金은
 金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백납같이 귀한몸이

병화중에 죽어지니
가련하여 못보겠네
저기오신 저조상님
저기오신 저혼신님
원심분심 풀은후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不

壬午癸未 楊柳木은

木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양류청청 그늘속에

허송세월 보내다가

세우춘풍 가는비에

눈물지어 젖었으니

근들아니 원이되며

근들아니 분되리까

원심분심 풀으신후

극락왕생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甲申乙酉 泉中水는

水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나

우물속에 어돼 같이
 창해소식 망연하니
 어찌아니 원되리카
 원심분심 돌으시고
 왕생극락 풀아가서
 왕후장상 부덕가에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丙戌丁亥 屋上土는
 土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나
 터주지신 분부하여
 우로지택 끊겼으니
 어이하오 어이하오
 근들아니 원되리요
 원심분심 풀으시고

왕생극락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戊子己丑 霹靂火는
 火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어찌하여 한되었소

번개 같이 빠른세월
이팔청춘 젊은몸이
어느세월 여류하에
홍안백발 되었으니
그아니도 원되리오

원있으면 원을풀고
분있으면 분심풀고
왕생극락 돌아가서
왕후장상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庚寅辛卯 松柏木은
木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청송록죽 아니거든
발설한풍 어이하며
서산으로 지는해는

명일아침 다시돌고
동령에 돌던달도
명일명야 다시돌아
만산평야 비치건만
우리같은 인생이야
한번아차 죽어지면

다시오기 어려우니
그아니나 원되리요
원심분심 풀으시고
인도한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壬辰癸巳 金箔金은
金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한되었소
이팔청춘 호시절에
진주금박 하직하고
황천객이 되단말가
그아니나 원이되고
그아니나 분이될까

원있으면 원심풀고
분있으면 분심풀어
왕후장상 복덕가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甲午乙未 沙中金은
金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백사장에 묻힌금이
어느세월 다시나서
人間손에 돌아보며

백사장에 문헌몸이
어느누구 문상받아
극락왕생 할까보나
원심분심 풀으시고
왕생극락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丙申丁酉 山下火는
火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산하고촌 저문날에
일편고등 회향하니

어찌아니 원되리까
원있으면 해원으로
분있으면 분을풀어
왕생극락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戊戌己亥 平地木은
木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나
평지광야 넓은천지
화도회총 더욱섭소
어찌원이 아니겠소
해당화야 해당화야

명년삼월 봄이되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한번아차 죽어진몸
 돌아올길 전혀없어
 원이되고 한이되니
 원도풀고 한도풀어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庚子辛丑 壁上土는
 土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한이되고
 어찌하여 분이됐소

이한가중 양주부처
 금실좋은 내외조상
 한번아차 죽어져서
 노천으로 갈렸으니
 칠월칠석 견우직녀
 우리마음 알아줄까

분벽사창 좋은집에
 문전옥답 다버리고
 죽어지니 허사로다
 다시올길 전혀없네
 원이되니 분이되니

그원그분 다풀고서
극락왕생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壬寅癸卯 長流水는
水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영천장강 흐르는물

한번가면 못오듯이
가련하다 우리인생
북망산천 돌아갈때
형제들이 많다해도
어느구가 대신가며
부모처자 있다해도
나와동행 해주려나
어이할꼬 어이할꼬

북망산천 머나먼길
나혼자서 돌아가니
다시오진 못하리오
원도되고 분도되고
분도되고 원도되고
원심분심 풀으시고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甲辰乙巳 覆燈火는
火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추월삼경 깊은밤에
어느누가 함께하나

저두견새 슬피울어
잠든이몸 깨우고는
함께하지 못하거든
검검잔등 걸려있어
처량하고 애통하오
원심분심 풀으시고
왕후장삼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丙午丁未 天下水는
水生男女 원혼인데
어이하여 원되었소
칠월이라 칠석일에
견우직녀 상봉시에
은하수가 막혔으니
오작교를 건너서서
일시상봉 하여다가
만단설화 나누건만

우리같은 가는인생
 누굴만나 얘기하며
 누굴와서 함께하나
 원도깊고 분도깊어
 홀로눈물 짓는구나
 원심분심 풀으시고
 극락왕생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戊申己酉 大驛土는

土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이되고
 어찌하여 분되었나
 千里길이 멀다해도
 가고보면 지척이요
 오늘청춘 젊다해도
 내일오니 백발인데
 멀다하던 황천길이

대문밖이 황천이라
 어찌원이 안되리까
 원심분심 풀으시고
 왕생극락 돌아가서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庚戌辛亥 釵釧金은

金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이되고

어찌하여 분되었나

선남선녀 상봉하여

귀밑머리 마주풀고

백년해로 하자더니

금봉차와 옥지환을

누구에게 전하리까

그도원이 될것이니

원심분심 풀으시고

완생극락 돌아가서

왕후장상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壬子癸丑 桑梧木은

木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나

살아생전 세상에서

양잠하기 소일터니

이팔청춘 젊은몸이

비명횡사 하였구나

그가슴에 맺힌한을

그늬라서 풀어줄까
원심분심 풀으시오
왕후장삼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甲寅乙卯 大溪水는
水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이되고
구곡간장 썩은눈물
구비구비 눈물이요

구비구비 한숨이니
그도원이 되시겠고
그도한이 되시겠네
원심분심 풀으시고
왕생극락 돌아가서
왕후장삼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丙辰丁巳 沙中土는
土生男女 원혼인데
어이하여 원되었소
세월무정 여류하여
백골썩어 진토되고

청춘늙어 백발되니
 일촌광음 호시절이
 남가일몽 되었구나
 그도원이 되시리니
 원심분심 풀으시고
 왕후장상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戊午己未 天上火는
 火生男女 원혼인데
 어이하여 원이됐소
 천상화류 잡아타고
 옥경으로 등장하여
 옥황전에 아릴적에
 인도환생 소원이니

소원성취 시켜달라
 장문지어 올렸더니
 인지생도 재천이요
 인지사도 재천이니
 등장함이 허사로다
 어찌아니 원통한가
 어이하리 어이할꼬
 이원심을 어이할꼬

원심분심 다푸신후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庚申辛酉 柘榴木은

木生男女 원혼이니

어찌하여 원되었소

옥창앞에 심은석류

손이닿소 안타까워

속절없이 되었구나

홍도백도 부러운꽃

낙화점점 눈물인데

인도환생 제일이라

인도환생 소원이니

왕생극락 돌아가오

南無阿彌陀佛

壬戌癸亥 大海水는

水生男女 원혼인데

어찌하여 원되었소

심산계곡 흐른장강

대해수에 당도하니

어느세월 돌아갈까

돌아갈길 막연하니

그도원이 되리로다

그원심도 풀으시고
 일엽편주 집어타고
 왕생극락 돌아갈때
 삼십육군 다버리고
 동방정토 만월세계

남방정토 화일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
 북방정토 무애세계
 중앙정토 연화세계
 왕후장상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가봅시다 가봅시다
 인간구설 듣지말고
 인간화식 좋아말고
 좋은국토 가봅시다
 극락이라 하는곳이

인간고통 전혀없고
 황금으로 땅이되고
 연못으로 대를지어
 아미타불 주인되고
 관음보살 부처되니
 사십팔원 세우시고

구품연대 버리시고
 반야용선 잡아타고
 팔보살이 호위하고
 일노보살 노를저어
 제천우막 갓은풍우
 천동천녀 춤을추고
 오색광명 널린곳에

상사대해 건너가서
 연대중이 환생하여
 무라복록 받아보세
 장하시오 저조상님
 방성통곡 해원으로
 허송세월 하지않고
 하루빨리 염불하고
 하루빨리 공덕쌓아

유실정토 찾아갈때
 유실정토 어디멘고
 인간세월 빠르도다
 묵은해는 가지말고
 새해역시 오지마오
 어린이는 소년되고
 소년지나 청년되고
 청년지나 장년된후

어느세월 노인되어
 머나먼곳 가고마네
 저기오신 저조상님
 저기오신 저혼신님

방성통곡 해원으로
 허송세월 하지말고
 악할악자 저바리고
 착할선자 염불뉘아
 선심공덕 많이한후

왕생극락 돌아가서
 왕후장상 복덕가에
 인도환생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 清 誦 解 冤

저기오신 저祖上
 저기오신 저魂身
 그무엇이 願이되어

매인大王 못가시고
 人間口舌 들으시며
 그무엇이 恨이되어

매인곳을 못가시고
 子孫揮殺 하시는가

冤있으면 冤聲으로
恨있거던 恨舌로다
冤恨之淸 말씀하면
원도풀고 한도풀어
원할지정 다푸신후
往生極樂 돌아가서
人道幻生 하신테니
冤恨之淸 말씀하오
저기오신 저祖上님
堂上白髮 늙은父母

左右에 다 모셔놓고
二八青春 젊은몸이
非命橫死 원이되어
매인곳에 못가시고
子孫揮殺 하시는가
南田北畝 종을玉土
五穀百果 심어놓고
好衣好食 못해보고

非命橫死 하셨으니
매인大王 못가시고
人間口舌 들으시며
用錢如水 좋은돈을
青春時節 못썼으니

그도아니 원되겠소
 능라금수 좋은의복
 청춘시절 입지못해
 非命橫死 원이되어
 매인大王 못가시고
 人間口舌 들으시나

怨된다고 揮殺하고
 恨된다고 질책하면
 살아있는 子孫들은
 어이하오 이한일랑
 세상살이 생각하니
 막역하기 다시없네
 제나라의 백이숙제
 수양산중 저문날에

채미가를 부르다가
 배가고파 죽었으니
 근들아니 원되리까
 원이되면 원성으로
 한이되면 한설로다
 못다풀고 가실적에
 원된단말 못드렸고
 한된단말 못드렸소
 오나라의 오자서는

萬古忠臣 이었건만
 깊은물에 몸을던져
 深水孤魂 되었으니
 근들아니 원이되며
 진나라의 屈三女는
 萬古一色 이었지만
 魚服中에 葬死되니

근들아니 원이되며
 불쌍하지 아니할까
 아황여명 두자매는
 창울山中 저문날에
 순임금을 離別하고
 동정호수 七百里에
 소상반점 눈물뿌려
 아롱아롱 피눈물이

千秋萬歲 전케하고
 痛哭絶死 하였으니
 근들아니 원이되며
 가련하다 아니할까
 漢王宮의 王昭君은
 漢宮을다 離別하고
 湖州땅에 잡혀가서
 故國山川 생각하고

不如歸가 되었으니
 근들아니 원이될까
 秦나라의 始皇帝는
 萬里長城 높이 쌓고
 阿房宮床 높이누워

不老長生 하시겠다
 童男童女 五百人을
 三神山에 보낸 후에
 학수고대 하였다가
 不死藥을 목구하고
 消息조차 끊어지니

여산영월 秋夜月에
 무추고혼 되었구나
 그도원이 아니리카
 말잘하는 蘇秦이는
 六國帝王 다달래고
 六國인을 다찾지만

閻羅大王 못달래고
 使者에게 잡혀가서
 속절없이 죽었으니
 근들아니 원이되리
 力拔山人 項羽壯士
 八千馬兵 거느리고

八年風鹿 往來더가
 계명산중 秋夜月애
 장자방의 옥통소에
 八千兵馬 흠어지고
 項羽壯士 홀로남아
 우미인의 손을잡고
 夜聲痛哭 하는말이
 勝戰鼓를 울리면서
 故國山川 가졌더니
 天地間에 調和로다

天地運을 어이할까
 우미인을 떨트리고
 오강수의 깊은물에
 投身自殺 하였으니
 근들아니 원이되며
 天下一色 楊貴妃는
 萬古一色 이었건만
 안록산의 亂을만나

唐明皇을 離別하고
 牛馬驛頭 저문날애
 꽃과같은 고운몸을
 목을매어 죽었으니
 근들아니 원이될까

저기오신 저祖上님

저기오신 저魂身은

怨이되고 恨되어도

怨된단말 하지말고

恨된단말 하지말고

善心功德 많이한후

往生極樂 돌아가서

人道幻生 하옵소서

南無阿彌陀佛

※ 〈註〉 이 上記의 經文 外에도 앞은곳에서 口誦되는 祖上經의 口誦은 많은 種類가 있으며 긴 時間을 소요하고 있다. 더욱 神將과 祖上의 공수때에도 많은 祖上들이 巫覡의 巫儀式의 形態를 빌어서 巫覡의 입을 통해서 恨을 表現하고 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천도는 선거리곳에서는 지노귀곳에서 集中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은곳에서는 安宅곳이나 祖上천도곳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은곳에서는 대개 年初에 家内の 泰平을 祈願하는 安宅곳과 亡者의 넋을 천도시키기 위해 舉行되는 천도곳. 病이 든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곳이나 神을 받기위한 내림곳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瑞山地方의 경우에는 西海와 接해 있어 生活의 根據地가 바다인 洞里가 많으므로 자연 龍王에게 bait길의 安寧과 豐魚를 祈願하는 龍王곳이나 豐魚곳이 거행되고 있다는 점이 內陸地方과 差異이다.

이 龍王굿은 해변가에 四海龍王을 請拜하는 큰 깃폭을 늘인 후에 그 곳에 祭物을 차린 祭床을 陳設하고 誦經者는 心身을 淨하게 한 後에 四海의 龍王에게 豐魚와 安寧을 祈願하는 經文을 頌祝하게 된다. 이 龍王굿에서 口誦되는 經文은 一般的인 忠淸道の 安宅굿이 太乙保身經→不淨經→祝願文→竈王經→地神經→城主



▲ 龍王굿의 祭床과 龍神을 請拜하는 깃폭

經→祖上經→帝釋經→神將 공수→內殿으로 이어지는데 비해 水府
四海龍王神 奉請→祝願(國家, 地域)→龍王經→太乙保身經→祝願
德談→神將下降(신 장가림)→明堂經→五穀試食→뒷전으로 이어지
는데 뒷전에서는 “龍王大神”을 모든 사람들의 呼稱하면서 열을지
어 바닷가를 돈다.



▲龍王굿에서 經을 읽으며 굿을 進行하는 모습

이 龍王굿에서 나타나는 床차림에는 一般的인 安宅굿의 床차림
보다는 많은 祭物을 차리게 되며 신장대도 安宅굿에서 나타나는
신장대보다 큰 것을 使用한다.



▲일반적인 안宅곳의 상차림



▲龍王祭(瑞山)에서 사용한 신장대



◀ 안宅굿에서
사용하는 신
장대

이러한 巫俗의 굿儀式에서 나타나는 進行方法이나 小道具, 或은 辭說이나 長短 等은 地域에 따라 各各 特徵을 보이고 있으며 瑞山地方의 경우에는 陸地와 海岸이 複合된 形態를 나타나고 있어서 京畿道 以北에서 나타나는 선굿과 忠淸道의 앞은굿의 混合된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8) 帝 釋 經

天上에서 命送하던
 天官釋尊 帝釋님은
 天上에서 天命받고
 人間世界 내려와서
 歲月이 如流하여
 路里路中에서 嗎嗎婦人 만나실때
 어느家中 둘러보고
 어느家宅 인물보아
 四柱丹字 받아다가
 百年佳約 맺은後에
 明堂터전 잡으려고
 八道地官 請願하여

明堂터전 잡을적에
 八道地官 하는말이
 길위에 집지으면
 貴男子 九兄弟를 볼것이요
 길밑에 집지으면
 말이로다 딸을낳아
 중의사위 보오리다
 마마부인 그말듣고
 깜짝놀라 하는말이
 여보시오 제석님네
 이터에다 집지으면
 중의사위 본다하니

그리하지 마옵시다
 애걸애걸 빌어보니
 제석님이 하는말이
 이런明堂 저버리고
 어떤明堂 잡으리까
 이明堂에 터닭으면
 아들아기 九兄弟를 본다하니
 이런明堂 어디있나
 여보시오 役君들아
 지점을 다져보자

금가래에 금줄매고
 은가래에 은줄매고
 놋가래에 놋줄달고
 무쇠가래 쇠줄달아
 지점을 다지는데
 높은데는 깎아내어
 낮은곳에 채워놓고
 낮은곳은 메워놓아

네모반듯 닭은후에
 그明堂이 어디멘가
 空山夜月 달밝은데
 明堂지점 닳는구나
 어기여차 지점이요

어기여차 지점이요
 동방을 바라보니
 청룡한쌍 묻혔구나
 잠든靑龍 놀라겠다
 가만가만 다재주오

어기여차 지점이요
 남방을 바라보니
 주작한쌍 묻혔구나
 잠든주작 놀라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오
 어기여차 지점이요
 서방을 바라보니
 白虎한쌍 묻혔구나

잠든白虎 놀라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오
 어기여차 지점이요
 北方을 바라보니
 玄武한쌍 묻혔구나
 잠든玄或 놀라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오
 에이어라 지점이요
 中央을 바라보니
 靑龍黃龍 놀았는데
 龍의머리 터를뒹고
 鶴의머리 柱礎놓아

호박주초 밀화기둥
에라그것 못쓰겠다
녹아내려 되겠느냐
무쇠로다 주초하고
구리쇠로 기둥할대
인의예지 입주하고
八條木은 도리하고
三綱으로 上樑하고

六十四卦 석글걸고
三百八十四爻로다
날날히도 敎子열어
五十土로 새를막아
人蓼으로 구들놓고
不老草로 개초할때
(中略)

歲月이 如流하여
嗎嗎婦人 지내시다

그달부터 胎氣있어
만이로다 딸아기를 탄생하고
지차로는 아들아기
구형제를 순산하니
장하도다 嗎嗎婦人
男女子孫 자라날때
日就月長 하는구나
때는아침 어느때냐

春三月 好時節에

帝釋님은 山川花柳

꽃구경을 가옵시고

嗎嗎婦人 山을돌아

불놀이를 가옵시고

아들아기 九兄弟는

만첩산중 黃金寺에

文筆功夫 가실때에

山도넘고 물도건너

한모퉁이 돌아서니

난데없는 웬등하나

어리설설 내려온다

저중생의 舉動봐라

검거들랑 엮지말고

엮었거든 검지말지

검거도 엮은중에

삿갓일랑 숙여쓰고

육환장을 거머쥐고

목탁일랑 손에 들고

百八念珠 목에 걸고

저절거리고 내려온다

저衆生の 거동봐라

도령님네 앞에 와서

도령님네 問安이요

도령님네 묻는말이

대 자는 어느절에 계시온데

우리에게 問安이요

小僧은 만첩청산 黃金寺에

仙主僧이온데

우리절이 衰弱하여

八道江山 流浪하며

慈未施主 하여다가

절을중창 하렸더니

財物이 不足하여

誠心이 不足하여

절을重創 하렸더니

風問에 듣자하니

帝釋님네 당금아기

人物도 좋거니와

才質이 총명하여

凡常치 않다하니

天上에 緣分있어

慈未施主 가오이다

九兄弟 도령님네

깜짝놀라 하는말이

우리가 帝釋祭에

누워三年 앉아三年 서서三年

석三年을 살았어도

당금아기 있나한말
 보고듣도 못했는데
 慈未施主 웬말이요
 어서어서 돌아가오
 저중의 하는말이
 도령님에 모르오만
 小僧은 들었으니
 내기를 하오이다
 帝釋中에 내가가서
 慈未施主 해으며는

도령님네 九兄弟가
 우리절을 중창하고
 慈未施主 못해며는
 文筆功夫 도우리다
 저중의 얼굴보니
 칠흠같은 저눈썹은
 江山精氣 서려있고
 샛별같은 眼光은

天地造化 품은듯이
 범상치가 않구나
 도령님네 내기한후
 萬樹山中 黃金寺로
 文筆功夫 가옵시고

저중은 어질거리고
 帝釋中에 當到하니
 帝釋家の 열두大門
 첩첩히도 닫혔구나
 저衆生의 舉動바라

天下에는 천수경
 地下에는 明堂經
 南無阿彌陀佛
 南無阿彌陀佛
 南無阿彌陀佛

석삼번을 외워대니
 부처님의 功德으로
 첩첩히도 닫혔던문

저리 활짝 열리누나
 이때에 당금아기
 침선방에 홀로앉아
 침선에 골몰타가
 난대없이 念佛소리에
 깜짝놀라 하는말이
 금연춘아 옥연춘아
 이게이게 웬말이지
 우리집은 담장높아
 길짐승과 날짐승도

못들어 오건마는
하물며 人間中에
중의소리 웬말이나
어서그중 나가래라
저중의 거동보소
제 집의 안방들듯
성큼성큼 들어가서

귀먹인체 등신인체
병어린체 쑥맥인체
念佛만 외우누나
금연춘이 옥연춘이
저衆生을 나가래니
慈未施主 한다기로
帝釋宮에 왔사오니
慈未施主 하여주소

금연춘이 갖다주니
비리다고 아니받고
옥연춘이 갖다주니
생내난다 아니받네
이때에 당금아기
어허그중 고이하다
목욕제게 한연후에
은쟁반을 옆에 끼고

이독저독 다버리고
 당금아기 봄주독에
 곁에생미 젓혀놓고
 속의쌀을 골라다가
 명돈복돈 놓아주고

바랑에다 부었더니
 바랑밧이 타개저서
 거리조중 쏘아졌다
 저중이 하는말이
 소승이 불민하여
 밧랑밧에 타개진줄

모르고 왔사오니
 바랑밧이나 막아주오
 당금아기 바랑밧아
 침선방에 들어가서
 大針中針 다버리고
 가는細針 도라내어

불명주사 한올을
 올올이 감추어서
 바랑밧을 막아주니
 저중의 거동보소
 은저옥저 손에 잡고
 거리보중 흘린쌀을
 순식간에 담는구나
 (以下 省略)

※〈註〉 前記한 帝釋經에서도 보이듯이 이 帝釋經은 巫歌와 巫經에서 共通的으로 보이는 叙事巫經으로서 七星經, 바리公主 等과 說話의 事實을 노래나 經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써 旣經文에 비해 辭說이 解説体로 되어 있어 口誦하기는 어려우나 듣는 이들은 一般的인 經文이 文句化 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이야기식으로 口述되기 때문에 쉽게 理解를 할 수 있다.

上記의 序頭部分이 紹介된 帝釋經은 帝釋神과 嗎嗎婦人의 上봉에서 부터 明堂을 잡아 地硬을 달는 過程, 아들 九兄弟와 當금아기의 出生을 풀이했으며 黃海僧(化僧)과 當금아기와의 上봉에서 當금아기의 慈末施主의 正경과 임태帝釋宮에서 쫓겨난 當금아기의 新세를 풀어서 이야기 하고 있고 끝으로 黃海僧과의 만남과 當금아기의 出產. 그리고 仙女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 當금아기와 아기의 成長過程을 口述式으로 풀어내리는 經굿이다.

흔히 앞은거리의 巫經이 거의가 4.4나 3.5의 韻을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이 帝釋經은 韻에 關係없이 說話의 事實을 적고 있어서 七星經과 함께 나타나는 特異한 經文으로 꼽을 수 있다.

예) 內殿

※〈註〉 앞은거리의 安宅굿에서 제일 끝에 이루어지는 儀式은 內殿으로 흔히 〈뒗전〉이라고도 稱하고 있으며 이 儀式은 굿廳에 모인 雜鬼과 雜神을 쫓아서 굿이 더 德이 있기를 바라는 儀式으로 이때 口誦되는 經을 흔히 逐邪鬼라고도 이야기 한다.

상당에 잡귀야
 너도 먹고 가라
 중탕에 잡귀야
 너도 먹고 가라
 하당에 잡귀야
 많이 먹고 가라

사내남자 남자귀
 너도 먹고 가라
 계집여자 여자귀
 너도 먹고 가라
 늙은노자 노망귀
 너도 먹고 가라

아이동자 동자귀
 많이 먹고 가라
 처녀 죽은 각시귀
 너도 먹고 가라
 총각 죽은 몽달귀
 너도 먹고 가라

아이 낳다 해산귀
 너도 먹고 가라
 물에 빠진 수사귀
 너도 먹고 가라
 검에 맞은 검사귀

많이 먹고 가라
혼자 죽은 자사귀
너도 먹고 가라
불타 죽은 화사귀
너도 먹고 가라
세다 죽은 요망귀
너도 먹고 가라
부처 죽은 양상귀
너도 먹고 가라

상탕에 수배야 너도 먹고 가라

중탕에 수배야 너도 먹고 가라

하탕에 수배야 너도 먹고 가라

고개위에 성황수배

너도 먹고 가라

산봉우리 산신수배

너도 먹고 가라

물애 죽은 용왕수배

너도 먹고 가라

동리입구 장승수배

많이 먹고 가라

대문간에 수문수배

너도 먹고 가라

마루대청 성주수배

너도 먹고 가라

부엌안의 조왕수배

많이 먹고 가라

장독대에 여주수배

너도 먹고 가라

저기가는 저귀신

저기가는 저망자

못먹었다 원망말고

자빠졌다 한을말고

어서 먹고 가라

많이 먹고 가라

썩 -

安宅곳에서 舉行되는 많은 儀式 中에서 經을 口誦할때는 대개]=80 정도의 빠르기로 치게되며 神將을 請拜할때는 Y=104~120정도의 빠르기로 몰아친다. 誦經者는 床 앞에서 북과 팽과리를 함께 치는데 오른손으로는 북을 치고 왼손으로는 팽과리를 얹어놓고 치게 된다. 북은 誦經을 하면서 계속 두드리나 팽과리는 經의 休止部에서만 두드린다.

四. 맺는말

한 地方에서 불리워지는 소리를 수집하여 樂譜로 만들어 資料로 영원히 保存하기 위해 活字化된 冊으로 發刊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몇개월인가를 돌아다니며 그 地域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찾아보면 外的으로나마 그 地域民을 닮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 時代를 30年으로 잡을때 그 地域의 土着的인 聲音이 소리에 나타나기 까지는 적어도 三代 정도가 지나야 원래의 소리(他地에서 移住했을 경우에)가 살아지게 된다. 이러한 것은 근 10여년 동안을 地方을 누비며 調査한 경험에서 얻은 큰 수확이었다.

이러한 土俗的인 地方의 俗謠는 그 自體가 삶의 소리이자 內面의 世界의 表現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事實이다. 하지만 그 소리가 時代의 變化에 따라서 급격히 衰退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 地域의 特徵있는 소리를 記憶하고 있는 많은 歌唱者들이 거의가 高齡에 있어 하루빨리 整理, 保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 요즈음에 들어서 瑞山地方의 경우에는 國家的으로 西海岸時代가 도래하여 現代의 高度化된 文明이 범람하자 傳統民俗이 급격히 衰退하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의 生活에 物質文明이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나 過去의 祖上들로 부터 創出되어 代代로 이어진 우리의 傳統民俗文化는 이

民族의 精神的인 支柱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精神的 支柱로써의 民俗文化를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保存한다는 것은 이 時代의 文化的 차원에서는 가장 時急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地方에 散在해 그 地方의 精神的인 支柱로써의 民俗藝術은 俗謠, 民俗놀이, 洞祭와 巫儀式 等 各가지 分野로 되어 있어 分野別 整理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잊혀지고 消滅되어 가는 우리의 精神文化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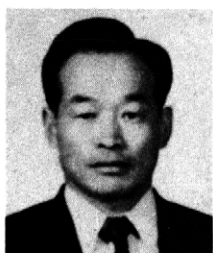
附 錄

《歌唱者 名單》

一俗 謠一

- 김호동(男, 70歲. 지곡면 대요리)
- 이대봉(男, 87歲. 해미면 해미읍 2구)
- 손병근(男, 77歲. 서산시 석림동)
- 김무춘(男, 78歲. 서산시 동문동)
- 최찬옥(男, 80歲. 대산읍 화곡리 2구)
- 강용묵(男, 53歲. 대산읍 화곡리 3구)
- 김용태(男, 81歲. 대산읍 화곡리)
- 강기섭(男, 82歲. 대산읍 대로리 1구)
- 김한표(男, 74歲. 지곡면 대용리)
- 최홍복(男, 71歲. 서산시 동문동)
- 차성길(男, 84歲. 지곡면 환성 2구)
- 강월분(女, 86歲. 음암면 문향 1구)
- 장소기(女, 76歲. 서산시 동문동)
- 오상기(女, 84歲. 성연면 왕정리)
- 박수천(男, 49歲. 태안읍)
- 김홍선(男, 61歲. 해미면 응평리)
- 권종선(男, 71歲. 서산시 읍내동)
- 최홍원(男, 64歲. 해미면 읍내리)
- 김낙근(男, 61歲. 해미면 응평리)
- 안용덕(男, 65歲. 해미면 응평리) 外 多數

一 巫 經 一



○ 양희천(男, 64歲. 서산시 읍내동 740-1)

巫業 35年, 26歲때부터 理由도 없이 神을 위하는 것이 좋아서 서천군 문산면 구덕리 원천산에서 七日 山祭 中에 혼자서 通神이 되었으나 집안의 分圍氣가 巫覡이 됨을 용서하지 않아서 거부하자 財産이 없어지고 몸에 큰 병이 들어 더이상 거역하지 못하고 神命을 모시고 있다. 神은 祖父祖上神, 同生, 母親, 父親 等이 祖上神으로 身主가 되었다.



○ 김선학(男, 57歲. 서산시 동문동 480-2)

서울에서 商業을 하는 도중 家産이 탕진되고 周圍에서 精神異狀이 되었다고 할만큼 接神이 된 狀態에서 冠岳山에서 通神. 계속 거부하자 一男二女가 死亡하여 神命을 섬김. 많은 神굿을 했으나 제대로 풀리지 않다가 기도로써 혼자 通神.



○ 최순이(女, 51歲. 부석면 가사리 2구 241)

결혼한 以後 계속해서 일이 제대로 되지않고 장사만 하면 三個月을 못넘기고 파산이 되었으며 스님의 권유로 날을 잡아 神굿을 한 후 通神. 이후에는 불상사가 없어졌으며 한때는 화장품 외관을 하멜 집집마다 다니며 혼자서 그 집안의 大小吉凶을 느낄수도 있었다.



○ 문을순(女, 52歲. 서산시 읍내동 740)

34歲때 神굿을 하고 神子が 되었으며 齊家 후 神命을 이기지 못해 몸이 심히 쇠약해지자 시가에서도 포기. 집을 보러가서 神將대를 잡자 降神이 되어 鷄龍山에서 七日 山祭 後 空

手が 되었다.



○ 조경분(女, 51歲. 서산시 동문동 480)

27歲때 신굿을 하였으며 出家 後에 가정이 파탄되고 재산이 파산되자 바닷가에 있는 친척집에서 自殺을 기도하다. 친척의 권유로 神굿을 받고 기도중에 空手が 터졌으며 1個月後

다시 異狀이 생겨 다시 기도후에 완전한 통신과 공수를 받았다.

《編著者 略歷》

- 1949年 서울出生
- 國立國樂院研究員
- 서울市立國樂管絃樂團演藝士
- 慶州市立國樂院講師
- 盛昌物産 常務

資 料 調 査 者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부촌 | 읍내 22통 | 정 태 우 | 읍내동 451 | 64-2214 | 운영위원(동책임자) |
| | 읍내 11통 | 이 병 열 | 읍내동 487 | 665-3119 | 홍보위원(남) |
| | " | 차 풍 회 | 읍내동 38-5 | 665-4404 | 홍보위원(여) |
| | 읍내 12통 | 김 대 천 | 읍내동 28-1 | 665-9539 | 홍보위원(남) |
| | " | 한 용 옥 | 읍내동 27 | 665-9831 | 홍보위원(여) |
| | 읍내 21통 | 유 장 춘 | 읍내동 372 | 65-1561 | 홍보위원(남) |
| | " | 강 도 남 | 읍내동 458-10 | 665-5579 | 홍보위원(여) |
| | 읍내 22통 | 박 순 옥 | 읍내동 347 | 65-4428 | 홍보위원(여) |
| | 읍내 31통 | 이 광 순 | 읍내동 404-2 | 64-0839 | 홍보위원(남) |
| | " | 이 선 금 | 읍내동 539-1 | 665-4584 | 홍보위원(여) |
| | 읍내 41통 | 이 의 성 | 동일APT 706호 | 665-6129 | 홍보위원(남) |
| | " | 이 은 숙 | 동일APT 809호 | | 홍보위원(여) |
| | 읍내 42통 | 안 대 흥 | 읍내동 629-1 | 62-0156 | 홍보위원(남) |
| | " | 강 월 자 | 읍내동 697 | 665-7661 | 홍보위원(여) |
| | 읍내 43통 | 한 칠 성 | 읍내동 708-8 | 665-3224 | 홍보위원(남) |
| | " | 박 영 희 | 읍내동 706 | 665-6101 | 홍보위원(여) |
| | 읍내 44통 | 신 기 현 | 읍내동 809-5 | 665-5927 | 홍보위원(남) |
| | " | 오 병 순 | 읍내동 772-8 | 665-6717 | 홍보위원(여) |
| | 갈산 1통 | 김 영 진 | 갈산동 328 | 62-3224 | 홍보위원(남) |
| | " | 유 병 권 | 갈산동 881 | 665-6798 | 홍보위원(여) |
| | 갈산 2통 | 박 종 대 | 갈산동 647 | 665-6836 | 홍보위원(남) |
| | " | 박 명 숙 | 갈산동 256 | 665-7364 | 홍보위원(여) |
| | 갈산 3통 | 이 용 호 | 갈산동 591 | 665-8126 | 홍보위원(남) |
| | " | 하 명 순 | 갈산동 199 | 665-9242 | 홍보위원(여) |
| 동문 | | 류 용 산 | 잠흥동 660 | 665-3685 | 운영위원(동책임자) |
| | 동문 1통 | 김 태 환 | 동문동 823-56 | 665-4601 | 홍보위원(남) |
| | " | 김 해 숙 | 동문동 853 | 665-5104 | 홍보위원(여) |
| | 동문 2통 | 이 동 수 | 동문동 429-2 | 665-6298 | 홍보위원(남) |
| | " | 고 정 순 | 동문동 872-14 | 665-3562 | 홍보위원(여) |
| | 동문 31통 | 이 창 태 | 동문동 578 | 665-6811 | 홍보위원(남) |
| | " | 이 연 자 | 동문동 495 | 65-5100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동문 32통 | 이 시 우 | 동문동 663-4 | 665-5549 | 홍보위원(남) |
| | " | 김 민 화 | 동문동 449 | 64-0634 | 홍보위원(여) |
| | 동문 33통 | 이 희 봉 | 삼성APT 1/406 | 665-2578 | 홍보위원(남) |
| | " | 차 정 희 | 삼성APT 6/703 | 63-3083 | 홍보위원(여) |
| | 동문 41통 | 김 용 성 | 동문동 371-70 | 665-9055 | 홍보위원(남) |
| | " | 장 연 수 | 동문동 5 | 665-3778 | 홍보위원(여) |
| | 동문 42통 | 임 대 환 | 동문동 132 | 665-5943 | 홍보위원(남) |
| | " | 신 순 이 | 동문동 348-6 | 62-2039 | 홍보위원(여) |
| | 온 석 동 | 이 명 옥 | 온석동 28-1 | 665-6411 | 홍보위원(남) |
| | " | 김 순 분 | 온석동 487 | 665-6419 | 홍보위원(여) |
| | 잠흥 1통 | 류 경 수 | 잠흥동 333 | 665-7544 | 홍보위원(남) |
| | " | 이 경 자 | 잠흥동 53번지 | 665-7603 | 홍보위원(여) |
| | 잠흥 2통 | 심 운 성 | 잠흥동 762-3 | 64-2148 | 홍보위원(남) |
| | " | 이 해 순 | 잠흥동 358 | 62-2215 | 홍보위원(여) |
| 활성 | | 강 창 곤 | 동문동 399-10 | 63-1075 | 운영위원(동책임자) |
| | 동문 51통 | 김 흥 진 | 동문동 946 | 665-4578 | 홍보위원(남) |
| | " | 이 조 자 | 동문동 9-91 | 665-1381 | 홍보위원(여) |
| | 동문 52통 | 최 재 목 | 동문동 895 | 665-5466 | 홍보위원(남) |
| | " | 강 숙 자 | 동문동 895-2 | 665-5467 | 홍보위원(여) |
| | 동문 53통 | 김 종 하 | 동문동 895-1 | 64-3985 | 홍보위원(남) |
| | " | 김 순 자 | 동문동 890-5 | 665-2093 | 홍보위원(여) |
| | 동문 61통 | 박 희 원 | 동문동 282-5 | 665-3169 | 홍보위원(남) |
| | " | 신 동 복 | 동문동 281-4 | 665-3722 | 홍보위원(여) |
| | 동문 62통 | 이 영 재 | 동문동 255-21 | 665-4209 | 홍보위원(남) |
| | " | 표 명 자 | 동문동 244-15 | 665-3549 | 홍보위원(여) |
| | 동문 63통 | 이 상 철 | 주공APT 101/102 | 665-4058 | 홍보위원(남) |
| | " | 김 연 자 | 주공APT 106/205 | 65-4260 | 홍보위원(여) |
| | 동문 71통 | 송 우 석 | 동문동 267 | 665-4035 | 홍보위원(남) |
| | " | 김 재 숙 | 동문동 267-9 | 665-7703 | 홍보위원(여) |
| | 동문 81통 | 유 한 곤 | 동문동 988-7 | 665-2733 | 홍보위원(남) |
| | " | 김 흥 매 | 동문동 980-4 | 665-7807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동문 82통 | 가 재 돈 | 동문동 1004-9 | 665-6173 | 홍보위원(남) |
| | " | 조 재 월 | 동문동 1104-9 | 665-6137 | 홍보위원(여) |
| 수석 | | 김 용 환 | 수석동 386 | 665-6501 | 운영위원(동책임자) |
| | 수석 1통 | 이 광 하 | 수석동 425 | 665-8292 | 홍보위원(남) |
| | " | 문 봉 희 | 수석동 135 | 665-6511 | 홍보위원(여) |
| | 수석 2통 | 임 찬 빈 | 수석동 568 | 665-7696 | 홍보위원(남) |
| | " | 임 영 순 | 수석동 485 | 665-8037 | 홍보위원(여) |
| | 수석 3통 | 유 백 희 | 수석동 988-1 | 665-4712 | 홍보위원(남) |
| | " | 진 옥 매 | 수석동 1044-1 | 62-1398 | 홍보위원(여) |
| | 수석 4통 | 이 경 내 | 수석동 487 | 665-8820 | 홍보위원(남) |
| | " | 유 복 희 | 수석동 667 | 665-7865 | 홍보위원(여) |
| | 석림 1통 | 김 용 철 | 석림동 615-4 | 665-8109 | 홍보위원(남) |
| | " | 김 순 금 | 석림동 605 | 665-3341 | 홍보위원(여) |
| | 석림 2통 | 박 호 준 | 석림동 302-41 | 665-5951 | 홍보위원(남) |
| | " | 이 영 수 | 석림동 410 | 665-5947 | 홍보위원(여) |
| | 석림 3통 | 김 동 복 | 석림동 173-24 | 665-4933 | 홍보위원(남) |
| | " | 박 연 순 | 석림동 181 | 64-3287 | 홍보위원(여) |
| | 석림 4통 | 유 충 호 | 석림동 758-3 | 665-5689 | 홍보위원(남) |
| | " | 유 병 순 | 석림동 760-15 | 64-3287 | 홍보위원(여) |
| | 석림 5통 | 박 성 준 | 석림동 672-11 | 665-4509 | 홍보위원(남) |
| | " | 맹 선 재 | 석림동 628-16 | 665-4083 | 홍보위원(여) |
| | 석림 6통 | 조 상 현 | 석림동 769-7 | 665-2294 | 홍보위원(남) |
| | " | 최 상 희 | 석림동 507 | 665-4340 | 홍보위원(여) |
| 석남 | | 정 인 성 | 예천동 513-3 | 665-4321 | 운영위원(동책임자) |
| | 석 남 동 | 이 상 복 | 석남동 199-2 | 665-6194 | 홍보위원(남) |
| | " | 박 용 녀 | 석남동 46-13 | 665-7256 | 홍보위원(여) |
| | 석 남 동 | 유 근 성 | 석남동 413 | 665-5998 | 홍보위원(남) |
| | " | 맹 현 재 | 석남동 207-5 | 665-6217 | 홍보위원(여) |
| | 예 천 동 | 김 영 복 | 예천동 666 | 665-8129 | 홍보위원(남) |
| | " | 유 용 난 | 예천동 295 | 64-0497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예 천 동 | 이 찬 구 | 예천동 412 | 665-8038 | 홍보위원(남) |
| | " | 송 월 례 | 예천동 산 7 | | 홍보위원(여) |
| | 죽 성 동 | 박 종 필 | 죽성동 250 | 665-6440 | 홍보위원(남) |
| | " | 이 금 순 | 죽성동 82 | | 홍보위원(여) |
| | 양 대 동 | 김 용 기 | 예천동 82 | 665-5981 | 홍보위원(남) |
| | " | 정 경 숙 | 양대동 318 | 665-6369 | 홍보위원(여) |
| | 양 대 동 | 조 재 실 | 양대동 258 | 665-4549 | 홍보위원(남) |
| | " | 이 순 화 | 양대동 40 | 665-8603 | 홍보위원(여) |
| | 양 대 동 | 김 낙 준 | 양대동 462 | 665-6385 | 홍보위원(남) |
| | " | 이 기 창 | 양대동 산 48 | 665-4546 | 홍보위원(여) |
| | 양 대 동 | 이 철 규 | 양대동 602 | 62-0937 | 홍보위원(남) |
| | " | 김 응 미 | 동일APT 1/402 | 63-0077 | 홍보위원(여) |
| 오남 | | 정 진 국 | 오남동 | 665-2284 | 운영위원(동책임자) |
| | 오남 1통 | 이 인 승 | 오남동 373 | 665-6870 | 홍보위원(남) |
| | " | 신 금 순 | 오남동 444 | 665-6970 | 홍보위원(여) |
| | 오남 2통 | 신 귀 현 | 오남동 149 | 665-7113 | 홍보위원(남) |
| | " | 박 오 순 | 오남동 39-3 | 62-1976 | 홍보위원(여) |
| | 오남 3통 | 방 수 남 | 오남동 551-10 | 65-0394 | 홍보위원(남) |
| | " | 강 남 신 | 무림APT 408 | 64-6089 | 홍보위원(여) |
| | 장 1통 | 임 명 환 | 장동 133 | 665-8516 | 홍보위원(남) |
| | " | 원 유 의 | 장동 29 | 62-0576 | 홍보위원(여) |
| | 장 2통 | 한 봉 석 | 장동 222 | 665-7729 | 홍보위원(남) |
| | " | 김 인 숙 | 장동 156 | 665-7716 | 홍보위원(여) |
| | 덕 지 천 동 | 김 경 호 | 덕지천동 | | 홍보위원(남) |
| | " | 최 경 자 | 덕지천동 343 | 62-2798 | 홍보위원(여) |
| 인지 | | 이 상 훈 | 야당리 1구 | 62-1011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둔당 1구 | 서 재 화 | 둔당리 191 | 62-1306 | 홍보위원(남) |
| | " | 이 옥 수 | 둔당리 213 | 62-2449 | 홍보위원(여) |
| | 둔당 2구 | 이 종 환 | 둔당리 | 62-1355 | 홍보위원(남) |
| | " | 장 희 선 | 둔당리 408 | 62-1102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야당 1구 | 조 재 흥 | 야당리 419 | 62-1065 | 홍보위원(남) |
| | " | 인 병 순 | 야당리 20 | 62-2701 | 홍보위원(여) |
| | 야당 2구 | 유 효 동 | 야당리 225 | 62-4391 | 홍보위원(남) |
| | " | 한 용 옥 | 야당리 228 | 62-3817 | 홍보위원(여) |
| | 애정 1구 | 유 성 동 | 애정리 | 62-3741 | 홍보위원(남) |
| | " | 성 정 례 | 애정리 416 | 62-4723 | 홍보위원(여) |
| | 애정 2구 | 유 후 곤 | 애정리 203 | 62-4694 | 홍보위원(남) |
| | " | 유 삼 례 | 애정리 111 | 62-5276 | 홍보위원(여) |
| | 모월 1구 | 유 희 범 | 모월리 396 | 62-3841 | 홍보위원(남) |
| | " | 송 영 옥 | 모월리 340 | 63-9761 | 홍보위원(여) |
| | 모월 2구 | 서 정 재 | 모월리 72 | 62-3347 | 홍보위원(남) |
| | " | 신 경 순 | 모월리 73 | 62-5020 | 홍보위원(여) |
| | 모월 3구 | 임 현 철 | 모월리 33-1 | 62-4394 | 홍보위원(남) |
| | " | 유 계 자 | 모월리 33-1 | 62-5075 | 홍보위원(여) |
| | 산동 1구 | 김 동 수 | 산동리 199 | 62-4614 | 홍보위원(남) |
| | " | 장 경 숙 | 산동리 412 | 63-9772 | 홍보위원(여) |
| | 산동 2구 | 임 진 상 | 산동리 160-1 | 62-4992 | 홍보위원(남) |
| | " | 김 옥 자 | 산동리 155 | 62-4658 | 홍보위원(여) |
| | 남정 1구 | 정 진 갑 | 남정리 41 | 62-2488 | 홍보위원(남) |
| | " | 김 숙 자 | 남정리 279 | 62-1281 | 홍보위원(여) |
| | 남정 2구 | 박 수 능 | 남정리 43 | 62-1096 | 홍보위원(남) |
| | " | 이 운 자 | 남정리 410 | 62-1188 | 홍보위원(여) |
| | 화수 1구 | 정 태 영 | 화수리 | 62-1314 | 홍보위원(남) |
| | " | 황 윤 열 | 화수리 200 | 62-1347 | 홍보위원(여) |
| | 화수 2구 | 박 운 성 | 화수리 334 | 62-1231 | 홍보위원(남) |
| | " | 송 효 남 | 화수리 449 | 665-9335 | 홍보위원(여) |
| | 차리 1구 | 박 명 호 | 차리 540 | 62-2387 | 홍보위원(남) |
| | " | 임 정 복 | 차리 713 | 64-6163 | 홍보위원(여) |
| | 차리 2구 | 이 상 춘 | 차리 184-1 | 62-2515 | 홍보위원(남) |
| | " | 이 인 순 | 차리 217 | 62-2572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성리 1구 | 이 종 순 | 성리 422 | 62-2386 | 홍보위원(남) |
| | " | 지 순 자 | 성리 515 | 62-2380 | 홍보위원(여) |
| | 성리 2구 | 이 의 환 | 성리 352 | 62-2695 | 홍보위원(남) |
| | " | 라 은 자 | 성리 251 | 62-2686 | 홍보위원(여) |
| | 풍 전 리 | 가 재 권 | 풍전리 640 | 62-8567 | 홍보위원(남) |
| | " | 박 옥 자 | 풍전리 375 | 665-7523 | 홍보위원(여) |
| 부석 | | 이 현 구 | 봉락리 179 | 62-7168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가사 1구 | 문 득 수 | 가사리 1047 | 62-5096 | 홍보위원(남) |
| | " | 한 월 섭 | 가사리 770 | 62-4972 | 홍보위원(여) |
| | 가사 2구 | 조 병 태 | 가사리 167 | 62-4396 | 홍보위원(남) |
| | " | 이 연 수 | 가사리 660-3 | 62-4540 | 홍보위원(여) |
| | 가사 3구 | 윤 남 로 | 가사리 85 | 62-3964 | 홍보위원(남) |
| | " | 조 규 화 | 가사리 984 | 62-3923 | 홍보위원(여) |
| | 강수 1구 | 고 총 식 | 강수리 812 | 62-5044 | 홍보위원(남) |
| | " | 유 정 순 | 강수리 659 | 62-5132 | 홍보위원(여) |
| | 강수 2구 | 박 임 수 | 강수리 92 | 62-4785 | 홍보위원(남) |
| | " | 전 정 자 | 강수리 360 | 62-4786 | 홍보위원(여) |
| | 송시 1구 | 김 창 규 | 송시리 780 | 62-4451 | 홍보위원(남) |
| | " | 지 명 희 | 송시리 717-45 | 62-4421 | 홍보위원(여) |
| | 송시 2구 | 강 진 규 | 송시리 743 | 63-3155 | 홍보위원(남) |
| | " | 정 순 분 | 송시리 316 | 62-4914 | 홍보위원(여) |
| | 월계 1구 | 박 재 웅 | 월계리 777 | 62-4094 | 홍보위원(남) |
| | " | 김 기 월 | 월계리 337 | 62-3988 | 홍보위원(여) |
| | 월계 2구 | 김 송 환 | 월계리 637 | 62-3725 | 홍보위원(남) |
| | " | 심 경 화 | 월계리 778 | 62-3698 | 홍보위원(여) |
| | 갈마 1구 | 김 용 철 | 갈마리 26 | 62-4225 | 홍보위원(남) |
| | " | 배 금 순 | 갈마리 120 | 62-3813 | 홍보위원(여) |
| | 갈마 2구 | 홍 성 인 | 갈마리 418 | 62-4412 | 홍보위원(남) |
| | " | 김 선 완 | 갈마리 536 | 62-4239 | 홍보위원(여) |
| | 취평 1구 | 김 병 수 | 취평리 산 26 | 62-4329 | 홍보위원(남) |
| | " | 이 병 화 | 취평리 625 | 62-4329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취평 2구 | 최 흥 열 | 취평리 263-10 | 62-4277 | 홍보위원(남) |
| | " | 노 금 자 | 취평리 373 | 62-3850 | 홍보위원(여) |
| | 대두 1구 | 이 세 구 | 대두리 138 | 62-4138 | 홍보위원(남) |
| | " | 김 숙 자 | 대두리 600 | 62-4163 | 홍보위원(여) |
| | 대두 2구 | 유 흥 곤 | 대두리 168 | 62-4200 | 홍보위원(남) |
| | " | 한 순 자 | 대두리 66 | 62-4383 | 홍보위원(여) |
| | 지산 1구 | 유 용 길 | 지산리 580 | 62-6861 | 홍보위원(남) |
| | " | 김 순 연 | 지산리 719 | | 홍보위원(여) |
| | 지산 2구 | 이 종 철 | 지산리 1096 | 62-7055 | 홍보위원(남) |
| | " | 신 을 자 | 지산리 818 | | 홍보위원(여) |
| | 지산 3구 | 이 근 구 | 지산리 508 | 62-6694 | 홍보위원(남) |
| | " | 남 순 우 | 지산리 308 | 62-6711 | 홍보위원(여) |
| | 봉락 1구 | 지 광 규 | 봉락리 182 | 62-7163 | 홍보위원(남) |
| | " | 윤 월 상 | 봉락리 375 | 62-6610 | 홍보위원(여) |
| | 봉락 2구 | 김 창 환 | 봉락리 705 | 62-6639 | 홍보위원(남) |
| | " | 고 영 숙 | 봉락리 628 | 62-7201 | 홍보위원(여) |
| | 칠 전 리 | 이 영 수 | 칠전리 143 | 62-6910 | 홍보위원(남) |
| | " | 장 연 희 | 칠전리 204 | 62-6940 | 홍보위원(여) |
| | 강당 1구 | 이 희 백 | 강당리 19 | 62-7010 | 홍보위원(남) |
| | " | 최 병 주 | 강당리 690 | | 홍보위원(여) |
| | 강당 2구 | 이 태 구 | 강당리 28 | 62-6786 | 홍보위원(남) |
| | " | 강 월 순 | 강당리 산 4 | | 홍보위원(여) |
| | 마 룡 리 | 이 선 희 | 마룡리 342 | 62-7287 | 홍보위원(남) |
| | " | 김 옥 남 | 마룡리 465 | 62-7234 | 홍보위원(여) |
| | 창 리 | 박 용 선 | 창리 293-22 | 62-7143 | 홍보위원(남) |
| | " | 남 성 저 | 창리 293-14 | | 홍보위원(여) |
| | 간월도리 | 김 덕 신 | 간월도리 24 | 62-2714 | 홍보위원(남) |
| | " | 이 백 희 | 간월도리 63 | 65-1888 | 홍보위원(여) |
| 팔봉 | | 김 완 종 | 진장리 2구 | 62-6063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진장 1구 | 김 지 중 | 진장리 335 | 62-5324 | 홍보위원(남) |
| | " | 이 시 노 | 진장리 834 | 62-6170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진장 2구 | 서 용 철 | 진장리 806-9 | 62-6062 | 홍보위원(남) |
| | " | 정 창 숙 | 진장리 967 | 62-6150 | 홍보위원(여) |
| | 진장 3구 | 김 기 훈 | 진장리 593 | 62-5455 | 홍보위원(남) |
| | " | 김 영 숙 | 진장리 150 | 62-5568 | 홍보위원(여) |
| | 어송 1구 | 김 용 경 | 어송리 1313 | 62-6055 | 홍보위원(남) |
| | " | 김 춘 화 | 어송리 1442 | 62-6028 | 홍보위원(여) |
| | 어송 2구 | 김 용 호 | 어송리 1310 | 62-6271 | 홍보위원(남) |
| | " | 문 용 현 | 어송리 455 | 62-5697 | 홍보위원(여) |
| | 어송 3구 | 문 운 호 | 어송리 736 | 62-6347 | 홍보위원(남) |
| | " | 강 현 미 | 어송리 883 | 62-6011 | 홍보위원(여) |
| | 호리 1구 | 이 덕 주 | 호리 227 | 62-5672 | 홍보위원(남) |
| | " | 홍 명 순 | 호리 65 | 62-5805 | 홍보위원(여) |
| | 호리 2구 | 이 신 섭 | 호리 산 48 | 62-5621 | 홍보위원(남) |
| | " | 정 경 자 | 호리 400 | 62-6561 | 홍보위원(여) |
| | 호리 3구 | 장 동 식 | 호리 512 | 62-6162 | 홍보위원(남) |
| | " | 김 윤 순 | 호리 161 | 62-6176 | 홍보위원(여) |
| | 덕송 1구 | 안 종 천 | 덕송리 608-2 | 62-6348 | 홍보위원(남) |
| | " | 이 범 훈 | 덕송리 766 | 62-6340 | 홍보위원(여) |
| | 덕송 2구 | 이 규 호 | 덕송리 264 | 62-6107 | 홍보위원(남) |
| | " | 함 국 자 | 덕송리 440 | 62-5328 | 홍보위원(여) |
| | 양길 1구 | 양 근 | 양길리 189 | 62-6415 | 홍보위원(남) |
| | " | 최 총 열 | 양길리 40 | 62-5851 | 홍보위원(여) |
| | 양길 2구 | 안 동 민 | 양길리 280 | 62-5525 | 홍보위원(남) |
| | " | 이 성 옥 | 양길리 1067 | 62-6264 | 홍보위원(여) |
| | 양길 3구 | 최 길 업 | 양길리 935 | 62-6359 | 홍보위원(남) |
| | " | 김 영 숙 | 양길리 517 | 62-6047 | 홍보위원(여) |
| | 흑석 1구 | 홍 성 구 | 흑석리 313 | 62-5709 | 홍보위원(남) |
| | " | 안 상 옥 | 흑석리 304 | 62-6185 | 홍보위원(여) |
| | 흑석 2구 | 김 정 배 | 흑석리 550 | 62-5734 | 홍보위원(남) |
| | " | 이 미 자 | 흑석리 281 | 62-5435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대항 1구 | 심 재 창 | 대항리 115 | 62-5394 | 홍보위원(남) |
| | " | 김 예 선 | 대항리 412 | 62-5922 | 홍보위원(여) |
| | 대항 2구 | 박 병 길 | 대항리 592 | 62-6455 | 홍보위원(남) |
| | " | 김 순 중 | 대항리 336 | 62-5441 | 홍보위원(여) |
| | 금학 1구 | 최 용 환 | 금학리 615 | 62-5821 | 홍보위원(남) |
| | " | 김 순 옥 | 금학리 599 | 62-5516 | 홍보위원(여) |
| | 금학 2구 | 유 승 수 | 금학리 1310 | | 홍보위원(남) |
| | " | 유 정 애 | 금학리 890 | 62-5887 | 홍보위원(여) |
| | 금학 3구 | 유 흥 곤 | 금학리 1185 | 62-5762 | 홍보위원(남) |
| | " | 권 연 중 | 금학리 232 | 62-5771 | 홍보위원(여) |
| | 고파도리 | 이 만 우 | 고파도리 20 | 62-2822 | 홍보위원(남) |
| | " | 윤 혜 순 | 고파도리 64 | 62-2818 | 홍보위원(여) |
| 지곡 | | 이 상 균 | 환성리 384 | 65-9083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화천 1구 | 김 흥 남 | 화천리 588-2 | 62-9155 | 홍보위원(남) |
| | " | 김 순 자 | 화천리 110 | 62-9045 | 홍보위원(여) |
| | 화천 2구 | 김 동 윤 | 화천리 303-2 | 62-9256 | 홍보위원(남) |
| | " | 정 월 례 | 화천리 303-2 | 62-9168 | 홍보위원(여) |
| | 화천 3구 | 유 병 윤 | 화천리 958 | 62-9744 | 홍보위원(남) |
| | " | 서 순 애 | 화천리 959-3 | 62-9123 | 홍보위원(여) |
| | 산성 1구 | 조 정 호 | 산성리 421 | 62-9212 | 홍보위원(남) |
| | " | 김 복 순 | 산성리 431 | 62-9827 | 홍보위원(여) |
| | 산성 2구 | 안 동 윤 | 산성리 1027 | 62-9794 | 홍보위원(남) |
| | " | 안 상 화 | 산성리 1027 | 62-9750 | 홍보위원(여) |
| | 장현 1구 | 이 양 우 | 장현리 | | 홍보위원(남) |
| | " | 신 성 분 | 장현리 40 | 62-8947 | 홍보위원(여) |
| | 장현 2구 | 봉 필 제 | 장현리 | 62-9183 | 홍보위원(남) |
| | " | 최 옥 선 | 장현리 172 | 62-9416 | 홍보위원(여) |
| | 연화 1구 | 최 호 열 | 연화리 182 | 62-9105 | 홍보위원(남) |
| | " | 이 복 윤 | 연화리 193 | 62-9603 | 홍보위원(여) |
| | 중앙 1구 | 박 정 규 | 중앙리 595 | 62-9503 | 홍보위원(남) |
| | " | 이 도 화 | 중앙리 284 | 62-9516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중왕 2구 | 김 성 곤 | 중왕리 645 | 62-9559 | 홍보위원(남) |
| | " | 장 경 자 | 중왕리 401 | 62-9524 | 홍보위원(여) |
| | 도성 1구 | 이 일 형 | 도성리 | | 홍보위원(남) |
| | " | 강 무 선 | 동성리 산 51 | 62-9701 | 홍보위원(여) |
| | 도성 2구 | 김 영 만 | 도성리 | | 홍보위원(남) |
| | " | 김 용 남 | 도성리 502 | 62-0818 | 홍보위원(여) |
| | 도성 3구 | 임 호 은 | 도성리 | | 홍보위원(남) |
| | " | 김 기 순 | 도성리 388 | 62-9792 | 홍보위원(여) |
| | 대요 1구 | 강 문 규 | 대요리 136 | 62-9631 | 홍보위원(남) |
| | " | 이 기 자 | 대요리 758-2 | 62-9843 | 홍보위원(여) |
| | 대요 2구 | 한 동 노 | 대요리 | | 홍보위원(남) |
| | " | 김 정 례 | 대요리 73 | 62-9253 | 홍보위원(여) |
| | 환성 1구 | 김 성 곤 | 환성리 19 | 62-8906 | 홍보위원(남) |
| | " | 김 금 분 | 환성리 65 | 62-8862 | 홍보위원(여) |
| | 환성 2구 | 차 태 완 | 환성리 | | 홍보위원(남) |
| | " | 서 영 숙 | 환성리 123 | 62-9873 | 홍보위원(여) |
| | 환성 3구 | 김 세 희 | 환성리 220 | 62-9356 | 홍보위원(남) |
| | " | 최 송 자 | 환성리 636 | 62-9349 | 홍보위원(여) |
| | 무장 1구 | 한 제 우 | 무장리 | | 홍보위원(남) |
| | " | 정 경 호 | 무장리 190 | 62-9825 | 홍보위원(여) |
| | 무장 2구 | 이 정 석 | 무장리 | | 홍보위원(남) |
| | " | 유 병 애 | 무장리 320 | 62-8878 | 홍보위원(여) |
| | 무장 3구 | 이 인 기 | 무장리 683 | | 홍보위원(남) |
| | " | 양 종 순 | 무장리 690 | 62-8332 | 홍보위원(여) |
| 대산 | 영탑 2구 | 김 환 세 | 영탑리 823 | 63-8139 | 운영위원(읍책임자) |
| | 대산 1구 | 차 상 원 | 대산리 113 | | 홍보위원(남)(리책임자) |
| | " | 송 월 자 | 대산리 145 | 63-8368 | 홍보위원(여) |
| | 대산 2구 | 김 정 길 | 대산리 1092 | 63-8363 | 홍보위원(남) |
| | " | 장 기 일 | 대산리 1092 | | 홍보위원(여) |
| | 대산 3구 | 이 상 옥 | 대산리 1284 | 63-8746 | 홍보위원(남) |
| | " | 김 을 환 | 대산리 |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대산 4구 | 이 흥 식 | 대산리 33 | 63-9255 | 홍보위원(남) |
| | " | 채 숙 목 | 대산리 280 | | 홍보위원(여) |
| | 대산 5구 | 김 윤 환 | 대산리 442 | 63-8731 | 홍보위원(남) |
| | " | 이 여 형 | 대산리 | | 홍보위원(여) |
| | 대산 6구 | 한 성 모 | 대산리 149-1 | 63-8110 | 홍보위원(남) |
| | " | 김 정 숙 | 대산리 | | 홍보위원(여) |
| | 대로 1구 | 김 광 환 | 대로리 877 | 63-8217 | 홍보위원(남) |
| | " | 전 병 자 | 오지리 511 | | 홍보위원(여) |
| | 대로 2구 | 최 현 목 | 대로리 288 | 63-7009 | 홍보위원(남) |
| | " | 고 춘 자 | 대로리 | | 홍보위원(여) |
| | 대로 3구 | 김 낙 문 | 대로리 77 | 63-6851 | 홍보위원(남) |
| | " | 최 재 희 | 대로리 205 | | 홍보위원(여) |
| | 웅 도 리 | 김 용 근 | 웅도리 120 | 63-8907 | 홍보위원(남) |
| | " | 이 은 자 | 웅도리 180 | | 홍보위원(여) |
| | 오지 1구 | 김 원 경 | 오지리 612 | 63-8993 | 홍보위원(남) |
| | " | 김 경 희 | 오지리 489 | | 홍보위원(여) |
| | 오지 2구 | 한 상 완 | 오지리 201-2 | 63-8503 | 홍보위원(남) |
| | " | 김 종 희 | 오지리 | | 홍보위원(여) |
| | 기은 1구 | 장 근 순 | 기은리 496 | 63-7068 | 홍보위원(남) |
| | " | 유 만 호 | 기은리 234 | | 홍보위원(여) |
| | 기은 2구 | 이 진 호 | 기은리 451 | 63-4871 | 홍보위원(남) |
| | " | 장 계 순 | 기은리 567 | | 홍보위원(여) |
| | 대죽 1구 | 유 기 열 | 대죽리 269 | 63-7124 | 홍보위원(남) |
| | " | 이 상 춘 | 대죽리 135 | | 홍보위원(여) |
| | 대죽 2구 | 이 금 암 | 대죽리 467 | 63-7292 | 홍보위원(남) |
| | " | 김 희 곤 | 대죽리 364 | | 홍보위원(여) |
| | 대죽 3구 | 김 우 경 | 대죽리 585 | 63-6855 | 홍보위원(남) |
| | " | 홍 정 숙 | 대죽리 | | 홍보위원(여) |
| | 독곳 1구 | 김 영 호 | 독곳리 441 | 681-6936 | 홍보위원(남) |
| | " | 김 화 숙 | 독곳리 335 |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독곶 2구 | 김 종 인 | 독곶리 335 | 681-7208 | 홍보위원(남) |
| | " | 백 승 예 | 화곡리 310 | | 홍보위원(여) |
| | 화곡 1구 | 김 용 환 | 화곡리 512 | 63-7438 | 홍보위원(남) |
| | " | 권 선 영 | 화곡리 | | 홍보위원(여) |
| | 화곡 2구 | 홍 예 성 | 화곡리 310 | 63-7267 | 홍보위원(남) |
| | " | 조 영 숙 | 화곡리 | | 홍보위원(여) |
| | 화곡 3구 | 김 용 목 | 화곡리 36-37 | 63-7139 | 홍보위원(남) |
| | " | 오 춘 옥 | 국사빌라 1/302 | | 홍보위원(여) |
| | 운산 1구 | 김 기 흥 | 운산리 664 | 63-6844 | 홍보위원(남) |
| | " | 조 정 선 | 운산리 | | 홍보위원(여) |
| | 운산 2구 | 김 용 태 | 운산리 568 | 63-8683 | 홍보위원(남) |
| | " | 신 인 숙 | 운산리 603 | 63-8683 | 홍보위원(여) |
| | 운산 3구 | 도 경 희 | 운산리 218 | 63-8498 | 홍보위원(남) |
| | " | 한 준 순 | 운산리 168 | | 홍보위원(여) |
| | 운산 4구 | 김 제 곤 | 운산리 711 | 63-8868 | 홍보위원(남) |
| | " | 박 옥 임 | 운산리 139-9 | | 홍보위원(여) |
| | 운산 5구 | 박 지 배 | 운산리 279 | 63-8087 | 홍보위원(남) |
| | " | 송 금 자 | 운산리 89 | | 홍보위원(여) |
| | 영탑 1구 | 전 병 학 | 영탑리 410 | 63-8383 | 홍보위원(남) |
| | " | 김 정 수 | 영탑리 | | 홍보위원(여) |
| | 영탑 2구 | 김 동 화 | 영탑리 731 | 63-8569 | 홍보위원(남) |
| | " | 이 화 자 | 영탑리 705 | | 홍보위원(여) |
| 성연 | | 이 재 진 | 일람리 435 | 62-7882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일람 1구 | 공 선 식 | 일람리 65 | 62-7865 | 홍보위원(남) |
| | " | 최 용 예 | 일람리 48 | 62-7864 | 홍보위원(여) |
| | 일람 2구 | 윤 경 상 | 일람리 464 | 62-7903 | 홍보위원(남) |
| | " | 조 순 형 | 일람리 | | 홍보위원(여) |
| | 일람 3구 | 어 기 형 | 일람리 269-4 | 62-7845 | 홍보위원(남) |
| | " | 안 영 순 | 일람리 312 | 62-7838 | 홍보위원(여) |
| | 고남 1구 | 최 광 업 | 고남리 826 | 62-7570 | 홍보위원(남) |
| | " | 정 춘 자 | 고남리 888 | 62-7822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고남 2구 | 김 용 필 | 고남리 150 | 62-7816 | 홍보위원(남) |
| | " | 한 정 숙 | 고남리 108 | 62-6745 | 홍보위원(여) |
| | 고남 3구 | 김 동 산 | 고남리 43 | 62-7764 | 홍보위원(남) |
| | " | 추 달 예 | 고남리 26 | 62-7770 | 홍보위원(여) |
| | 오사 1구 | 김 인 덕 | 오사리 769 | 62-8468 | 홍보위원(남) |
| | " | 권 순 복 | 오사리 638 | 62-7632 | 홍보위원(여) |
| | 오사 2구 | 배 남 복 | 오사리 5-2 | 62-8452 | 홍보위원(남) |
| | " | 송 영 숙 | 오사리 | 62-7983 | 홍보위원(여) |
| | 오사 3구 | 구 본 선 | 오사리 201 | 62-8062 | 홍보위원(남) |
| | " | 엄 금 자 | 오사리 332 | | 홍보위원(여) |
| | 왕 정 리 | 성 용 준 | 왕정리 | | 홍보위원(남) |
| | " | 이 정 운 | 왕정리 73 | 62-7789 | 홍보위원(여) |
| | 평리 1구 | 허 인 환 | 평리 253 | 62-8051 | 홍보위원(남) |
| | " | 홍 순 식 | 평리 | | 홍보위원(여) |
| | 평리 2구 | 박 세 영 | 평리 37 | 62-8176 | 홍보위원(남) |
| | " | 유 길 열 | 평리 산 6 | 62-8109 | 홍보위원(여) |
| | 갈현 1구 | 이 용 식 | 갈현리 209 | 62-7706 | 홍보위원(남) |
| | " | 김 정 옥 | 갈현리 5811 | | 홍보위원(여) |
| | 갈현 2구 | 성 시 만 | 갈현리 95 | 62-7513 | 홍보위원(남) |
| | " | 김 인 숙 | 갈현리 49 | 62-7514 | 홍보위원(여) |
| | 명천 1구 | 이 품 호 | 명천리 257 | 62-7559 | 홍보위원(남) |
| | " | 박 명 옥 | 명천리 | 62-7587 | 홍보위원(여) |
| | 명천 2구 | 이 희 영 | 명천리 816 | 62-8129 | 홍보위원(남) |
| | " | 양 성 예 | 명천리 743 | 62-7902 | 홍보위원(여) |
| | 명천 3구 | 표 윤 석 | 명천리 1011 | 62-8101 | 홍보위원(남) |
| | " | 이 신 영 | 명천리 3 | 62-8104 | 홍보위원(여) |
| | 예덕 1구 | 장 순 흥 | 예덕리 381 | 62-7697 | 홍보위원(남) |
| | " | 김 재 운 | 예덕리 360 | | 홍보위원(여) |
| | 예덕 2구 | 유 인 종 | 예덕리 | 62-8401 | 홍보위원(남) |
| | " | 이 정 자 | 예덕리 907 | 62-7557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예덕 3구 | 최 규 성 | 예덕리 869 | 62-7940 | 홍보위원(남) |
| | " | 조 기 화 | 예덕리 | | 홍보위원(여) |
| | 해 성 리 | 조 성 옥 | 해성리 159 | 62-7696 | 홍보위원(남) |
| | " | 조 병 희 | 해성리 338 | 62-8083 | 홍보위원(여) |
| 음암 | | 김 송 환 | 도당리 산 72 | 63-6168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도당 1구 | 최 경 순 | 도당리 151 | 63-5326 | 홍보위원(남) |
| | " | 성 봉 자 | 도당리 293 | 63-5572 | 홍보위원(여) |
| | 도당 2구 | 박 종 석 | 도당리 279 | 63-5947 | 홍보위원(남) |
| | " | 박 순 영 | 도당리 270 | 63-5911 | 홍보위원(여) |
| | 도당 3구 | 김 응 호 | 도당리 289 | 63-5461 | 홍보위원(남) |
| | " | 최 수 남 | 도당리 산 16-2 | | 홍보위원(여) |
| | 도당 4구 | 이 도 원 | 도당리 1183 | 63-6009 | 홍보위원(남) |
| | " | 김 영 숙 | 도당리 1301 | | 홍보위원(여) |
| | 도당 5구 | 성 재 봉 | 도당리 595 | 63-5306 | 홍보위원(남) |
| | " | 배 원 숙 | 도당리 1545 | | 홍보위원(여) |
| | 도당 6구 | 허 경 남 | 도당리 558 | | 홍보위원(여) |
| | 탐곡 1구 | 안 인 수 | 탐곡리 496 | 63-5317 | 홍보위원(남) |
| | " | 최 희 진 | 탐곡리 1173 | | 홍보위원(여) |
| | 탐곡 2구 | 유 민 호 | 탐곡리 679 | 63-5848 | 홍보위원(남) |
| | " | 서 계 순 | 탐곡리 759 | | 홍보위원(여) |
| | 탐곡 3구 | 안 천 목 | 탐곡리 126 | 63-5351 | 홍보위원(남) |
| | " | 이 옥 희 | 탐곡리 379 | | 홍보위원(여) |
| | 탐곡 4구 | 이 덕 철 | 탐곡리 1145-2 | 63-5910 | 홍보위원(남) |
| | " | 지 정 자 | 탐곡리 305 | | 홍보위원(여) |
| | 문양 1구 | 김 사 석 | 문양리 65 | 63-5785 | 홍보위원(남) |
| | " | 서 영 숙 | 문양리 82 | 63-6641 | 홍보위원(여) |
| | 문양 2구 | 이 운 복 | 문양리 134 | 63-5756 | 홍보위원(남) |
| | " | 배 영 순 | 문양리 751 | | 홍보위원(여) |
| | 율목 1구 | 김 형 상 | 율목리 639 | 63-5715 | 홍보위원(남) |
| | " | 박 선 자 | 율목리 728 | 63-5739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율목 2구 | 서 승 열 | 율목리 196 | 63-6367 | 홍보위원(남) |
| | " | 김 월 희 | 율목리 242 | | 홍보위원(여) |
| | 부산 1구 | 이 석 구 | 부산리 112-2 | 63-5589 | 홍보위원(남) |
| | " | 손 은 자 | 부산리 460 | 63-6230 | 홍보위원(여) |
| | 부산 2구 | 이 춘 원 | 부산리 712-3 | 63-6083 | 홍보위원(남) |
| | " | 이 정 복 | 부산리 575 | | 홍보위원(여) |
| | 상흥 1구 | 정 동 선 | 상흥리 169 | 63-5238 | 홍보위원(남) |
| | " | 유 월 주 | 상흥리 169 | | 홍보위원(여) |
| | 상흥 2구 | 성 원 제 | 상흥리 | 63-5799 | 홍보위원(남) |
| | " | 변 창 예 | 상흥리 842 | | 홍보위원(여) |
| | 상흥 3구 | 박 동 완 | 상흥리 200 | 63-6080 | 홍보위원(남) |
| | " | 김 기 순 | 상흥리 486 | | 홍보위원(여) |
| | 신장 1구 | 유 양 호 | 신장리 산 52 | 63-6297 | 홍보위원(남) |
| | " | 권 석 연 | 신장리 195 | 62-2755 | 홍보위원(여) |
| | 신장 2구 | 한 오 성 | 신장리 147 | 62-2452 | 홍보위원(남) |
| | " | 권 순 희 | 신장리 744 | 64-0240 | 홍보위원(여) |
| | 유계 1구 | 김 석 제 | 유계리 77 | 63-6257 | 홍보위원(남) |
| | " | 양 서 여 | 유계리 42 | | 홍보위원(여) |
| | 유계 2구 | 강 영 모 | 유계리 402 | 62-2090 | 홍보위원(남) |
| | " | 최 부 현 | 유계리 206 | | 홍보위원(여) |
| | 성암 1구 | 인 인 교 | 성암리 39 | 63-5247 | 홍보위원(남) |
| | " | 원 유 연 | 성암리 229 | 63-5291 | 홍보위원(여) |
| | 부장 1구 | 유 금 수 | 부장리 546 | 63-5753 | 홍보위원(남) |
| | " | 박 길 예 | 부장리 773 | | 홍보위원(여) |
| | 부장 2구 | 이 필 원 | 부장리 75 | 63-5231 | 홍보위원(남) |
| | " | 이 한 계 | 부장리 206 | | 홍보위원(여) |
| | 부장 3구 | 이 진 국 | 부장리 206 | 63-6369 | 홍보위원(남) |
| | " | 이 화 자 | 부장리 44 | | 홍보위원(여) |
| 운산 | | 김 동 성 | 원벌리 183 | 63-4276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원 벌 리 | 정 완 성 | 원벌리 179 | 63-4311 | 홍보위원(남) |
| | " | 김 기 열 | 원벌리 126-2 | 63-4315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여 미 리 | 김 승 환 | 여미리 16 | 63-3665 | 홍보위원(남) |
| | " | 윤 순 자 | 여미리 334 | 63-3249 | 홍보위원(여) |
| | 가좌 1구 | 유 배 곤 | 가좌리 305 | 63-3252 | 홍보위원(남) |
| | " | 유 명 숙 | 가좌리 518 | 63-3808 | 홍보위원(여) |
| | 가좌 2구 | 유 병 일 | 가좌리 411 | 63-4194 | 홍보위원(남) |
| | " | 박 명 신 | 가좌리 | 63-4803 | 홍보위원(여) |
| | 용장 1구 | 송 의 근 | 용장리 529 | 63-4322 | 홍보위원(남) |
| | " | 이 길 | 용장리 376-4 | 63-4488 | 홍보위원(여) |
| | 용장 2구 | 함 영 길 | 용장리 60 | 63-3227 | 홍보위원(남) |
| | " | 문 명 숙 | 용장리 613 | 63-3239 | 홍보위원(여) |
| | 용현 1구 | 이 정 기 | 용현리 753 | 63-3579 | 홍보위원(남) |
| | " | 윤 정 열 | 용현리 797 | 63-4632 | 홍보위원(여) |
| | 용현 2구 | 장 석 회 | 용현리 114 | 63-3901 | 홍보위원(남) |
| | " | 윤 경 순 | 용현리 82 | 63-3557 | 홍보위원(여) |
| | 소중 1구 | 정 문 식 | 소중리 84 | 63-3517 | 홍보위원(남) |
| | " | 정 용 금 | 소중리 50 | 63-4360 | 홍보위원(여) |
| | 소중 2구 | 윤 주 원 | 소중리 179 | 63-3778 | 홍보위원(남) |
| | " | 이 경 순 | 소중리 | 63-3656 | 홍보위원(여) |
| | 수 당 리 | 양 세 호 | 수당리 85 | 63-4449 | 홍보위원(남) |
| | " | 이 상 희 | 수당리 66-1 | 63-4472 | 홍보위원(여) |
| | 거성 1구 | 김 경 만 | 거성리 184 | 63-3789 | 홍보위원(남) |
| | " | 김 영 옥 | 거성리 298 | 63-3879 | 홍보위원(여) |
| | 거성 2구 | 김 중 섭 | 거성리 397 | 63-3749 | 홍보위원(남) |
| | " | 이 기 화 | 거성리 213 | 63-4702 | 홍보위원(여) |
| | 거성 3구 | 유 장 곤 | 거성리 289 | 63-0189 | 홍보위원(남) |
| | " | 이 영 순 | 거성리 618 | 63-0256 | 홍보위원(여) |
| | 원 평 리 | 박 완 규 | 원평리 159 | 63-4297 | 홍보위원(남) |
| | " | 이 재 선 | 원평리 300 | 63-4291 | 홍보위원(여) |
| | 수평 1구 | 김 홍 식 | 수평리 11 | 63-4385 | 홍보위원(남) |
| | " | 서 명 숙 | 수평리 163 | 63-3966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수평 2구 | 양 풍 호 | 수평리 367 | 63-3432 | 홍보위원(남) |
| | " | 채 규 순 | 수평리 21 | 63-3409 | 홍보위원(여) |
| | 갈산 1구 | 김 동 호 | 갈산리 671 | 63-4407 | 홍보위원(남) |
| | " | 황 순 자 | 갈산리 86-7 | 63-3646 | 홍보위원(여) |
| | 갈산 2구 | 이 상 옥 | 갈산리 333 | 63-4368 | 홍보위원(남) |
| | " | 한 송 열 | 갈산리 318 | 63-4689 | 홍보위원(여) |
| | 갈산 3구 | 정 명 옥 | 갈산리 144-3 | 63-4347 | 홍보위원(남) |
| | " | 이 희 숙 | 갈산리 140 | 63-4480 | 홍보위원(여) |
| | 태 봉 리 | 최 인 석 | 태봉리 4 | 63-3848 | 홍보위원(남) |
| | " | 박 명 규 | 태봉리 198 | 63-3887 | 홍보위원(여) |
| | 신 창 리 | 김 창 제 | 신창리 264 | 63-4904 | 홍보위원(남) |
| | " | 박 화 순 | 신창리 25 | 63-0239 | 홍보위원(여) |
| | 상 성 리 | 이 덕 의 | 상성리 238 | 63-3901 | 홍보위원(남) |
| | " | 권 금 열 | 상성리 1 | 63-3900 | 홍보위원(여) |
| | 고 풍 리 | 이 중 태 | 고풍리 397 | 63-4196 | 홍보위원(남) |
| | " | 전 경 애 | 고풍리 80 | 63-4285 | 홍보위원(여) |
| | 와우 1구 | 전 갑 수 | 소중리 10 | 63-3759 | 홍보위원(남) |
| | " | 이 옥 자 | 와우리 408 | 63-3408 | 홍보위원(여) |
| | 와우 2구 | 최 풍 식 | 와우리 297 | 63-4198 | 홍보위원(남) |
| | " | 권 영 분 | 와우리 | 63-3743 | 홍보위원(여) |
| | 고 산 리 | 장 호 순 | 고산리 407 | 63-3353 | 홍보위원(남) |
| | " | 이 을 향 | 고산리 125 | 63-3327 | 홍보위원(여) |
| | 팔 중 리 | 김 흥 범 | 팔중리 46 | 63-3367 | 홍보위원(남) |
| | " | 장 유 순 | 팔중리 304 | 63-3442 | 홍보위원(여) |
| | 안 호 리 | 유 창 호 | 안호리 299 | 63-4576 | 홍보위원(남) |
| | " | 심 순 옥 | 안호리 304 | 63-3622 | 홍보위원(여) |
| 해미 | | 성 두 현 | 읍내리 291-10 | 63-1030
65-1800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읍내 1구 | 조 준 희 | 읍내리 | 62-1601 | 홍보위원(남) |
| | " | 한 정 순 | 읍내리 290 | | 홍보위원(여) |
| | 읍내 2구 | 김 현 태 | 읍내리 221-32 | 63-1157 | 홍보위원(남) |
| | " | 임 영 란 | 읍내리 332 |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읍내 3구 | 김 태 동 | 읍내리 169-5 | 688-3167 | 홍보위원(남) |
| | " | 국 응 매 | 대곡리 96-2 | | 홍보위원(여) |
| | 휴 암 리 | 한 기 천 | 휴암리 75 | 63-0429 | 홍보위원(남) |
| | " | 이 월 순 | 휴암리 189 | | 홍보위원(여) |
| | 대곡 1구 | 이 서 호 | 대곡리 | 688-4960 | 홍보위원(남) |
| | " | 구 교 식 | 대곡리 619 | | 홍보위원(여) |
| | 대곡 2구 | 김 한 현 | 대곡리 342 | 688-1487 | 홍보위원(남) |
| | " | 하 희 숙 | 대곡리 155 | | 홍보위원(여) |
| | 산 수 리 | 김 태 옥 | 산수리 113 | 63-0980 | 홍보위원(남) |
| | " | 한 성 례 | 산수리 90 | | 홍보위원(여) |
| | 황 락 리 | 김 경 섭 | 황락리 | 688-1193 | 홍보위원(남) |
| | " | 김 춘 자 | 황락리 194 | | 홍보위원(여) |
| | 오 학 리 | 이 효 길 | 오학리 | 688-0986 | 홍보위원(남) |
| | " | 박 정 산 | 오학리 90 | | 홍보위원(여) |
| | 삼송 1구 | 최 태 현 | 삼송리 | 63-5174 | 홍보위원(남) |
| | " | 이 영 수 | 삼송리 산 98 | | 홍보위원(여) |
| | 삼송 2구 | 박 종 화 | 삼송리 | 688-0410 | 홍보위원(남) |
| | " | 김 총 자 | 삼송리 578 | | 홍보위원(여) |
| | 관 유 리 | 남 기 성 | 관유리 146-1 | 63-0897 | 홍보위원(남) |
| | " | 이 정 인 | 관유리 178 | | 홍보위원(여) |
| | 홍천 1구 | 김 예 환 | 홍천리 | 688-0695 | 홍보위원(남) |
| | " | 김 초 희 | 홍천리 21 | | 홍보위원(여) |
| | 홍천 2구 | 한 우 현 | 홍천리 | 688-0465 | 홍보위원(남) |
| | " | 김 경 릉 | 홍천리 547 | | 홍보위원(여) |
| | 동 암 리 | 김 종 대 | 동암리 | 688-9642 | 홍보위원(남) |
| | " | 김 해 숙 | 동암리 13 | | 홍보위원(여) |
| | 반양 1구 | 우 한 석 | 반양리 | | 홍보위원(남) |
| | " | 서 금 린 | 반양리 241 | | 홍보위원(여) |
| | 반양 2구 | 이 상 일 | 반양리 | 688-1437 | 홍보위원(남) |
| | " | 박 영 신 | 반양리 47 |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웅소성리 | 이 강 협 | 웅소성리 | 688-2919 | 홍보위원(남) |
| | " | 유 윤 자 | 웅소성리 37 | | 홍보위원(여) |
| | 귀 밀 리 | 김 완 길 | 귀밀리 | 688-2941 | 홍보위원(남) |
| | " | 엄 충 희 | 귀밀리 62-1 | | 홍보위원(여) |
| | 억 대 리 | 윤 영 화 | 억대리 | 688-3034 | 홍보위원(남) |
| | " | 한 인 희 | 억대리 153-3 | | 홍보위원(여) |
| | 전 천 리 | 심 민 수 | 전천리 | 688-0866 | 홍보위원(남) |
| | " | 석 분 숙 | 전천리 340-2 | | 홍보위원(여) |
| | 웅 평 리 | 심 현 경 | 웅평리 | 63-0391 | 홍보위원(남) |
| | " | 김 영 민 | 웅평리 260 | | 홍보위원(여) |
| | 양 립 리 | 김 동 찬 | 양립리 | 62-5069 | 홍보위원(남) |
| | " | 김 순 자 | 양립리 329 | | 홍보위원(여) |
| | 기지 1구 | 한 만 선 | 기자리 204 | 688-0382 | 홍보위원(남) |
| | " | 한 만 선 | 기자리 264 | | 홍보위원(여) |
| | 기지 2구 | 김 병 원 | 기자리 | 63-0405 | 홍보위원(남) |
| | " | 김 옥 태 | 기자리 111 | | 홍보위원(여) |
| | 저 성 리 | 모 종 구 | 저성리 34 | 63-3154 | 홍보위원(남) |
| | " | 윤 재 순 | 저성리 240 | | 홍보위원(여) |
| | 조 산 리 | 명 노 희 | 조산리 299 | 63-0103 | 홍보위원(남) |
| | " | 손 춘 자 | 조산리 65 | | 홍보위원(여) |
| 고북 | | 김 주 영 | 초록리 255 | 63-2496 | 운영위원(리책임자) |
| | 가구 1구 | 김 기 훈 | 가구리 499 | | 홍보위원(남) |
| | " | 신 명 희 | 가구리 625-10 | 63-2103 | 홍보위원(여) |
| | 가구 2구 | 김 진 하 | 가구리 659 | 63-1650 | 홍보위원(남) |
| | " | 정 순 람 | 가구리 50-43 | 63-2214 | 홍보위원(여) |
| | 신송 1구 | 조 주 원 | 신송리 761-1 | 63-2291 | 홍보위원(남) |
| | " | 김 정 자 | 신송리 699 | 63-1925 | 홍보위원(여) |
| | 신송 2구 | 김 정 환 | 신송리 | | 홍보위원(남) |
| | " | 박 종 선 | 신송리 339 | 63-1623 | 홍보위원(여) |
| | 장요 1구 | 김 준 환 | 장요리 52 | 63-1871 | 홍보위원(남) |
| | " | 라 영 란 | 장요리 1 | 63-1873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장요 2구 | 유 익 세 | 장요리 139 | 63-1830 | 홍보위원(남) |
| | " | 박 노 미 | 장요리 179 | 63-2800 | 홍보위원(여) |
| | 장요 3구 | 김 기 경 | 장요리 717 | 63-2604 | 홍보위원(남) |
| | " | 함 용 희 | 장요리 641 | 63-1772 | 홍보위원(여) |
| | 초록 1구 | 이 대 근 | 초록리 48 | 63-2092 | 홍보위원(남) |
| | " | 오 순 옥 | 초록리 346 | 63-1819 | 홍보위원(여) |
| | 초록 2구 | 이 규 창 | 초록리 54 | 63-1096 | 홍보위원(남) |
| | " | 김 기 옥 | 초록리 54 | 63-1908 | 홍보위원(여) |
| | 용암 1구 | 최 종 화 | 용암리 12-4 | 63-0878 | 홍보위원(남) |
| | " | 강 평 자 | 용암리 346 | 63-0881 | 홍보위원(여) |
| | 용암 2구 | 윤 석 준 | 용암리 171 | 63-1088 | 홍보위원(남) |
| | " | 김 연 상 | 용암리 476 | 65-2889 | 홍보위원(여) |
| | 용암 3구 | 고 원 규 | 용암리 668-19 | 63-2585 | 홍보위원(남) |
| | " | 최 동 예 | 용암리 396-1 | 63-1296 | 홍보위원(여) |
| | 신상 1구 | 양 승 섭 | 신상리 155 | | 홍보위원(남) |
| | " | 정 정 예 | 신상리 308 | | 홍보위원(여) |
| | 신상 2구 | 오 봉 식 | 신상리 | 63-0422 | 홍보위원(남) |
| | " | 김 영 옥 | 신상리 12 | 63-0762 | 홍보위원(여) |
| | 신상 3구 | 김 능 규 | 신상리 23 | 63-2773 | 홍보위원(남) |
| | " | 엄 연 순 | 신상리 103 | 63-1256 | 홍보위원(여) |
| | 신정 1구 | 장 성 대 | 신정리 | 63-0139 | 홍보위원(남) |
| | " | 강 정 숙 | 신정리 91 | 63-3262 | 홍보위원(여) |
| | 신정 2구 | 심 영 택 | 신정리 146 | 63-0055 | 홍보위원(남) |
| | " | 이 옥 선 | 신정리 79 | 63-0063 | 홍보위원(여) |
| | 남정 1구 | 최 근 수 | 남정리 318 | 63-2318 | 홍보위원(남) |
| | " | 정 기 영 | 남정리 346 | 63-2346 | 홍보위원(여) |
| | 남정 2구 | 김 근 태 | 남정리 556 | 63-0136 | 홍보위원(남) |
| | " | 한 기 희 | 남정리 559 | 63-0126 | 홍보위원(여) |
| | 남정 3구 | 박 주 순 | 남정리 | 63-1894 | 홍보위원(남) |
| | " | 고 한 순 | 남정리 113 | 63-2519 | 홍보위원(여) |

| 읍면동 | 리 동 | 성 명 | 주 소 | 전 화 | 비 고 |
|-----|-------|-------|-----------|---------|---------|
| | 기포 1구 | 최 흥 용 | 기포리 374 | 63-2421 | 홍보위원(남) |
| | " | 최 인 순 | 기포리 410 | 63-2378 | 홍보위원(여) |
| | 기포 2구 | 남 정 호 | 기포리 27 | 63-2259 | 홍보위원(남) |
| | " | 박 옥 재 | 기포리 90 | 63-3304 | 홍보위원(여) |
| | 양천 1구 | 한 영 표 | 양천리 238 | 63-2552 | 홍보위원(남) |
| | " | 조 희 행 | 양천리 산 6 | 63-2414 | 홍보위원(여) |
| | 양천 2구 | 김 화 춘 | 양천리 330 | | 홍보위원(남) |
| | " | 손 희 분 | 양천리 8 | 63-1558 | 홍보위원(여) |
| | 정자 1구 | 최 흥 식 | 정자리 | 63-2545 | 홍보위원(남) |
| | " | 신 문 자 | 정자리 35 | 63-2891 | 홍보위원(여) |
| | 정자 2구 | 한 병 기 | 정자리 137 | 63-1606 | 홍보위원(남) |
| | " | 이 안 옥 | 정자리 302 | 63-2863 | 홍보위원(여) |
| | 봉생 1구 | 엄 장 섭 | 봉생리 152-1 | 63-1695 | 홍보위원(남) |
| | " | 김 영 숙 | 봉생리 120 | 63-2091 | 홍보위원(여) |
| | 봉생 2구 | 김 천 태 | 봉생리 326 | 63-2536 | 홍보위원(남) |
| | " | 안 기 란 | 봉생리 72-2 | 63-1738 | 홍보위원(여) |
| | 사 기 리 | 조 병 하 | 사기리 328 | 63-2199 | 홍보위원(남) |
| | " | 양 명 호 | 사기리 산 18 | 63-2181 | 홍보위원(여) |

瑞山の 옛소리

資料調査：瑞山文化院弘報委員

編著者：河 周 成

印刷日：1994年 10月 20日

發行日：1994年 11月 1日

發行處：瑞山文化院

發行人：金 顯 龜

印刷：瑞山印刷公社

☎ (0455) 64-0001-3

FAX (0455) 666-2404

連絡處：충남 서산시 읍내동 268

서 산 문 화 원

☎ (0455) 65-5050

FAX (0455) 65-4567

